

### 제1절 목포관광의 현실과 가능성

심원섭 | 목포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 제2절 목포관광을 둘러싼 대외 여건

심원섭 | 목포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 제3절 목포관광의 발전 잠재력

심원섭 | 목포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 제4절 미래 목포관광의 발전과제

심원섭 | 목포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 제3장 서남권 관광 허브, 목포

### 제1절 목포관광의 현실과 가능성

일제강점기 전국 3대 항만의 하나인 목포는 해방 후 경제개발시대가 열리면서 경부축 중심의 국토 개발과정에서 소외되어 산업구조 고도화의 상대적 미진전으로 낙후지역으로 반전되어 왔다. 중앙정부는 1980년대 후반부터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대명제하에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을 수도권이나 동남권에 대극하는 개발권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토개발정책을 표방해 왔으나 그 효과는 가시화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에서는 서해안축과 남해안축의 교차지역인 목포를 중국 등 동북아를 향한 국제물류, 비즈니스, 신산업, 문화관광기반의 성장동력 육성과 중국과 일본, 환태평양 등 해양지향적인 국토의 관문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관광기반의 국제 교류지대로 육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요원한 상태로 남아있다. 더욱이 2000년대 후반 ‘서해안 시대의 개막’과 함께 서해안의 집중개발에 국토개발의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서남권종합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정도로 중앙정부의 정책의지를 표출했으나, 결과적으로 그 실천력이 미흡하여 서남권의 관문도시인 목포는 아직도 소외지역이자 저발전지역으로 남아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정부의 관심이 수도권과 동남권을 주대상으로 한 효율성 위주의 불균형정책의 결과이다. 지역의 입지적 특성이나 여건을 감안한 전국토공간의 균형적인 활용이라는 대명제는 도외시한 채, 당장의 수요나 효율성만을 강조한 중앙정부의 근시안적 압축성장정책의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중앙정부 지역발전정책이 지역의 특성이나 실정에 맞는 발전 잠재력은 거의 반영됨이 없이 당장의 수요에 대한 검토와 이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분석만을 강조한 나머지 시설의 배분이 공간적으로 편중 배치되어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켰다.

목포의 관광산업도 다른 산업분야와 마찬가지로 미발전상태로 여전히 남아 있다. 그동안 관광분야



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서비스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개편 필요성으로 인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방한 중국인 외래 관광객 증가라는 환경변수에 의해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해왔다. 방한 외래 관광객 수는 2012년 1114만 명으로 외래 관광객 1천만 시대에 진입하였다. 이는 관광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62년 이후 50년 만에 달성한 성과이다. 2016년에는 외래객 1700만 명을 달성하였다. 외래 관광객의 비약적 증가는 적극적 외래객 유치활동, 관광산업 제도개선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등 정부와 민간, 산업계의 노력이 빚어낸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성장의 뒷면에는 여러 문제점도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과 지역 간 관광발전의 격차는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과 제주도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과거 10여 년 동안 이루어온 관광산업 성장의 온기를 느낄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목포시는 상대적으로 수도권과의 원거리라는 지리적인 입지 한계와 관광인프라의 부족, 그리고 지방재정의 한계로 인한 투자미비로 여전히 미발전 지역으로 남아 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발전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부정적 결과에는 목포시의 정책적 실패도 한몫 했다. 목포는 항구도시이자 예향의 도시로서 다른 지역에 비해 해양, 역사문화, 문화예술이 풍부하고 인근지역에 천혜의 다도해지역이 위치하고 있는 등 우수한 관광자원과 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관광수요의 증가라는 외부 시장환경도 유리하게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우선 IMF와 뒤이은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관광투자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관광발전전략을 채택하기 보다는 전통적인 관광개발전략을 고수했다. 여기에는 직접적인 목포시권은 아니지만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등 대형프로젝트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한몫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관광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관광트렌드의 급속한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 그동안 관광시장은 SNS로 대별되는 소셜미디어의 등장으로 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었으며 관광시장의 트렌드 주도 계층도 젊은 층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는 항구도시이자 예향도시라는 과거의 이미지에만 급급한 나머지 관광시장의 변화흐름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목포는 전남 지역은 물론 다른 지역의 관광도시에 비해 발전 격차가 매우 커지게 되었다.

그러나 21세기 신해양시대 해양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는 목포의 발전가능성은 매우 높다. 우선 목포는 중국-한국-일본을 잇는 국제교역의 요충지에 입지하고 있어 중국의 항해연안지역, 특히 중국정부가 대외교역의 거점으로 개방하고 있는 연안지역과 지경학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목포는 반경 1000km이내에 상해, 천진, 오사카, 후쿠오카 등 동북아지역의 주요 국제도시들이 입지해 있으며, 특히 중국의 경제수도로 급부상한 상해지역과 인접해 있다. 더욱이 목포는 무안국제공항, 목포신항 등 국제적인 접근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과거에 비해 동북아 주요도시와도 접근성이 좋아졌다.

또한 목포는 대내적으로는 우수한 입지여건을 확보하고 있다. 목포는 국토 서남부에 입지해 있으며, 21세기 국토발전축인 서해안축과 남해안축의 교차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국내 주요도시와 항공, 철도, 도로 등을 이용하여 1~3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하다. 특히 최근 서울-광주 간 KTX가 개통되었으며, 향후 광주-목포 간 KTX 전용 철도가 개통예정으로 있어 수도권과의 접근성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목포는 이러한 우수한 입지 여건과 여가시간의 증대 및 삶의 질 추구에 따른 여행의 일상화라는 변화하는 새로운 트렌드에 부합하는 관광자원 여건을 가지고 있어 목포관광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다. 향후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섬, 갯벌, 해안선 등을 활용한 해양레저에 대한 관광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해양관광은 해변관광, 해상관광, 해중관광 등으로 구분되는데, 목포를 비롯한 서남권 지역은 해변·해상·해중관광이 모두 가능한 지역으로 해양관광 발전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특히 목포는 온화한 기후와 인접지역에 섬을 중심으로 청정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건강, 휴양, 힐링, 음식, 해양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해양·섬의 발전 잠재력에 대한 인식변화로 인해 대한민국의 섬의 수도로서 목포에 대한 국가적 관심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증가되면서 서남권 중심도시이자 거점도시로서 목포 발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목포관광은 국토개발정책의 한계, 내부적인 준비부족, 관광환경 변화의 부정적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관광발전의 소외지역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목포가 가지는 지경학적 위치, 관광환경의 변화, 국가정책의 변화, 무엇보다도 목포가 가진 관광자원의 활용 잠재력으로 인해 21세기 목포관광을 서남권의 관광중심도시라는 지역적 발전 담론을 넘어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새로운 관광허브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제2절 목포관광을 둘러싼 대외 여건

그동안 목포관광의 발전여건은 기회적 요인보다는 도전적 요인이 주조를 이루어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하지 못했다. 그러나 향후 지역관광 활성화라는 정부정책의 변화와 대내외적인 여건변화, 특히 중국 등 동북아경제권의 부상을 감안하면 목포시는 동북아경제권의 물류 및 산업중심이자 한반도의 새로운 해양관광거점으로 부상할 여건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최근 들어 동북아 지역을 비롯한 세계경제는 새로운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한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세계경제는 서로 상반된 두개의 조류가 공존하는 형태로 변모해 가고 있다. 하

나는 1990년대 이래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국경을 초월한 지역주의 심화추세 속에서 각국은 자본, 기술, 노동력, 자원, 시장 등 서로 다른 조건에 따른 국제 분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역주의 심화 추세 속에서 주목해야 할 부문이 바로 중국과 일본에 의한 일본 남부, 중국 동해안, 그리고 목포를 포함한 한반도 서남권을 대상지역으로 한 동북아 경제권의 발전가능성이다. 동북아시아권 국가들은 경제발전수준, 산업구조, 자원의 부존상태 등에서 상당 부분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어 이들을 연계시키면 동북아시아지역의 경제발전 잠재력은 막대할 것이다. 일본의 막대한 기술과 자본, 중국의 거대한 인력자원, 풍부한 자연자원, 잠재력이 큰 내수시장, 한국의 개발경험, 경영관리기술 등이 상호 보완되면 그 잠재력은 매우 클 것이다. 이러한 대외적인 경제 환경변화 속에서 목포관광의 미래발전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목포는 환태평양으로 나아가는 서남권의 관문도시로서 향후 전개될 동북아 해양교류시대의 중요거점으로 부상할 것이고 관광도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향후 발전가능성은 무궁무진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목포시가 이러한 동북아 경제권내 일본과 중국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양국 간 혹은 양지역 간 관광허브기능을 가장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찍이 통일신라시대 장보고대사가 시현했던 해상무역범역이며, 일본이나 중국이 한반도 가운데 서남권, 특히 목포권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하겠다. 이처럼 목포는 향후 동북아경제권의 형성과 함께 동북아관광경제권의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 바, 향후 목포시의 관광발전전략도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모두 이러한 초국가적 국제관광교류, 즉 동북아관광경제권의 틀 속에서 찾아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동북아경제권, 특히 대중국 교류에 있어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나는 동북아시아에서 구상되고 있는 지역통합은 여타 지역의 통합과는 달리 체제의 다양성 등의 이유로 지방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국가 간 교류보다는 자치단체 간 교류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일본, 중국, 한국 모두가 지방분권화로 인해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가능성을 높여주는 주원인이다. 따라서 목포시는 관광교류 측면에서 지리적으로 지근거리에 있는 중국 상해 이남·북지역인 절강성, 강소성이나 일본의 남부 큐슈지방과의 자치단체 단위의 관광교류증대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목포시가 중국내 도시들과 결연을 강화하고 있는 사실은 바람직하며, 지속적인 관광교류를 통한 인력 및 문화교류 증대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대중국교류 증대가 목포의 관광발전에 결코 긍정적이고 기회적인 요인보다는 부정적이고 도전적인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장 중요한 점이 아직까지 목포가 한국의 다른

도시에 비해 관광 인프라의 심화정도를 고려할 때 관광산업 발전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광교류가 증대되더라도 고부가가치의 창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목포시의 관광산업은 중국 등 대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지 않고 있으며, 관광산업이 목포지역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는 관광과 관련된 기반여건의 확충과 연관 산업의 발전이 매우 미흡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다. 따라서 대중국 관광교류를 통한 지역발전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연계될 수 있는 전략적 관광산업 육성과 관광산업의 특성화와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21세기를 바라보면서 국내적으로도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크고 작은 관광자원의 동질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광권이 빠른 속도로 형성되면서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지역 간 관광연계와 협력의 틀 속에서 지역별 차별화 전략과 지역 간 경쟁분위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목포시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서남권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관광여건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토의 관광발전축이 과거 수도권과 동남권, 강원영동권 중심에서 대외적 교류의 입지 우위적 요인에 의해 서남권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관광발전을 선도해 왔던 수도권, 동남권, 강원동해권이 발전의 한계에 인해 향후 관광발전축은 그동안 조명되지 않았던 서남권으로 이동할 것이고, 이에 따라 목포시의 국토관광 공간상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다.

둘째, 중앙정부의 관광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중앙정부는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광산업에 대한 육성지지를 피력해 오고 있으며 관광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부각되지 않았던 해양 및 섬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전략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국토의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방관광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목포는 향후 급증이 예상되는 해양레저관광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해양관광거점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서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관광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는 그동안 관광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법적·제도적 제약요소를 개선하여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보장하는데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관광산업을 둘러싼 행정·경제적 규제를 완화될 것이다. 특히 해양과 섬을 관광명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과 제도적 지원책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여 서남해안권에 대한 국내외 관광자본 투자가 지금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관광, 문화·예술, 환경, 생태 등의 부존자원을 통한 지역발전전략의 비중이 증대될 것이다. 종래의 제조업 위주 지역개발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가 확산되어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고

조되면서 관광, 문화, 예술, 환경, 생태 등의 자원이 지역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부상될 것인 바, 타 지역에 비해 보전적이고, 관광의 발전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부존자원이 풍부한 목포시는 관광을 통한 지역발전전략의 비중이 증대될 것이다.

다섯째, 지역민의 관광을 통한 지역발전의지가 고양되고 있다. 종래의 중앙정부 중심의 관광개발 방식은 지역관광개발에 대한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지 못했으나,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관광발전은 지역민 스스로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는 새로운 자립의식과 함께 지역민의 발전의지가 고양되고 있다. 이러한 관광을 통한 지역발전의 의지는 제조업이 취약한 지역의 산업구조적 여건과 새로운 신성장산업으로 관광에 대한 기대로 인해 커지게 될 것이다.

이처럼 목포시는 한반도 서남권의 중심도시로서 수도권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관광발전축의 개발한계에 따른 후발주자의 이점 향유, 중앙정부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 고조, 국가 차원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 그리고 관광, 문화, 예술, 환경 등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 비중 증대, 지역민의 관광발전의지 고양 등의 기회적 여건 변화로 인해 지속적인 발전이 전망된다.

### 제3절 목포관광의 발전 잠재력

목포시는 서남권의 지리적 중심지이자 서남권의 기본골격인 L자축의 결절지점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안공항, 목포신항 등의 국제교통시설과 함께 수려하고 다양한 해양·도서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외 관광교류의 중심 입지로서의 최적조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목포시의 관광발전은 전술한 향후 대내외적 발전여건을 관광발전의 기회적 요인으로 활용하면, 변영이 약속된 관광교류의 중심으로서 한반도의 새로운 관광거점이자 동북아지역 내 중국과 일본의 관광교류 허브지역으로서의 발전 잠재력이 기대된다.

우선 목포시는 한반도의 새로운 관광거점이자 동북아 관광교류의 중심지로 기능할 것이다. 목포는 광주와 연계하여 대륙지향축이자 수도권 및 통일 후 북한과 연계된 축으로 기능이 부여되어 있으며 남해안 광역관광권과 서해안 광역관광권의 만나는 교차지역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기개발된 관광 인프라와 무안 국제공항 및 연계 간선도로망, 목포 신외항, 호남고속철도 등의 배후 광역교통망이 확충되어 목포시는 한반도의 새로운 관광성장거점으로 기능하기에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목포는 국제항만과 공항이 확충된 동북아 관광교류 중심지로서의 발전 잠재력이 있다. 특히 중국이 세계경제 주도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중국과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는 목포시는 동북아경

제권내 대중국 관광교류의 전진기지로 기능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구체적으로 목포는 중국의 주요도시인 상해나 대륙횡단철도(Trans China Railway : TCR)의 기점이자 중국 중부권의 중심항만으로 발돋움할 연운항 등과 어느 나라, 어느 지역보다도 지근거리(목포-상해 671km, 군산-상해 790km, 인천-상해 918km)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발전 잠재력이 높다.

21세기 국제교역기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3P'인 국제공항(Airport), 국제항만(Seaport), 정보항(Teleport) 등 고속교통망과 통신망의 확충이 필수적인 바, 무안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국내외 항로 개설, 목포항, 그리고 목포권의 정보거점항 확충을 통하여 목포시는 동북아의 관광교류의 중심지로 부상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목포시는 대내외적인 지리적 입지 장점뿐만 아니라 관광매력성 관점에서 발전 잠재력이 높다. 우선 목포는 해양도시로서의 장점과 주변의 다도해 지역의 거점도시로서의 중심성으로 인해 해양과 섬 관광의 새로운 관광산업의 적정입지로서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 지역은 해양·도서자원을 바탕으로 국제적 관광·휴양명소로 기능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은 타 지역에서 볼 수 없는 200여 개(전남 1,979개, 전국 3,165개)에 달하는 도서가 절경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도서가 육지부와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있어 접근이 용이하며, 이들 도서들은 '예향'으로서 잘 보존된 다양한 문화유적과 전통예술과 선인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유적지, 가사 문화, 전통 민속, 도요 문화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해 지역은 섬, 바다, 갯벌 등 매력 있는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개발사업이 가능하여 미래 관광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 이처럼 빼어난 해양관광자원에 문화유적, 전통예술 등의 독특하고 향토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목포시의 본격 개발에 따라 증대될 관광객 등 국내외 유입인구 및 지역민의 여가공간이자 국제적 해양관광명소로 기능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목포는 대안관광의 발전에 있어서 최적의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다른 지역은 대중관광의 시대 관광개발의 압력으로 인해 이미 발전의 임계치에 와있다. 그러나 목포는 그동안 수도권과 원거리에 있다는 접근성의 한계로 인해 자원여건이 우수한데도 시장에서 각광받지 못했다. 그러나 향후 기술혁신에 따른 고속·고급화 추세를 감안하면 거리의 중요성이 약화될 것이므로 목포를 중심으로 서남권에 풍부하게 부존하고 있는 관광자원이 우수하기 때문에 대안 관광의 시대, 새로운 관광 목적지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목포는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여가시간의 증대에 따라 해양, 섬 자원을 기반으로 한 건강과 휴양관광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대안관광의 최적지로서 새롭게 조명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향후 목포는 국제공항, 항만 등 SOC의 확충에 따라 동북아 관광교류의 중심지이자 한반도



의 새로운 관광거점, 예술, 문화, 자연생태 등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지는 삶의 질이 충만 되는 관광허브로 발전할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으며 새로운 관광목적지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치관광의 시대가 등장하면서 지역성과 지역의 인문적, 자연적 가치가 새롭게 조명 받고 부각되는 신관광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에 따라 목포는 서남권 관광의 허브를 넘어 한국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동북아 관광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할 것이다.

#### 제4절 미래 목포관광의 발전과제

목포는 대외여건 변화, 관광환경 변화, 관광자원 매력성에 비추어 볼 때 서남권 관광의 허브, 나아가 동북아 관광교류의 허브로서 발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목포가 향후 서남권의 관광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기능과 해양도시의 전통과 특성을 살린 해양관광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또한 목포는 동북아 지역의 주요 관광수요 시장을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수행하여 동북아경제권의 거점 관광도시로 발전해야 한다.

앞서 제시한 목포관광의 미래지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우선 목포가 서남권의 허브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새로운 관광욕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관광목적지로서의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목포를 비롯한 서남권 해양 및 도서지역을 국민여가관광지대로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발전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목포는 서남해 해상관광벨트와 연안 및 내륙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환상형 관광축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며, 해양생태·레저~건강·휴양~전통역사·도시문화자원의 연계를 통해 다도해 해상관광벨트와 내륙관광·문화자원을 연계한 환상형 관광발전축의 중심도시로 거듭나야 한다.

나아가 목포는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관광교류의 중심거점으로 발전해야 한다. 목포는 국제항만과 공항이 확충된 동북아 관광교류 중심지로서의 발전이 기대되고, 중국이 세계경제 주도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중국과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동북아경제권내 대중국 관광교류의 전진기지로 기능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국제관광도시의 위상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관광 인프라의 확충과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문화적, 자연적 요소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발전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목포관광만을 생각하는 지역적 사고보다는 목포와 주변 지역, 그리고 서남권 다도해 지역까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협력적 사고가 필요하다.

앞서 제시한 목포관광의 미래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과제가 있다. 첫째, 목포는 수도권이나 부산 등 국내 거점 지역 간, 교통수단 간의 연계성이 미흡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선 목포시와 주변도시 및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적 교통체계를 완성하여 관광거점도시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항공, 항만, 도로, 철도 등을 연계하는 복합관광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서남권 해양 및 다도해 지역의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페리, 연안크루즈 등 다양한 해상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서남권 다도해 지역과의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목포를 대한민국 해양 및 섬 관광의 중심지로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동북아 관광교류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접근성이 개선되어야 한다. 목포는 동북아 관광권의 교류중심도시로서 역할이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한 항만 인프라와 공항 접근성이 미흡했다. 이를 위해 목포 신외항에 15만 톤급 크루즈 전용부두 및 크루즈 배후단지를 조성하여 동북아의 크루즈 거점항만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목포-중국 간 카페리 운항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무안국제공항과 동북아 주요 도시와의 정기 및 비정기 항공노선 확충과 거점 취항 중저가 항공사 유치 등을 통한 공항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철도 및 도로 인프라의 확충과 중국 등 외래 관광객을 표적시장으로 한 전략 관광 상품의 개발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

셋째, 목포를 신해양시대 동북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해양관광거점지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해양관광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국제적 해양도시 지향성에 걸맞은 워터프런트 등 체계적인 해양친수구역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도시공간으로서 워터프런트는 항만재개발을 통한 도심확장과 문화 공간 개발, 새로운 주거지역의 개발, 해안 및 해양리조트 개발, 독특한 해안 생태계의 보전 등 다각적 측면에서 도시내부에서 해안선 지구에까지 복합적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이는 해양거점도시로서의 목포시 장기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특히 목포의 워터프런트는 관광, 휴양, 문화, 교통, 비즈니스, 주거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목포를 서남권의 섬·해양자원을 바탕으로 크루즈, 마리나, 항공 등 해양레저와 연계한 동북아 해양관광 국제선도지구로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목포 신항만 일원을 국제크루즈 관광 전용부두 등을 갖춘 국제해양레저관광산업지구로 조성해야 한다. 또한 목포를 전통문화자원의 보고 등 보존가치가 탁월한 서남권 다도해 섬 자원을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글로벌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해양관광기반시설 확충과 섬 특화 관광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넷째, 목포가 서남권은 물론이고 동북아지역의 해양관광 거점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광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목포는 숙박 등 관광인프라와 집객력 있는 매력적인 관광시설이 절대 부족하며, 해양관광도시의 위상에 부합하는 관광인프라가 미흡한 상태에 있다. 특히 목포는 서남권 교통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관광허브로서의 기반인프라 열악한 상황이고, 서남권 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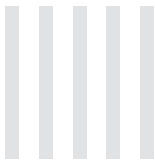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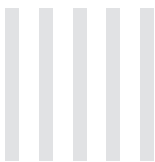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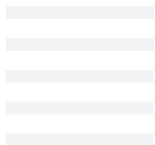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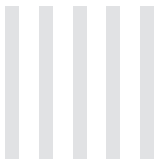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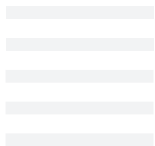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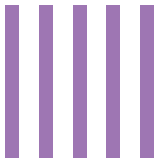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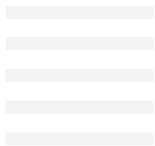
해지역의 중심도시로서 거점역할을 수행하는데 기반이 취약하다. 따라서 향후 서남권 및 동북아 관광허브도시로서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체류형 관광도시로서 국내외적인 교통접근성 개선과 더불어 매력 있는 집객시설의 개발, 숙박 등 관광인프라 구축, 해양도시에 걸맞은 해양관광명소 및 인프라 확충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다섯째, 목포가 서남권 및 동북아의 관광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모든 지방도시가 그러하듯이 목포 또한 관광산업 여건이 매우 취약하다. 향후 목포가 한국을 대표하는 해양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생태계의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와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경쟁력 있는 관광기업의 육성, 관광산업 지원시스템의 구축,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등을 통해 해양관광클러스터를 구축하는데 많은 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관광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목포가 서남권, 나아가 동북아지역의 경쟁력 있는 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목포다움’의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개항도시 목포의 정체성 유지, 재생산, 그리고 확장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목포는 서남해안 끝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1897년 개항하여 한때 전국 3대항 6대 도시의 영화를 간직한 유서 깊은 항구도시이다. 최근 목포는 근대개항도시의 면모가 많이 약화되었지만 원도심 곳곳에는 옛 도시의 자취가 남아 있으며 다양한 근대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다. 따라서 선창권 등 원도심 재생사업을 자본이 아닌 사람과 문화중심으로 추진하여 ‘목포다움’을 유지하면서 새로움을 만들어가야 한다. 목포의 미래관광발전을 위해서는 동북아 관광경제권에서의 위치, 서남권 관광허브로서의 미래지향적인 요소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기는 하겠지만 목포가 가진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심원섭 | 목포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제1절 목포 엘리트체육, 장애인체육

전호문 | 목포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제2절 목포 생활체육

전호문 | 목포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제3절 목포 스포츠산업

전호문 | 목포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 제4장 목포 체육의 역사적 흐름

### 제1절 목포 엘리트체육, 장애인체육

#### 1. 목포 엘리트체육의 태동

목포에 근대체육 활동이 시작된 것은 1897년 목포가 개항과 더불어 부민과 외국인의 거주가 증가하면서 부터이다. 이 시기에 생산 활동이 급격히 불어나게 되어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여건과 상황 아래 서로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모임들이 형성되었다. 1964년 8월 9일 일본인들이 목포체육회를 창립하였고, 그 후 이 모임은 1926년 결성된 상무회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sup>01)</sup> 목포체육회 회원들은 목포경찰서 내에 있는 상무관 자리에 상무회원이 운동할 수 있는 조출한 도장을 마련하였다. 이것이 목포에 세워진 최초의 무도장이다. 상무관의 시초이다. 상무관의 건립과 함께 순수한 무도인의 모임인 상무회가 창립하게 되었다. 상무회는 회원의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1930년 현재 회원 수가 458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도장 발전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로를 밟아가는 동안 각종 체육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목포체육은 발전해 나가게 되었다. 특히 체육활동의 종류가 점차 다양화되면서 전국규모대회에 출전하는 선수와 그 횟수가 많아지게 됐다.

01) 『동아일보』1922. 01. 26. 「상무회창립총회」.

## 2. 일제강점기 목포 엘리트체육(목포체육협회 발족)

목포 체육은 점차 전국규모대회에서 좋은 전적을 거두게 되어 마침내 1923년 8월 17일 순수한 조선인들로 구성된 목포 사람들의 모임인 목포체육협회(회장 : 김상섭, 이사장 : 권영례)가 정식으로 발족하게 되었다. 당시 회원자격은 만 15세 이상의 보통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을 가진 남자로 명예회원과 특별회원을 두었다. 체육협회 내에 육상, 수영, 정구, 야구 등 4개 분야를 두었는데, 이들의 활동비용은 회원의 입회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했다. 그 중 축구부는 기금보조를 받지 않고도 부원들이 낸 특별 기금으로 활동하기도 하면서 타 부서의 모범이 되었다.

특히 활동이 활발한 종목은 정구로 호남은행(조흥은행 전신) 정구부(이사장 : 구대회)가 일본 동경에서 열렸던 명치 신국 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대회를 석권했다. 1924년 7월 10일에는 전조선정구회와 목포체육협회가 전조선정구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선언했고 기간은 8월 2일, 3일 이틀 간 삼양일간당지보교광장에서 대회가 열렸다.<sup>02)</sup> 우승은 전주군(全州軍)이 차지했다. 이 전조선정구대회는 1940년까지 개최되었다. 1930년에 목포 정구협회를 노적봉 아래 전 측후소 자리에 1면을 만들어 협회를 발족했다.<sup>03)</sup> 또한 1927~1932년 호남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또한 목포 개항 35주년 구역확장 기념 축하 궁술대회를 연무정에서 1932년 9월 21일에 열었다. 1935년 5월 30일에는 목포시민대운동회를 개최했으며 1939년 9월 3일에는 권투도시대항전을 열었다.<sup>04)</sup> 권투에서는 정봉현 선수가 페더급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유명세를 보였다. 1940년에는 목포 체육협회총회를 개최, 광주와 목포 친목 정구시합을 열었다. 이렇게 목포체육협회는 정구, 권투, 축구 등 다양한 대회를 목포에 유치하여 개최하였다.

야구는 1932년과 1933년에 목포상업고등학교가 전일본중등학교 야구우승권 대회에 참가하여 각각 3위와 준우승을 차지했다.

육상의 경우 김연석 선수가 1934년 제10회 조선신궁경기대회(1,500m)에서 우승했고 1937년 제13회 대회(3,000m 장애물 달리기)에서 우승했으며, 최한희 선수가 1932년 제8회 조선신궁경기대회에서 멀리뛰기와 세단뛰기에서 2위, 3위를 각각 기록했다. 김동석 선수는 조선신궁 육상경기대회 1,500m에서 우승하고, 일본 동경 명치 신국대회 초청선수로 출전했다.<sup>05)</sup> 북교국민학교는 1926년

02) 『동아일보』 1924. 07. 10. 「전조선정구회 내달팔월이삼양일간 전남목포에서 개최」.

03) 목포시, 『체육백서』, 2009, 27쪽.

04) 『동아일보』 1939. 08. 30. 「권투전개최 본보목포지국후원」.

05) 『동아일보』 1934. 03. 02. 「조선육상오걸 상 남자지부」; 『동아일보』 1937. 10. 19. 「팔일 동안 전개되었든 신궁경기종목 신기록 속출의 호성적으로」.

전남육상경기대회 400m 계주 부에서 우승을 차지하여 목포 육상을 전국에 알렸다.

1930년 여름에는 목포 유영협회가 창립되어 같은 해 8월 11일 제1회 호남유영대회를 개최하는 등 유영협회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때의 수영은 군사적인 목적 때문에 바다에서 실시하는 원거리 수영이 주종을 이루었다.

1930년대에는 목포상고의 전성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오기선 선수, 김상호 선수, 정영수 선수가 각각 1,200m, 1,500m, 5,000m에서 전남기록 보유자로 목포 육상의 신화를 이뤘다.

이와 같이 목포체육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협회가 계속 창립됨에 따라 체육활동도 확대되어 목포 체육은 많은 발전을 해 나가면서 전국규모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는 등 활발하게 발전해 나갔다.

한편 1923년의 목포체육협회 발족에 자극을 받은 목포 거주 일본인들이 주축이 되어 1924년 4월에 목포운동협회를 창립하게 되었다. 목포운동협회는 본부를 목포신탁주식회사 안에 본부를 두고 육상부와 야구부를 육성하였다. 이것은 우리 민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억압하기 위한 조직으로 만들어진 어용 체육단체의 한 분파로서 목포체육협회에 항상 보이지 않는 압력을 가하는 역할을 했다. 이 단체는 1929년 9월 회원 증가와 더불어 그 활동도 폭넓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도 일본이 만주침략과 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체육 본래의 활동은 사라지고 체육이 일본군국주의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으로 변질되어 군사 체육화되면서 잠시 암흑기로 들어서게 되었다.

### 3. 광복 후 목포 엘리트체육

광복 이후 1946년 육상, 배구, 검도, 유도, 사이클, 축구, 탁구, 정구 등의 종목을 중심으로 목포체육회(회장 : 김철진)가 조직되었으나 6·25전쟁 등으로 와해되었다가 1951년에 재조직되었다. 이때부터 목포 체육은 전성기를 구가하기 시작했다. 중요 활동경기는 탁구와 농구였으며, 우리나라의 탁구와 농구가 발전하는 밑거름 역할을 하게 되었다.

1949년 제3회 탁구선수권대회에서 황계선, 김순애 선수가 복식에서 1위를 했고 단식에서는 황규선 선수가 은메달을 차지해서 목포를 빛냈다.<sup>06)</sup> 또한 1954년에는 제3회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에 목포 출신 위쌍숙 선수가 국가대표로 뽑혀 우승한 데 이어, 1956년 동경에서 개최된 제35회 세계탁구

06) 『경향신문』 1949. 11. 29. 「삼회전국탁구선수권대회전적」.

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함으로써 목포 탁구가 한국의 탁구를 넘어 세계의 탁구가 됐다.<sup>07)</sup> 이 같은 영광은 1958년 동경에서 열린 아시아경기대회에서도 이어져 목포 출신 선수들(위쌍숙, 조경자, 최경자, 원영호, 김두현)이 국위를 선양하였다.<sup>08)</sup> 이것은 1952~1955년에는 목포고, 목포여고 탁구부가 전국대회를 석권한 결과이며 1958~1960년에는 제일중, 목포중, 목포여중, 목포공고, 목포상고 탁구팀들이 전통을 이어 받았다. 한때 문태고 팀만이 명맥을 이어가다 1970년 이후에는 목포고, 홍일고, 청호중 탁구팀이 혼란을 거듭하면서 좋은 전적을 쌓았다.

한편 1954년 11월 창설된 호남탁구선수권대회는 1977년까지 18회 대회에 이르는 대장정을 기록했고, 1966년 5월에는 목포상고에서 제2회 전국남녀중별탁구선수권대회를 가진 데 이어 1974년 6월에는 제20회 전국남녀중별탁구선수권대회를 그리고 1978년 11월에는 문교부장관기 전국남녀학생중별탁구대회 등 전국규모대회를 유치하여 탁구인구 저변확대에 기여하였다.

목포 체육의 한 축을 이룬 농구는 1945년 해방과 함께 목포세무서에 직장팀이 처음으로 등장했고 이를 계기로 동서에 농구코트가 마련되면서 각 학교에 널리 보급되었다. 1950년대에는 목포고, 목포공고, 목포여고, 정명여고에 농구팀이 창단되었다. 목포공고팀은 전국학도체육대회에서 2연패를 이루었고 강현성, 김영원 선수 등은 국가대표로 발탁되기도 하였다. 또한 1962년에는 삼학양조에 직장팀이 창단되었으며 1969년에는 미니농구가 채우남 등에 의해 목포에 선보여졌다. 1970년대에는 덕인고 농구팀이 활발했고 1973년에는 목포농구협회가 발족됐으며, 1976년에는 문태중, 유달중, 정명여중, 목포공고, 목포고, 정명여고, 목포여자상업고등학교 등에 농구팀이 창단되면서 목포농구의 면모를 일신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해체를 거듭하다가 목포상고에 다시 농구부가 창단되면서 옛 영광을 찾기 위하여 노력했다.<sup>09)</sup>

목포의 연식정구가 전국을 휩쓸어서 이른바 독무대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시기였다. 정구는 제3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김영배, 서인교, 방상균, 이병재 선수가 나란히 개인, 단체전에서 수상하면서 인기를 높였다.<sup>10)</sup>

목포 육상은 1940년대 라봉호 선수가 1946년 목포 육상회 주최 호남육상경기대회, 유달산 일주 마라톤 경기 1위, 전국올림픽선수권대회 마라톤 1위로 목포 육상을 이끌었고 1950년대에는 1950년 목포·광주 간 역전경기대회 제6구간 1위, 1951년 전쟁 기간 이봉우 선수가 전국체육대회에서

07) 『경향신문』 1954. 12. 23. 「한국탁구선수 복식선수권획득」.

08) 『경향신문』 1958. 05. 23. 「세계선수권보지한 일 선수격파 우리여자탁구팀 우승」.

09) 『경향신문』 1997. 06. 28. 「무명선수… 지옥훈련… 공포의 외인부대 변신 목포상고 첫 우승…」.

10) 『동아일보』 1949. 10. 19. 「제30회 전국체육대회 전적」.

100m, 200m에서 우승을 기록했다. 조준현 선수는 동일한 대회에서 100m 2위를 기록했다. 이 시기에 목포상고 선수단은 400m, 800m, 1,600m 계주에서 전남기록을 보유했다. 1960~1970년대부터 고등부에서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해 입상하는 등 두각을 보이기 시작하게 되었다. 문태고등학교, 덕인고등학교, 정명여자중·고등학교가 강세를 보였다. 박용균 선수는 문태고등학교 출신으로 투척 종목에서 1966년 전국체육대회에서 3위, 1967년 동일한 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다.

1956년 10월 31일 제1회 목포종합체육대회(회장-신현중)개최를 시작으로 목포체육이 재도약하기 시작하였으며, 5·16 군사 정변이후 정부의 강력한 체육진흥 정책으로 1962년 9월 제1회 전라남도 도민체육대회가 9개 종목을 대상으로 목포상고 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목포시민의 운동장으로 사용됐던 현 중앙초등학교 자리에 있었던 운동장이 팔리고 현 유달중학교 앞 동부시장 자리에 1965년 5월 목포종합운동장을 건립하여 제4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1968년 (주)남해개발 김영배 씨로부터 현 유달경기장과 주변의 31,500평을 기증받아 1971년 5월 1일 본부석 시설만 갖춘 공설운동장을 준공하여 사용하였다.

목포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성된 목포시 체육회는 1962년 6월 발족하여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목포시 체육회 사무실은 유달경기장 내에 위치하여 여러 체육단체와 긴밀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임원구성은 52명(임원 50명, 감사 2명)이며, 50개 종목의 경기단체가 연맹에 가입되어 있다.

1975년 8월에 발족한 목포체육진흥회는 1975년 8월에 목포의 체육인 지원육성을 위하여 백제약품 김기운, 행남자기 김준형, 조선내화 이훈동 등 42명의 독지가들이 기금운영회를 구성하여 재단법인 목포체육진흥회를 설립, 문화체육부에 등록한 후 전남교육위원회(사회 1051-1013호)로 허가받았으며 초대회장은 김준형이 지냈다. 목포체육진흥회는 제21대 목포시장으로 재직했던 변광영 시장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국내외적으로 어렵고 힘들었던 1974년에 운동경기를 위한 출전 팀의 경비가 필요했으나, 시의 재정 형편이 어려워 공식적인 예산을 확보하기에도 힘겨웠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변광영 시장은 시내 여러 지도층의 폭넓은 의견을 타진하고 목포 체육계의 현실타계를 위해서 체육진흥을 위한 모금이 필요하고 또 누군가 앞장서야 한다는 결론을 얻어, 목포의 독지가들의 도움에 힘입어 재단법인 목포체육진흥회를 설립하는 초석을 일구었다.

#### 4. 현대 목포 엘리트체육(1980~1990년대)

1980년대에는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 올림픽의 영향으로 체육계에서는 다양한 종목에서 유망주들의 육성과 스포츠 시장의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보였다. 그러면서 학교 엘리트 체



육이 강세를 보였다. 기존에 강세를 보였던 육상 종목 이외에도 태권도, 검도 카누, 사이클, 하키 종목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종목별로 세계대회에서도 좋은 활약상을 선보였다. 먼저 복싱에서는 이현주, 전철성 선수가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이현주 선수는 1981년 제62회, 1982년 6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라이트급 1위를 기록했다. 전철성 선수는 제6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웰터급에서 1위로 입상하고, 1983년 로마에서 열린 월드컵 복싱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sup>11)</sup> 1984년 LA올림픽 라이트헤비급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sup>12)</sup> 검도에서는 목포대학교 소속 선수가 1982년 상파울로에서 열린 세계 검도 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3위를 따내 한국 검도의 강인함을 세계에 알렸다. 그뿐만 아니라 1992년 제7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영흥고등학교가 야구 종목에서 3위를 차지했고,<sup>13)</sup> 농구 종목에서는 목포대학교가 3위를 기록하면서 구기 종목의 건재함도 보여줬다. 육상에서는 김영래 선수가 국제대회 투해머 부문에 출전하여 금메달을 획득했고, 박종삼 선수는 전국 남녀 육상경기선수권대회 창던지기 부문에서 2연패를 차지했다. 1986년 제10회 아시안게임에서는 박종삼 선수가 3위를 기록했다.<sup>14)</sup> 이렇듯 1980년대는 목포 출신 체육인들이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메달을 수상하는 등 세계적으로 활동 무대를 넓히며 우수한 경기 실적을 쌓았다.

1981년 5월 29일 지방권역에서는 처음으로 목포에서 제10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일부 종목시합(테니스, 배구, 탁구, 씨름, 배드민턴)을 개최하였고, 이어 1982년 4월 제21회 전남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1986년 9월 14일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 성화 봉송 달리기 대회가 목포역 광장에서 시경계까지 진행했으며, 1986년 10월 전남과 광주가 분리되면서 전라남도 경기 단체 11개 단체가(육상, 수영,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유도, 검도, 양궁, 하키, 카누) 목포에 본부를 두고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경기 실적뿐만 아니라 체육 인프라가 하나둘씩 갖추어지기 시작하여 목포 체육이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었다. 1987년 4월 목포 KBS 스포츠 홀이 준공되어 목포에서 처음으로 관람석 2,682석의 체육관이 설립되었고, 본부석만 갖춘 공설운동장이 1987년 10월 1일 11,000석의 관람석을 포함한 유달경기장으로 개축되었다.

유달경기장은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 101에 위치하며 1987년 9월에 개장한 축구와 육상, 하키와 럭비를 할 수 있는 다목적 구장이다. 부지면적 65,964㎡로 가운데에는 8,409㎡의 잔디구장이 마련

11) 『경향신문』 1983. 10. 18. 「월드컵복싱 김광선, 전철성 8강에」.

12) 『동아일보』 1984. 08. 08. 「신준섭, 전철성 동 확보」.

13) 대한체육회(www.sports.or.kr) -국내종합경기대회 제73회 전국체육대회(야구, 농구).

14) 『동아일보』 1986. 10. 02. 「육상 일본 강세 하루 금 6개」.

대 있으며 1990년 10월 24일 그 주위로 400m 8레인의 우레탄 트랙이 완공됐다. 목포에서 전국체육대회, 전라남도대축전 등이 열릴 때마다 육상 종목 경기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1997년 개항 100주년을 기념한 열린 음악회 공연이 열리기도 했다. 최근에는 목포 국제육상투척대회, 목포전국육상투척경기대회가 열렸다.

목포시 상동에 1980년부터 착공된 목포실내체육관은 관람석 4,000여 석으로 전남에서 최대의 체육관으로 건립되었으며 체육관 밑에 50m 10레인의 풀장과 다이빙장을 갖춘 실내수영장을 건립하였다.

1987년 여름에는 해양스포츠시대의 막을 연 조정, 카누경기장을 영산호 지역에 준공했다. 1987년 10월 13일 전국체육대회(수영, 배구, 유도, 하키, 조정, 카누) 6개 종목을 개최하여 명실 공히 전남 체육의 중심지 역할을 목포시가 수행하게 되었다. 1988년 9월 20일 제23회 서울림픽 성화 봉송로 달리기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1990년대에는 주로 육상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김성문 선수는 1990년 전국종별, 중·고선수권대회에서 창던지기 부분 우승을 차지했고 곽혜순 선수는 세계주니어육상선수권대회에서 10,000m 부분 8위를 기록했으며, 김남진 선수는 1994년 제75회 전국체육대회 1,500m 1위에 올랐다.<sup>15)</sup> 김영철 선수는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원반던지기 부문 1위(한국 신기록)를 기록했고, 김경지 선수는 1998년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전국시도대항육상경기대회, 전국체육대회 등 3개 대회 멀리뛰기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sup>16)</sup> 이렇게 목포 출신의 많은 육상스타들이 1990년대 한국 육상을 빛냈다.

또한 1990년 3월 20일 목포시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체육회가 확보하고 있는 8천2백만 원을 기초로 1996년까지 5억을 목표로 목포시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키로 하였다. 1996년에는 목포시 하당 지역에 405평의 스포렉스 건물부지를 6억 원에 매입하여 목포체육진흥의 기틀을 세웠다.

하지만 1980년대가 지나고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체육 또한 시대 상황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 경제가 윤택해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체육의 흐름 또한 바뀌게 되었으며 스포츠가 인기 종목화 되거나 금전과 직결되는 종목으로 선화하였다. 이는 해가 갈수록 더욱 심화되었다. 또한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것을 회피하는 3D현상이 스포츠 현장에도 드리워지면서 육상 및 복싱, 레슬링 등 투기 운동의 선수가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선수 구성에 어려움을 빚었다. 힘들고 어려운 운동을 회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된 것이다.

15) 대한체육회(www.sports.or.kr) -국내종합경기대회 제75회 전국체육대회(육상).

16) 대한체육회(www.sports.or.kr) -국내종합경기대회 제79회 전국체육대회(육상).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로 스포츠가 대중화되는 현상을 뚜렷하게 보였으며 엘리트체육에서 생활체육의 전환 속도가 빨라졌다. 국민의 건강과 여가를 위해 생활체육의 발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인기 종목에만 치우친 엘리트 선수 육성보다 다양한 종목에서 유망주를 꾸준히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과 여건들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 5. 최근 목표 엘리트, 장애인 체육(2000년대)

2000년대 이후로는 체육의 흐름이 관람스포츠의 개념에서 무엇인가를 직접 해보는 참가스포츠의 흐름으로 바뀌면서 목표 체육은 생활체육을 중심으로 일상 속에서 자리를 잡았다. 또한 스포츠산업을 활용해 목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였다.

먼저 학교체육의 경우 목포시에서는 초·중·고등학교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하여 기초체력 향상 및 유망주를 육성하고 우수한 엘리트 선수를 발굴하는데 토대를 마련코자 2006년도부터 체육발전에 기여한 학교를 대상으로 1학교 1종목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sup>17)</sup> 초등학교 6개소, 중학교 9개소, 고등학교 8개소 등 총 23개 학교에 지원했다. 지원은 기존육성팀, 중점육성팀, 선택과집중지원팀의 3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실시했다. 먼저 기존육성팀은 13개 종목에서 28개 팀, 356명에게 수여했는데 단체 종목은 7종목 12개 팀(축구, 하키, 배구, 컬링, 세팍타크로, 정구, 태권도)이고 개인종목은 6개 종목 16개 팀(육상, 수영, 유도, 카누, 복싱, 골프)이다. 중점육성팀은 7개 종목 10개 팀(신규창단 8개, 해양스포츠종목 2개)이다. 2007년도에 창단한 신흥초, 하당중, 목포여상, 2008년에 창단한 목포공고, 2009년에 창단한 목포중앙고, 용호초, 유달중이 있다. 1학교 1종목 사업은 엘리트 선수 육성을 위한 방안이었고 이 결과는 2006년 제3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육상 금메달(서부초 고편안), 2007년 제3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배구 여자초등부, 중등부 3위(하당초, 영화중), 복싱 3위(문태중 김현욱), 2009년 제3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배구 여자 초등부 1위(하당초), 복싱 3위(문태중 김지웅), 수영 3위(하당중 김민웅)를 차지하여 목표 학교체육의 건재를 과시했다.

목포시는 장애인 체육진흥과 체육활동을 보호·지원하여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2009년 5월 6일 목포시장래인체육회를 설립하고 임원 28명을 선임하였다.<sup>18)</sup> 이와 관련하여 목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하고자 2009년 6월 1일 목포시장래인체육진흥조례를 제정하였다. 같은 해 10월 유달경기장 내 장애인체육

17) 목포시, 『체육백서』, 2009, 141쪽.

18) 『연합뉴스』 2009. 05. 07. 「목포시 장애인체육회 출범… 전남최초」.

회 사무실을 개소한 목포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회에 관한 기본방침 심의결정, 각 가맹단체의 육성 및 지도감독, 시·군 및 국가 간의 장애인체육 교류, 장애인체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장애인체육의 육성·보급 등의 사업을 수행했다. 목포시는 장애인체육회 출범에 따라, 현재에도 스포츠를 통한 장애인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

스포츠 활동을 통한 장애인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장애인체육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대국민 홍보에 그 목적이 있는 제3회 전국장애인학생체육대회가 2009년에 전남에서 최초로 개최되었다.<sup>19)</sup> 목포시에서는 수영 종목이 치러졌고, 이 대회는 2009년 5월 12일~15일 나흘 간 열렸다. 참가인원은 총 2,000명(선수 1,500명, 임원 500명)으로 그 중 목포시선수단은 150여 명이 참가했다.

이 뿐만 아니라 장애인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신인 우수선수 발굴 및 사회 적응 능력을 배양, 전국 순회 개최를 통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자 열린 2009년 제2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열렸고 우리 시에서는 수영, 조정, 역도, 볼링, 파크골프 등 5개 종목이 펼쳐졌다.<sup>20)</sup>

생활체육 부문에서도 2009년부터 목포시장기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열렸다.<sup>21)</sup> 목포시가 주최하고 목포시 장애인체육회와 가맹경기단체가 주관한 2013년 대회는 절단 및 기타장애, 척수장애, 뇌성마비,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을 가진 선수들이 출전하여 축구, 골볼, 볼링, 론볼, 파크골프, 배드민턴, 역도 등의 종목에서 경기가 이뤄졌다.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는 현재까지 매년 개최되어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활성화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전남 목포시 장애인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신청한 '2013년 전국 순회 운동처방서비스 사업'에 선정되어 목포 지역민들이 무료 의료 혜택을 받았다.<sup>22)</sup> 이 서비스 사업은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 동안 명도복지관 5층 강당에서 장애인, 저소득층 주민 등 6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18명의 의사, 운동 처방사 등 전문 인력을 파견해 의학 및 체력검사를 통한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를 실시했다.

국내 장애인승마 선수 저변확대와 장애인승마선수의 기량향상을 위해 2013년 제1회 대한장애인승마대회가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 간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열렸다.<sup>23)</sup> 이 대회는 대한장애인승마협회가 주최하고, 대한장애인승마협회, 전라남도장애인승마협회가 주관하며 한국마사회 및 전

19) 『뉴스시스』 2009. 05. 09. 「제3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12일 전남서 개막」.

20) 『SBS』 2009. 09. 21. 「제2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오늘부터 개막」.

21) 『뉴스원』 2013. 10. 16. 「18~19일 목포시장기 장애인생활체육대회」.

22) 『뉴스원』 2013. 07. 15. 「목포시 '전국 순회 운동처방서비스 사업' 선정」.

23) 『장애인신문』 2013. 10. 21. 「제1회 대한장애인승마대회 개최」.

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가 후원했다. 대회는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참가해 마장마술, 평보, 속보, 구보, 권승 등 4개의 종목으로 경기로 펼쳐졌다.

2015년에는 목포시가 전남장애인체전에서 우승해 5연패를 달성했다.<sup>24)</sup> 이 대회에서 목포시는 금메달 36개, 은메달 38개, 동메달 23개 등 총 2만 597점을 획득,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목포시는 지난 2011년부터 5년 연속 종합우승, 5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목포시 장애인체육회는 25개소 생활체육교실 운영,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와 전문체육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소외계층 돕기 운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목포시는 현재 직장체육 활성화를 위해 축구, 육상, 하키 3개의 실업팀을 육성·지원하고 있다. 1982년에 창단된 하키팀, 2006년에 창단된 육상팀, 2009년에 창단된 축구팀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호남권 축구센터 유치를 위해 제안하였던 축구팀 창단은 그 대외적 신뢰를 지킴과 더불어 목포국제축구센터의 운영 및 이용도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포시청 축구단은 2009년도 12월에 창단되었으며, 2009년 당시 선수단 규모는 34명(감독 1명, 코치 2명, 의무코치 1명, 선수 30명) 인건비를 포함한 연간 운영비는 약 20억 4천3백만 원이었다.<sup>25)</sup>

목포시청 축구단은 2010년부터 대한생명 내셔널리그 전기리그부터 참가하여 전기리그는 15위, 후기리그는 12위를 기록했다.<sup>26)</sup> 다음 해인 2011년 삼성생명 내셔널리그에서는 13위를 기록했으나 2012년 신한은행 내셔널리그부터는 8위를 기록하면서 5년 연속 10위권 이내를 기록하며 발전해 나가고 있다. 2015년 인천국제공항 내셔널리그에서 4위를 기록하며 현재까지 최고 성적을 보이고 있다. 2011년, 2013년에는 제92회, 제94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여 3위를 차지했다. 목포시청 축구단은 지금보다 더 상위권을 바라볼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목포시청 육상팀은 2006년 3월에 창단되었으며, 2009년 당시 선수단 규모는 6명(감독·코치 1명, 선수 4명)이며 인건비를 포함한 연간 운영비는 3억 7천만 원이었다.<sup>27)</sup> 투해머 종목에서 2009년 목포 전국육상투척경기대회에서 1위, 경주 종목에서 제48회 전남도민체육대회에서 1위, 투원반 종목에서는 2009년 전국육상선수권대회와 2009년 목포전국육상투척경기대회에서 각각 1위를 수상하였다.

주요 선수로는 장복심, 이정권, 이두행, 정순옥, 심애리, 박주영, 김민, 김성호 선수가 있다.<sup>28)</sup> 장복

24) 『광주일보』 2015. 06. 09. 「목포시 전남장애인체전 5연패 달성 … 2위 여수·3위 순천」.

25) 목포시, 『체육백서』, 2009, 104쪽.

26) 대한축구협회 내셔널리그 -역대 기록, 대한체육회·국내종합경기대회(제92, 제94회 전국체육대회).

27) 목포시, 『체육백서』, 2009, 102쪽.

28) 대한체육회(www.sports.or.kr) 국내종합경기대회.

심 선수는 2005년 제59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해머던지기 1위(한국 신기록), 2006년 제35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해머던지기 1위(한국 신기록), 2006년 제18회 전국실업단육상경기대회 해머던지기 1위(한국 신기록)를 기록했다. 이정권 선수는 2007년 목포전국육상투척경기대회에서 해머던지기 1위, 2008년 필리핀오픈육상경기대회 해머던지기 1위, 2009년 목포전국육상투척경기대회 해머던지기 1위를 기록했다. 이두행 선수는 제88~90회 전국체육대회 10,000m, 5,000m에서 1위를 차지했다. 정순옥 선수는 2006년 대구국제육상경기선수권대회 멀리뛰기 1위(한국 신기록), 2009년 제63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멀리뛰기 1위(한국 신기록), 2009년 제90회 전국체육대회 4×100m 1위를 기록했다. 심애리 선수는 2000년 제29회 추계전국남여중고육상경기대회 해머던지기 1위, 2001년 제30회 전국종별육상경기대회 해머던지기 1위(대회신기록), 2001년 제27회 전국남여육상경기대회 해머던지기 1위(부별신기록)를 기록했다. 박주영 선수는 2003년 동아서울국제마라톤대회에서 10위, 2007년 전주마라톤대회 2위, 2008년 제89회 전국체육대회 마라톤 종목에서 1위를 기록했다. 김성호 선수는 2008년 제89회 전국체육대회에서 4관왕(세단뛰기 1위, 멀리뛰기 1위, 4×100m 1위, 4×400m 1위)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김민 선수는 2007년 제88회 전국체육대회 원반던지기 1위(대회신기록)를 기록했고 2008년 제62회 전국남여대학대학육상경기대회 원반던지기 1위, 2009년 제63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1위를 기록했다. 또한 2012년, 2013년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신기록을 연달아 작성했다. 이 밖에도 김민 선수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여자부 원반던지기 종목에 참여했다.

목포시청 하키팀은 1982년 3월에 창단되었으며, 1987년 종별 하키팀선수권대회에서 첫 우승을 차지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목포시의 체육발전과 함께 흘러왔다.<sup>29)</sup>

2004년도에는 동해시장배 전국 대학·실업하키팀대회에서 한국체육대학교를 꺾고 정상에 올랐고, 2006년 동해시장배 대회, 전국 춘계 남녀하키팀대회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했다.<sup>30)</sup>

2009년 주요 전적으로는 제천에서 개최된 제52회 전국종별하키팀선수권대회와 제23회 대통령기 시도대학하키팀대회에서 각각 1위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동시에 최우수 선수상(박정숙)과 지도상(배상호)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으며 박정숙(2009년 당시 29세), 김보미(2009년 당시 23세), 이수경(2009년 당시 21세)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되었다.<sup>31)</sup>

29) 목포시, 『체육백서』, 2009, 101쪽.

30) 『강원일보』 2004. 11. 30. 「[동해시장배 전국하키팀]목포시청 초대 챔피언」.

31) 『엑스포초뉴스』 2009. 06. 29. 「목포시청, 전국종별하키팀선수권 우승」.



2013년 KBS 전국춘계하키대회에서는 KT를 꺾고 2~3년간 세대교체를 거치며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들이 있었지만 탄탄한 정신력과 조직력으로 2위를 차지했다.<sup>32)</sup> 2013년 제32회 협회장기 남녀 하키대회에서도 아쉽게 준우승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3년 제56회 전국 종별하키선수권 대회에서는 우승을 차지하며 목포시청 하키팀의 진가를 보였다. 이 대회에서 김은실 선수는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했다. 8월에는 중국 길림성 체육국의 초청을 받아 9월 22일까지 15일 간 중국 장춘 시에서 해외 전지훈련에 참가했다.<sup>33)</sup>

2014년에는 제33회 협회장기 전국 남녀 하키대회에서 아쉽게 2위를 기록했지만 이민지 선수는 대회 득점왕을 수상했고 김아름 선수는 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강신애, 김현지 선수가 2014 인천아시안게임 여자 하키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sup>34)</sup> 한국여자하키팀은 인천 선학 하키경기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중국을 1:0으로 제압하고 1998년 방콕아시안게임 이후 16년 만에 아시안게임에서 정상에 올랐다. 미드필더인 김현지 선수는 전 경기에 모두 출전하고, 홍콩과의 예선전에서 2골을 기록하여 금메달 획득에 기여했고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자동진출권을 획득했다.

이렇듯 목포체육은 2000년대 들어 목포국제축구센터와 유달경기장, 실내수영장, 부주산체육공원 등 여러 체육 인프라 구축과 목포시 직장팀, 학교운동부 육성, 장애인체육의 활성화 등 체육 각 분야에서 발전을 이뤘다. 특히 비인기 종목인 육상과 하키 팀이 전국체육대회를 비롯하여 각 종목별 전국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학교운동부도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입상을 하면서 목포체육의 앞날을 밝히고 있다.

## 제2절 목포 생활체육

### 1. 목포 생활체육의 태동

생활체육은 사회 전반에서 삶의 질이라는 말이 유행하듯이 경제적 사회발전에 의하여 중대한 국민의 삶의 가치구현에 대한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주는 기본 조건이었다. 1980년대 86아시안 게임, 88서울올림픽 개최와 여러 산업의 발달로 여가 선용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면서 조직화되었다.

32) 『뉴스원』 2013. 03. 28. 「목포시청 하키팀, 전국춘계 남·여 하키대회 준우승」.

33) 『아시아경제』 2013. 08. 12. 「목포시청 하키팀, 전국춘계 남·여 하키대회 준우승」.

34) 『뉴스웨이』 2014. 08. 13. 「목포시청 하키팀, 전국춘계 남·여 하키대회 준우승」.

그리고 1988년 올림픽 이후 체육활동에 참여 열기가 고조되었으며 국가적으로도 생활체육 참여를 장려하였고, 1990년 이후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유기적 상호 보완 관계가 형성되었다.

목포시 생활체육협의회는 1991년 8월 발족되었으며, 사무소는 유달경기장 내에 두고 있다.<sup>35)</sup> 2009년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국민생활체육회로 바뀌면서, 목포시 생활체육협의회도 이사회를 통하여 생활체육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목포시 생활체육회는 48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42개 종목의 경기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국민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1991년 1월 8일 출범한 비영리 민간단체였다. 생활체육은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뜻하는 말로 1988년 제24회 서울 올림픽 개최 이후 국민소득 수준 향상과 맞물려 관심이 늘어나면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90년 목포시는 체육진흥사업과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목포시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1990년 11월 10일 목포시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에 대한 법률을 또한 제정하였다.

생활체육이 등장하면서 먼저 자리를 잡게 된 종목은 목포 시민들이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진 엘리트 수요가 있는 종목과 당시에 인기가 있었던 종목들이었다. 대표적으로 정구, 육상, 궁도, 축구 등이 있는데 정구는 우리나라에 도입된 후 많은 스포츠맨으로부터 애호를 받아 보급되어 성행했고 1930년에 목포시 정구협회가 노적봉 아래 자리에 1면을 만들어 발족을 통해 첫발을 댈게 되었다. 육상 또한 1920년에 목포육상연맹 발족을 통해서 등장했으며, 연합회가 등장한 것은 2000년대 이후이지만 오래 전부터 단체가 생겨나 유지되어 왔다. 지금은 실업팀 창단과 전국대회에서 보여 주는 꾸준한 성적에 힘입어 명맥을 지켜나감으로써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궁도는 수많은 외세의 침략 속에서 우리 민족을 지켜낸 전 세계의 어떠한 것과 비교해도 가장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며 그 명맥이 끊이지 않고 이어진 전통무예이다. 궁도 협회는 1923년에 창립 이래로 일제강점기 때 전조선궁술대회를 목포에서 개최하는 등 발전하였다.<sup>36)</sup> 지금도 역시 수십여 명의 수련생들이 궁도에 대하여 수련을 하고 있다. 축구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새마을 운동과 함께 새마을 축구연합회로 그 기틀을 마련하였다. 목포시 축구협회·연합회는 2009년 당시 5개 클럽 내에 55개 팀, 2,36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었다.

88서울올림픽 개최 이후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관심 증대와 4대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농구, 배구)의 대중화로 1980년대부터 야구, 농구, 배구 등을 포함한 구기 스포츠와 무술에 관련된 스포츠들이 인기를 끌었다. 게이트볼연합회는 1984년에 창립되어 1990년에 유달경기장 내에 게이트볼장을

35) 목포시, 『체육백서』, 2009, 13쪽.

36) 『동아일보』 1938. 10. 27. 「전조선궁술대회 목포서 성대 거행」.



설립하여 활동하고 있다. 배드민턴연합회는 1988년 12월 28일에 창립되었는데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이용대 선수의 금메달 열풍으로 그 이후 인기가 증가하여 국민스포츠로 자리잡았다. 탁구와 테니스도 마찬가지로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인식되면서 인기가 높아졌다. 야구와 농구연합회는 각각 1991년, 1996년에 설립됐다. 프로야구와 프로농구가 해를 거듭할수록 미디어에도 자주 노출이 되고 알려지면서 생활체육 환경도 발전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축구를 제외한 정구, 육상, 궁도 종목은 재미있는 구기 스포츠나 격투기와 같은 자극적이고 역동적인 스포츠 종목들의 등장으로 인해 사람들의 관심이 날을 거듭할수록 줄고 있어서 걱정을 자아내고 있다. 인기 종목에만 치우친 국민들의 관심을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 2. 최근 목포 생활체육(2000년대)

생활체육은 2000년대 들어 국민소득의 증가와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여가시간 확대되어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가 불어나 규모도 커지게 되었다. 특히 2005년 10월부터 전개했던 범국민 캠페인 ‘스포츠 7330’은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하자는 의미를 담아 국민들에게 생활체육 실천을 장려하였다. 생활체육 종목이 늘어나 새롭게 연합회를 결성하여 활발히 활동하는 분위기 속에서 목포시 또한 다양한 종목의 연합회와 생활체육시설들이 조성되었다. 특히 체험하는 레저형 생활체육이 등장하여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게 되었다.

먼저 족구와 댄스스포츠, 등산, 패러글라이딩, 당구, 파크골프, 바둑, 무에타이, 요가, 라켓볼, 철인 3종, 서바이벌, 승마, 전통 무용 등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연합회가 생겨났다.<sup>37)</sup> 족구연합회는 2004년 5개 클럽으로 출범했으며 현재에도 목포 평화광장, KT공원 족구장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댄스스포츠연합회는 2000년 3월에 6개 클럽으로 시작하여 매년 시장기 대회를 통해 한 해 동안 갖고 닦은 기량을 맘껏 발휘하고 모든 동호인들이 모이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댄스스포츠의 경우에는 지역에만 국한된 출전 혹은 개최가 아니라 전국대회에도 출전, 개최를 통해 댄스스포츠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한다. 등산연합회는 2001년 국민생활체육 목포시 등산연합회로 창립됐으며 등지산악회, 알프스산악회, 봉봉산악회, 용호산악회, 목포산악회, 메아리산악회가 활동하고 있다. 등산연합회는 국민생활체육대축전과 각종 등산대회에 참가하여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요즈음 도시에서 벗어나 힐링의 개념으로 자연의 공기를 찾는 인구의 수요도 늘어남으로써 지역에 등산 환경을

37) 목포시, 『체육백서』, 2009, 29~91쪽.

조성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패러글라이딩 연합회는 1991년 ‘목포 푸른하늘’이라는 동호회가 처음 생겼고 2004년에 클럽이 창단되었다. 2006년에는 제6회 구례군수기 전국패러글라이딩 대회에 출전해 천보배 선수가 개인전 1위를 차지했다. 요즈음 항공스포츠가 발달하면서 이를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볼 수 있다. 목포 인근 혹은 무안 쪽 방면에 활공장 등이 들어서면 목포시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파크골프는 도시 내에서도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공원에 경기장을 조성해 놓고 즐기는 스포츠이다. 파크골프는 주로 노인 분들이 많이 즐기시는 스포츠로 잘 알려져 있다. 2004년 4월에 목포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목포시가 도입하였고, 8월 20일 회원 80명으로 연합회를 창립했으며 목포시장배 전국파크골프대회, 연합회장배, 스포츠 토토 챔피언십 대회 등 다양한 대회를 유치하며 파크골프와 목포시를 알리고 있다.

목포시생활체육회 설립 초기인 1990년대에는 개인 활동이었던 생활체육이 동호인을 중심으로 레저스포츠 활동이 증가하면서 종목별 활동으로 추가되었다. 현재에도 생활체육이 동호회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면서 지역사회의 화합과 통합에 기여하고 있으며 일상생활도 여가활동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2000년대 이후로 생활체육연합회는 체육 인프라의 확충으로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엘리트 선수 육성과 생활체육 확산을 위해 많은 체육시설이 목포에 들어섰는데 목포국제축구센터와 목포국제하키경기장, 다목적체육관, 국제클라이밍센터, 삼학 요트마리나 등이 있다.

목포국제축구센터는 2002한·일월드컵 개최 잉여금으로 권역별 축구인프라 균형발전을 위해 호남권, 영남권, 중부권에 축구센터 건립 계획이 추진되면서, 2004년 12월 목포시에 축구센터 유치가 확정되었고, 2009년 8월 목포국제축구센터가 개장했다.<sup>38)</sup> 목포국제축구센터 건립은 축구인프라 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호남권 축구인구 저변을 확대하고, 중장기 축구발전의 토대 구축으로 서남권 체육의 균형발전과 각종대회 및 동계훈련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목포국제축구센터는 대양동 950번지 일원에 조성되어 있으며 2007년 3월부터 착공하여 2009년 완공되었다.<sup>39)</sup> 주요 체육시설로는 축구장 6면(천연 잔디 2면, 인조 잔디 3면, 유소년 경기장 1면), 하키구장 2면, 하프돔, 다목적구장 등이 있으며, 본관동과 숙박동이 별도 조성되어 있다.

목포국제축구센터는 재단법인 국제목포축구센터가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장은 2015년 현재 박홍를 시장이 맡고 있다.<sup>40)</sup> 목포국제축구센터는 AFC(아시아축구연맹)·KFA(대한축구협회)와 연계하여

38) 『YTN』 2007. 01. 20. 「[전남] 목포를 호남 축구의 메카로!」.

39) 『연합뉴스』 2009. 07. 02. 「목포시 국제 축구센터 본격 운영」.

40) 목포국제축구센터(<http://mifc.co.kr/>, 2016. 01. 01.).

국제 및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국내외 전지훈련팀 유치와 지역 내 대규모 대회 및 행사 시 훈련 캠프로 사용함으로써 스포츠, 교육, 문화관광 활성화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 또한 하프 돔에 하계 물놀이장 이용, 구장명칭권 판매를 통한 다양한 수익사업발굴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목포국제하키경기장은 전라남도 개도 이래 처음 열리는 '제89회 전국체육대회' 하키 경기 개최를 위하여 목포국제축구센터 내에 있는 하키경기장을 2007년 6월 착공하여 2008년 8월 완공하였으며, 2008년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sup>41)</sup>

다목적체육관은 주 5일제 정착으로 시민 여가활동을 체육 동호인들이 증가하고 있어, 목포시는 목포국제축구센터 내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여 시민건강증진과 축구센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였다.<sup>42)</sup> 당초 2008년도 제89회 전국체육대회 배구 보조 경기장 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나, 전국체전 국비 미확보에 따라 변동 추진되었다.

목포시는 2002년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목포시 예산을 투자하여 부주산 국민체육센터를 건설했다. 부주산 국민체육센터는 현재 위탁운영시설로 위치는 목포시 부주로 312(옥암동), 부지면적은 8,485㎡(2,560평), 건물면적은 4,359.27㎡(1,210평)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준공일은 2002년 12월 27일이었다. 센터 안에서는 수영, 헬스, 라켓볼, 아쿠아로빅, 요가, 댄스로빅을 배우고 즐길 수 있다. 특히 라켓볼은 전남 유일의 정식규격 코트를 가지고 있다. 이용시간은 6시부터 22시까지이다.<sup>43)</sup>

목포시는 스포츠 클라이밍(Climbing)의 생활체육 저변 확대, 초·중·고 학생들의 현장 체험장 마련과 각종 전국 및 세계대회 개최로 목포를 서남권 스포츠 메카로 발전시키고자 부주산 체육시설 내 국제 규모의 인공암장을 건립했다. 이러한 계획으로 2010년 착공을 시작하여 2012년에 완공했다. 목포시는 2012년, 2013년 IFSC 스포츠 클라이밍 월드컵 대회를 개최하였고 대한민국 선수로는 김자인 선수가 출전했다. 클라이밍 암벽장이 생겨 클라이밍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늘어 목포시에 다양한 종목의 유망주 육성을 가능케 하고 있다.<sup>44)</sup>

목포시는 양을산과 부주산을 중심으로 체육공원을 조성했다. 먼저 양을산 체육공원은 2013년 9월 4일에 새로 개방됐다. 산림 속에서 치유와 명상을 통해 삶의 의욕과 활력을 느끼는 힐링문화를 만들겠다는 콘셉트에 맞춰 건설했다. 양을산 체육공원은 20억 원(국비 10억 원, 도비 3억 원, 시비 7억

41) 『데일리안』 2008. 08. 28. 「목포서 대통령기 전국 사·도 하키대회 개최」.

42) 목포시, 『체육백서』, 2009, 206쪽.

43) 목포시청 -체육시설(<http://www.mokpo.go.kr/>, 2016.01.01).

44) 『연합뉴스』 2012. 03. 06. 「목포에 국제규격 '스포츠 클라이밍 센터' 완공」.

원)과 진입로 도로개설사업비 12억 원 등 총 32억 원을 들여 치유의 숲, 지혜의 숲, 생각의 숲 등 3가지 테마를 주제로 산책로(2.2km)를 개설했다. 제1 수원지 주변 16ha에 계곡조성, 물놀이장, 산책로 테크 879㎡, 목교 8개소, 야외무대 1개소 등 편익시설을 구축했다. 또한 소나무, 편백나무 등을 식재하여 양을산을 찾는 탐방객들이 편히 쉬고 호흡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정비했다. 양을산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성신고등학교 입구에서 레포츠 공원까지 총 연장 390m 폭 8~20m를 개설했으며 주차장 24면을 조성해 시민들의 접근성과 이용도를 높였다.<sup>45)</sup>

또한 목포시는 부주산 체육시설을 조성했다. 부주산 테니스장, 부주산 축구장, 부주산 족구장, 부주산 산악자전거 경기장이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부주산 내에 위치해 있어 하나의 체육 테마파크로 조성되었다. 테니스장은 7,273㎡, 코트 12면을 가지고 있고 부주산축구장은 인조잔디 1면, 부주산 족구장은 코트 6면을 가지고 있고 부주산 산악자전거 경기장은 크로스컨트리(XC) 코스 6.13km, 다운힐(DH) 코스 1.34km 형태이다. 파크골프 경기장은 총 36홀로 구성되었으며 난이도별로 A, B, C 코스로 나뉘어져 있다. 2009년부터 파크골프의 보급과 활성화를 위해 무료로 개방했던 경기장을 부분 유료화하여 시설물 관리에 힘쓰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앞서 언급한 족구, 파크골프, 클라이밍, 산악자전거, 테니스 등 이런 다양한 종목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이다. 각 종목별로 목포시장기대회를 포함한 전국대회를 부주산 체육시설에서 개최하고 있어 목포 시민들의 생활체육의 메카 장소로 거듭나고 있다.<sup>46)</sup>

목포시는 주 5일제 정착과 소득 향상으로 여가의 패턴이 육상관광에서 해상관광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 미래 레포츠의 꽃인 요트산업을 선점해 나간다는 전략으로 삼학도에 요트마리나를 조성했다. 목포요트마리나는 2006년 착공하여 2009년 완공했으며 현재 위탁운영 중이다. 요트산업을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미래 해양레포츠산업의 꽃이다. 목포요트마리나는 낙후된 목포권을 고부가가치 첨단 요트산업의 메카로 육성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sup>47)</sup>

2000년대 들어 생활체육 정책과 여러 가지 지역방안 또한 국민 여가 생활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했다. 국민체육진흥기금공단에서 주관하고 목포시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생활체육교실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체육대학 여성생활체육교육 등 총 5개 프로그램을 2009년 운영·지원했다. 생활체육교실은 축구 등 25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도자는 생활체육회 가맹단체에서 선발했다.

45) 『에이블뉴스』 2009. 09. 23. 「목포시 '장애인 등 위한 산책로 조성할 것」.

46) 목포시, 『체육백서』, 2009, 185쪽.

47) 『뉴스시스』 2010. 07. 15. 「'해양레포츠의 꽃' 목포 요트마리나 16일 개장」.

어린이 체능교실 및 청소년 체력교실은 어린이(배드민턴, 육상), 청소년(볼링, 축구) 각 2종목씩 운영됐으며, 목포시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에 많은 기여를 했다.

목포시에 거주하는 남녀 노인을 대상으로 장수체육대학이 운영되고 있으며, 게이트볼 및 파크골프를 포함한 일반 생활체육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노인 건강 증진에 일조했다.<sup>48)</sup>

또한 체육시설의 발전을 위해 잔디 운동장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교육과 학기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던 인조잔디운동장 사업이 2008년도 종료되고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2009~2012년)으로 확대되면서 잔디운동장 지원 사업이 추진되었다. 본 사업은 학교 운동장을 선진화된 체육시설로 조성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주민과 같이 활동하도록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 건강 복지를 증진코자 했던 사업으로 목포시는 2009년까지 초등학교 3곳(공립 2곳, 사립 1곳), 중학교 1곳(공립 1곳), 고등학교 1곳(공립 1곳) 총 5개 학교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을 지원했다. 초등학교는 서부초등학교, 광주교대목포부속 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제일중학교, 전남제일고등학교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민의 소득 향상과 여가 생활 영위를 위해서 일 뿐만 아니라 현재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된 개념으로 간주되면서 생활체육이 많이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었다. 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른 여가, 문화생활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부담 없이 체육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좋은 복지제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 제3절 목포 스포츠산업

#### 1. 목포 스포츠산업의 태동(2000~2009)

우리나라의 체육은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행정기구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체육행정을 문화·체육을 담당했던 문교부에서 관장해 왔기 때문에 주로 교육적 차원의 체육행정이 수행되었다. 1982년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체육부가 신설되었는데 지방행정조직의 시·도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과 과학업무를 체육 사무와 함께 관장했다.

목포시의 체육 사무는 당초 별도의 지원과가 없이 계(담당)별 단위에서 관장하고 있었다.<sup>49)</sup> 그러나 2006년도 조직 개편 시, 체육 고유 업무가 교육체육과로부터 분리되면서 체육지원과가 신설되었다.

48) 『뉴스웨이』 2015. 03. 30. 「목포시생활체육회, 2015년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49) 목포시청(<http://www.mokpo.go.kr/>, 2016.01.01).

2007년 체육지원과의 명칭이 스포츠산업과로 변경되었으며 스포츠산업과 내에 체육지원, 스포츠마케팅, 축구센터건립계가 운영되다가 축구센터 완공 후 축구센터건립계를 생활체육계로 개편하였다.

표 1 목포시 체육정책의 흐름

1995. 02. 03.	1996. 02. 09.	1997. 12. 15.	1999. 08. 18.	2000. 09. 08.	2005. 07. 01.
총무국 →총무과	총무국 →문예체육과	기획실 →문예체육과	기획국 →문예 관광담당관실	총무국 →총무과	총무국 →체육청소년과
2005. 10. 10.	2006. 07. 31.	2007. 12. 31.	2009. 08. 03.	2010. 03.	2011. 06.
자치행정국 →교육체육과	관광문화국 →체육지원과 (체육지원, 스포츠마케팅, 축구센터건립)	관광문화국 →스포츠산업과 (체육지원, 스포츠마케팅, 축구센터건립)	관광문화국 →스포츠산업과 (체육지원, 스포츠마케팅, 생활체육)	교육문화체육사업단 →스포츠산업과 체육지원, 스포츠마케팅	교육문화사업단 →교육체육과 (체육지원 스포츠마케팅)

2000년대 들어 목포시는 주요 대회 개최 및 정책들로 각종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발전된 여가생활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브랜드화 등 많은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민들에게 스포츠에 대한 좋은 인식을 남겼다.

대표적으로 목포시는 목포대학교 스포츠산업연구소와 함께 목포스포츠클럽 운영지원 사업을 2004년도부터 목포청소년스포츠클럽으로 시작하였다.<sup>50)</sup> 운영 중이던 목포청소년 스포츠클럽이 2006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형 스포츠클럽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청소년을 포함한 성인, 노인 등 전 연령계층에서 모두 생활체육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2007년 5월 선정되었다. 한시적인 교습 활동을 벗어나 지속적인 스포츠클럽활동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추진한 사업으로는 생활체육·학교체육·엘리트체육의 연계 및 발전 기반 조성과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활동’을 스포츠클럽이란 틀에서 실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스포츠클럽 모델 개발 보급이라는 목적에서 추진했다. 2009년 기준으로 1~12월 연중으로 이뤄졌으며 2009년 목포송림스포츠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했다. 운영종목은 농구, 수영, 축구, 배드민턴, 파크골프 5개 종목이 운영됐다.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도 목포송림스포츠클럽은 호남권 스포츠교류전을 포함한 전국스포츠클럽 교류대회에 참가하였으며, 2009년에는 목포송림스포츠클럽 축제를 개최하여 클럽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자 노력했다. 2009년 8월 목포송림스포츠클럽 하계 캠프대회, 9월 목포송림스포츠클럽 홍보 파크골프대회, 10월

50) 『동아일보』 2009. 09. 08. 「정종득 목포시장 “목포를 국제 관광레저 신천지로”」.



2009년 호남권 스포츠클럽 교류전, 목포 송림스포츠클럽 축제, 제3회 전국스포츠클럽 교류대회에 참가를 했다.

목포시는 온화한 기후 조건과 서해안 관광여건, 최첨단 숙박시설 등의 지역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동계훈련단을 유치하고 있다. 훈련장 정비와 홍보 활동 등을 활발히 전개하여, 그 결과 2003년 말부터 2004년 초까지 127개 팀 6만 8천여 명의 선수단을 목포에 유치, 60억원의 직·간접적 경제효과를 거뒀다. 서해안고속도로, KTX 개통에 따른 접근성과 따뜻한 기후, 남도 지방 특유의 먹거리라는 3박자가 어울려 전지훈련의 메카로 자리 잡았다. 또한 목포국제축구센터, 스포츠클라이밍센터와 파크골프장을 포함한 부주산체육공원 등 우수한 체육 인프라 시설 확충도 전지훈련 활성화에 큰 몫을 했다.<sup>51)</sup>

목포시 체육정책의 기본 목표인 시민에게 건강을 돌려드리는 ‘제1의 건강도시 건설’에 대한 범시민적인 열기를 고조시키고자 ‘건강과 함께 SMILE LIFE’라는 주제로 2007년 전국최초로 건강도시 선포식과 함께 스포츠건강축제를 개최했다.<sup>52)</sup>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하당 평화광장 일원에서 스포츠건강 축제를 개최했다. 축제에서는 건강 성화 릴레이, 전국 건강 왕 선발, 개인 및 단체줄넘기, 림보게임, 2인 3각 뛰기, 크게 웃기, 오래 웃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또 동력 패러글라이딩, 서바이벌 게임, 이퀄라이저, 로테오머신, 인간 짝짝이 등 독특한 체험행사도 운영했다. 부대행사로 건강도시 이름 공모전과 건강 상식 퀴즈와 함께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력센터 검진서비스 팀이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무료로 체크했다. 2008년에는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열렸고 2009년에는 신종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개최가 취소됐다.

2008년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목포 하당 평화광장 앞바다 일원에서 제3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이 열렸다. 목포시는 2008 목포해양문화축제와 연계한 각종 시너지효과를 고려, 주최기관인 해양수산부와 경기를 주관하였고 요트, 핀 수영, 비치발리볼, 트라이애슬론, 카누 등 5개 정식종목을 포함해서 약 22개 종목 및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sup>53)</sup>

이 밖에도 철인 3종 경기, 마라톤 대회, 아시아줄넘기 대회 등 다양한 스포츠이벤트들이 개최되었다. 제38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전국체육대회에서 분리되어 별도로 개최된 전국 규모의 주니어 종합대회이다. 그동안 수많은 국가대표 선수가 이 대회를 통해 발굴 육성되어 국내 대회는 물론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등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며 국위를 선양하였다. 이 대회는 5월 30일~6월 2일에 열

51) 『뉴시스』 2012. 01. 17. 「목포시, 동계 전지훈련 최적지 각광」.

52) 『연합뉴스』 2008. 01. 11. 「목포시, 스포츠건강도시로 만든다」.

53) 『아시아경제』 2008. 07. 23. 「‘문화+관광+레저’ 해양스포츠제전 목포서 열린다」.

렸으며 목포시에서는 수영(목포실내수영장), 배구(목포여상고체육관, 전남제일고체육관, 목포실내체육관), 하키(목포국제하키장), 카누(영산호카누경기장), 볼링(국제볼링장)에서 열렸으며 이 대회를 위해 전남제일고 체육관(차양막 설치 및 제거), 국제 볼링장(레인코팅, 장비세팅 등), 카누 영산호경기장(자동화출발시스템 및 거리표시판 설치 등), 목포국제하키장(외부 기록실 설치)에 시설 개보수를 실시하였다.

2007년도부터는 목포시에 스포츠를 통한 국제교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2007년 한·일청소년 하계스포츠교류대회를 개최했다. 대한체육회와 일본체육협회가 공동주최했던 이 대회는 8월 16일~22일 전남 목포와 일본 에히메 현에서 동시에 개최됐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 구성됐으며 한국은 218명, 일본은 217명이 참가하였으며 목포에서 축구, 농구, 배구, 탁구 등 친선 경기를 펼쳤다.<sup>54)</sup>

2009년에는 한·중·일 주니어 종합 경기대회가 개최됐다. 한·중·일 주니어 종합 경기대회는 원래 한·일 청소년 교류를 통한 친선도모와 문화적 체육교과를 증진하기 위해 창설된 대회이다. 한·일 고등학생의 산발적인 스포츠교류로 인한 학업 상 불편을 없애기 위해 방학기간을 이용해 정기적인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하기로 양국체육지도자의 합의로 1968년 한·일 고교 교환경기 대회라는 명칭으로 출발하였다가 1981년 한·일 주니어 종합 경기대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93년에 중국을 포함한 3개국 대회로 확대·발전시켜 경기력 향상은 물론 아시아 국가 간의 체육교류를 통해 젊은 세대들의 상호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3개국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다. 대회명은 '제17회 한·중·일 주니어 종합 경기대회'로 경기 종목은 11개 종목이 이뤄졌다. 그 중 역도, 농구, 럭비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이 목포에서 치러졌다. 한국은 239명, 전남 220명, 중국 248명, 일본 239명이 참가하였다.<sup>55)</sup>

2009년 그랑프리 세계여자배구대회가 목포에서 열렸다. 이 대회는 세계여자배구의 활성화를 위해 1993 창설된 국제배구연맹의 공식 대회로서 세계 상위 12개국 여자 국가대표팀이 150만 불의 상금을 놓고 매년 겨루는 세계 최고의 여자배구대회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까지 총 13회 참가하였으며, 이번 대회에는 2006년 이후 3년 만에 참가하는 대회였다.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과 2012년 런던올림픽을 겨냥하여 대폭적인 세대교체를 단행한 여자 대표팀의 경기력 향상 및 경험을 축적하고, 세계최고의 여자배구 대회를 3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여 배구 붐 조성과 여자배구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팀만이 참가하는 그랑프리 대회를 목포에서 개최함

54) 『동아일보』 2006. 03. 24. 「[광주/전남]韓日청소년 하계스포츠 내년 목포에서 열린다」.

55) 『마이데일리』 2009. 08. 20.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대회, 오는 23일 목포에서 개최」.



으로써 목포 시민에게 볼거리와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했다. 대회 기간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였고 총 12개 팀이 참가했고 우리나라가 속한 H조(한국, 브라질, 일본, 독일)만 목포에서 이뤄졌다. 우리나라는 12위에 그쳤다.<sup>56)</sup>

‘전국 노인건강대축제’가 2007년 10월 12일~ 14일 유달경기장 등 목포 시내 7개 경기장에서 전국 16개 시·도 선수단 3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 대회는 보건복지부와 전남도, 목포시가 공동 주최하고 축제조직위원회와 집행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선수단을 환영하는 거리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강강술래, 육군군악대 사열시범 등의 식전행사가 있었다. 또 축하공연으로 빅뱅, 리쌍, 양희은, 남진 등 국내 정상급 가수들이 출연하는 ‘가족 애(愛) 콘서트’, 16개 시·도 선수들의 종목별 경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전국에서 각 시·도 대표로 선발된 3천여 명의 어르신 선수단이 참가해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게이트볼, 배드민턴, 국궁 등 13개 종목에 걸쳐 열띤 경기가 펼쳐졌다. 또한 돼지몰이, 토끼몰이 등 동물농장 체험과 떡메치기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이 밖에도 영호남 교류를 위한 남부예술제, 신나는 커플마당, 건강 미남미녀 선발, 건강 노래자랑 등도 함께 열렸다.<sup>57)</sup>

스포츠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목포시는 지방스포츠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원하고, 스포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본 사업에 선정된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지원하게 됐다. 교육기간은 2009년 6월부터 11월까지 한 과정당 11주 75시간을 교육했으며 교육과정은 스포츠이벤트 전문지도자 양성과 스포츠시설을 통한 참여 스포츠 관광 전문지도자 양성이 있고 전남·광주지역이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사업을 목적으로 삼았다.<sup>58)</sup>

국제대회·전국대회 유치횟수를 보면 개장 해인 2009년에는 3회를 제외하고 두 자리 횟수를 기록했다. 2009년에는 대표적으로 한·중·일 주니어 축구대회를 열었고, 2010년에는 제38회 아시아 학생 U-18축구선수권대회, F1대회 캠프, 2011년에는 제6회 아시아줄넘기대회 캠프, F1캠프, 2012년에는 대구육상선수권대회 사전캠프, F1캠프, 2013년도에는 F1캠프를 유치했다. 전국대회로는 09년 고등부 주말리그, 전국 마린스 목포해양대 총장배 축구대회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개최하였다.<sup>59)</sup>

56) 『머니투데이』 2009. 09. 04. 「전지훈련 1번지 '남도에 가면 거시기해 진다」.

57) 『데일리안』 2007. 05. 28. 「[전남]제2회 전국노인건강대축제 10월 목포에서」.

58) 목포시, 『체육백서』, 2009, 118쪽.

59) 목포국제축구센터 (<http://mifc.co.kr/>, 2016. 01. 01.).

목포시 스포츠 산업은 발전된 체육 인프라 시설을 바탕으로 2009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양하고 알찬 이벤트를 개최하며 지역민들의 관심을 이끌었고 발전을 이룰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갈 수 있는 2010년대를 기대하게 했다.

## 2. 최근 목포 스포츠산업(2010~현재)

2010년도부터 목포시는 국제축구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많은 스포츠이벤트를 열었다.<sup>60)</sup> 2010년에는 중등부 스토티그, 고등부 남부리그, 전국 족구대회, 전국 하키 대회, 전국 육상 투척 경기대회(2010~2013), 전국 꿈나무 축구대회, 2011년도에는 KFA주관 학교스포츠클럽 축구대회 왕중왕전, KWFI 주관 초·중등부 축구 클리닉 등 다양한 전국 대회 및 국제 대회를 열었다.<sup>61)</sup>

전지훈련 팀 유치를 보면 2010~2013년을 기준으로 하여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실력과 인성을 갖춘 월드스타 양성을 위해 FIFA 지도자 교육과 AFC B, C급 지도자 교육, KFA 2, 3, 4급 지도자교육 K리그 전임 심판교육, KFA 심판교육 실시했고 유소년 교육연수로는 대한축구협회 U-12, 13, 15, 16, 18, 19세 남녀 대표팀 전지훈련을 열었다.

또한 목포시 유·청소년 축구리그전(I리그)을 열었다.

스포츠·교육·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F1 대회, 클라이밍 월드컵대회, 전남 원어민 영어캠프,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다양한 수익사업이 있었는데 매년 7~8월 하프돔 구장 내 물놀이장을 운영했고 구장 명칭권을 신동아건설, 스타스포츠에 판매했다. 신동아건설은 천연B구장(2010부터 현재), 스타스포츠는 인조구장(2010~2011)이었다. A보드광고와 스폰서십 협약을 통해서도 마케팅을 벌였다. 기업은행과 서울우유, 목포기독병원 그리고 자이언트 유통, 에이데이마트, 정안식육점, 금장청과, 진도청과(※지역 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A보드 광고 스폰서십을 체결)이다.

2014년도에는 2014 한·일 U-18 스토티그를 열었다. 참가 팀은 포항스틸러스, 대전시티즌, 상주상무, 전북현대, 광주 FC, 대구 FC 유스팀들이 한국을 대표해 참가했다. 일본에선 2014년 다카마도 무니아배(전일본축구협회 명예총재) U-18 축구 전국 리그 우승팀 세레소 오사카와 2014 일본 인터하이 고교클럽(전국체전) 준우승과 40여명의 J리거를 배출한 '패싱 축구' 명문 오츠고교 및 전통의 강호 산프레체 히로시마, V-VAREN 나가사키, 고마자와대학부속고가 각각 일본을 대표해 대회에 참가했다.

60) 목포시청 (<http://www.mokpo.go.kr/>, 2016. 01. 01.).

61) 목포국제축구센터 (<http://mifc.co.kr/>, 2016. 01. 01.).

목포국제축구센터 내에 다목적 체육관 시설이 들어선 이후 2014년부터 목포시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민체력 100’ 사업에 선정되어 국민체력센터를 유지하고 활동했다. 국민체력 100은 대한민국 남녀노소, 빈부격차 없이 전 국민의 체력을 증진시키고자 국가에서 시행하는 무상체육복지서비스로써 ‘나이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소득에 상관없이 100세까지 건강하게’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대상은 청소년부터 노인까지(만 13세 이상의 전 국민)로 체력수준 측정, 평가 및 맞춤형 운동처방 등 체력관리를 하고 있다.

목포시는 2015년에도 ‘국민체력 100’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다목적 체육관 내에서 차수별 주 3회(8주 과정)로 운영, 소도구를 이용한 근력운동, 유산소 운동 등 건강체력 및 운동체력 증진을 키우는 체력 증진교실을 운영하였다. 찾아가는 체력측정 서비스를 통해 목포 시내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찾아가 방문측정이 어려운 측정고객을 대상으로 출장측정 서비스를 시행하며 회원 수를 늘리는 노력을 했다. 2015년 10월 25일에는 전국체력왕중왕전에 앞서 목포시 참가 대표를 선정하는 대회도 개최했다.<sup>62)</sup>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2013년부터 진행했다. 전남 목포시 북항동 주민 센터와 목포시 생활체육회가 5월부터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했다. 생활체육교실은 매주 월~금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생활체육회 전문 강사가 일반 시민들에게 에어로빅, 라틴댄스 요가 등을 지도했다. 무료로 운영한 생활체육교실은 개강 보름 만에 평일 30여명, 금요일은 관광객 포함 50여명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2015년도에도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아침·저녁 시간대 시민들의 체육활동 현장인 철도폐선부지, 이로웰빙공원 등 8개소에 전문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해 생활체조 만남의 광장교실을 운영했다. 또 배드민턴·탁구 초보자 입문을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목포국제축구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무료로 운영했다. 생활체육프로그램은 목포시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목포체력인증센터에서 체력수준을 과학적·객관적으로 평가해 맞춤형 운동 처방 및 상시체력관리와 건강상태 점검서비스를 제공했다.

제6회 아시아 줄넘기(Rope Skipping) 선수권대회가 2011년 7월 22일 전남 목포체육관에서 개막했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과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인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등 아시아줄넘기연맹(ARSF) 회원국 10곳에서 선수단 400여 명이 출전해 기량을 겨뤘다. 개막식에 이어 14세 이하와 15세 이상으로 나뉘어 23일 단체전, 24일 아시안컵 대회가 열렸다. 개인전은 30초간 속도를 겨루는 스프린트와 3분간 지구력을 테스트하는 인듀어런스와 프리 스타일 등 3개 종목이 열렸다. 단체전은 싱글 로프 페어 프리스타일, 싱글 로프 팀 프리스타일 등 5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

62) 목포국제축구센터-체력인증센터([http://mifc.co.kr/08\\_phy.html?MoDe=1](http://mifc.co.kr/08_phy.html?MoDe=1), 2016. 01. 01.).

됐다. 대회 기간에는 참가국 전통놀이 체험 마당이 마련되고 전통 예술 공연이 함께 펼쳐졌다. 대회는 ‘점프 투 목포(Jump to Mokpo City)’라는 슬로건으로 목포시와 한국줄넘기협회, 목포대 스포츠 산업연구소가 공동주관하고, 세계줄넘기연맹과 사회복지법인 한국심장재단이 후원했다.<sup>63)</sup>

F1국제자동차대회가 영암 F1경기장에서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 개최됐다. FIA 포뮬러원(Formula 1) 코리아 국제자동차경주대회는 전라남도의 대회개최 유치 신청에 따라 2006년도 10월 한국(전라남도)이 개최가 확정됨으로써 2010년 10월 전라남도 영암 F1경기장에서 대회를 치르게 되었다. 경기방식은 세계의 일류 자동차 회사들이 11개 팀(22명)을 구성, 매년 17~18개국을 2~3주 간격으로 순회 경기를 하여 연간 성적을 합산하고 드라이버 부분과 차량제작자 부문에서 각 시즌 챔피언을 결정한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 F1 대회가 개최되고, F1 대회가 전라남도에서 개최됨으로써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모터스포츠산업과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했다.<sup>64)</sup>

스포츠산업이란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그래서 스포츠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2010년 이후 목포시 스포츠산업은 작게는 국민을 생각한 “국민체력 100”, 생활체육교실, 크게는 지역 경제를 생각한 F1국제자동차경기대회 같은 메가 이벤트를 4년간 개최하며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아직도 노후화된 체육시설은 많은 스포츠이벤트를 개최하는 데 방해요소가 될 수 있다. 목포시는 F1을 통해 세계적으로도 알려진 도시가 되었고 많은 팀의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 전국적으로도 전지훈련의 메카도시가 되었다. 앞으로 보다 선진화된 체육시설이 새로이 건설되거나 노후화된 경기장과 시설을 보수해서 전국체육대회나 전국에서 규모가 큰 대회를 여럿 유치한다면 목포시는 대한민국 스포츠를 이끄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전호문 | 목포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63) 『동아일보』 2011. 07. 14. 「[광주/전남]국내 첫 아시아줄넘기선수권 21일부터 5일간 목포서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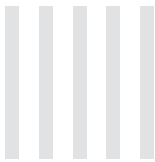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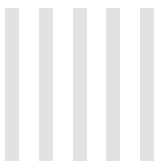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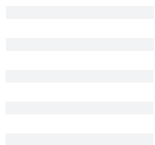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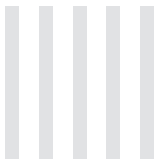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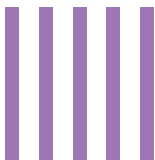
64) 『아주경제』 2010. 10. 18. 「F1의 질주' 시작된다. ... 코리아 그랑프리 개막」.





## 제3편

# 목포의 민속



## 제1절 목포의 민속 개요

이윤선 | 남도민속학회 회장



## 제1장 민속 개요

### 제1절 목포의 민속 개요

목포의 민속 현상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도시와 근대라는 개념을 전제해야만 한다. 일반적인 개념의 ‘전통’이나 ‘풍속’ 등의 사회 현상으로는 목포가 가진 민속적 특성을 풀어내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섬 지역 사람들이 주로 도래하여 터전을 잡고 살았다고 하지만 그 풍속이 고스란히 전해진 것은 아니다. 도시라는 환경, 특히 근대기라는 급격한 생활문화의 변화는 기왕의 생활 습속을 급격하게 바꾸는 시공간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예컨대 촌락의 구조보다는 유달산 자락에 집산되는 주거 환경과 특히 목포항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펼쳐진 생활풍속이 이전의 도서 지역에서 살던 방식들과는 병립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도시민속이라는 항목을 따로 설정하여 목포의 생활사를 정리해 보고자의 의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생각만큼 도시민속 혹은 근대 민속이라는 맥락을 뽑아내기는 어려웠다. 사회, 경제, 산업 등 다른 항목들에 비해 민속 문화적 맥락은 오히려 전근대로부터 이어져 오는 상속성이 더 강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근대에 형성된 공간이기 때문에 근대라는 개념 자체는 중요하다. 이를 어떻게 도시민속과 병립시킬지는 본 항목에서 다루어질 성격의 것은 아니다. 더 깊은 연구가 뒤따라야 개선이 가능하리라 본다. 근대 시기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총체적인 사회 변화를 근대화라 한다. 이 시기에는 경제 부문을 비롯한 정치와 교육, 의식주, 가치관과 행동 양식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커다란 변혁을 수반한다. 바꾸어 말하면 신안, 진도, 완도, 무안, 영암, 해남, 강진 등지의 토착민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생활 문화적 측면과 목포라고 하는 도시 공간으로 이주해 온 후의 생활 문화적 양상이 사뭇 다르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목포 도시 민속을 기록한다는 점은 바로 이 부분을 전제하거나 적어도 염두에 둔 것이다. 즉 인근 도서, 해안 지역의 생활 풍속이 비과학적이고 전근대적인 것임에

비해 도시민속으로서의 생활풍속은 이를 어느 정도 극복하거나 뛰어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목포 도시민속이라고 하면 근대 이후 목포 사람들의 본래 터전이었을 도서 해안 지역과 얼마나 다른지 구체적으로 추적하는 것은 어려웠다.

아쉽게도 본 항목 집필에 참여한 연구자들의 결과들을 보면 도시민속으로서의 변화적 양상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도시민속이나 근대민속을 표방하고 기록하는 것은 일종의 딜레마다. 도서, 해안 지역의 생활 풍속이 그대로 이전되거나 답습되었다면 굳이 목포민속 혹은 도시민속이라고 규정지어 기록할 의미가 없겠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다르든 목포 사람들의 생활 문화는 존재한다. 목포의 생성은 근대화(modernization) 개념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실상은 전근대와 크게 다르지 않는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도시민속에 대한 개념 논의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접근들 자체가 무속, 마을굿, 세시풍속, 설화, 의례, 축제 등의 일반적인 풍속 개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그간의 연구 결과들이 많지 않다. 도시민속이나 도시민속학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개념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다는 뜻이다. 원론적으로는 도시라는 개념 외에 근대라는 개념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큰 변화가 있을 법한데 이를 추적하기 어렵다. 개별적인 연구 결과가 있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기록할 텐데 목포 민속을 따로 다룬 논의들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이런 점들을 두루두루 고려한 후에 목포의 민속이라는 항목을 일반적인 민속 문화 기록의 방식에 준하여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인 도시민속으로서의 목포민속은 도서 해안 지역의 전통들이 보다 약화되거나 부분적으로 단절되었다는 점, 근대와 도시라는 시공간의 맥락들을 담아내는 새로운 문화 양식들이 드러난다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정리를 했다. 전통 사회와 일정한 차별을 보이는 근대 도시는 모든 측면에서 사실상 급격한 변화를 보여준 바 있다. 근대라는 개념은 민속 현상 자체를 거론하는 것이기도 하다. 굳이 근대민속이라 호명하지 않아도 민속 현상 속에 이미 근대성을 담고 있다는 뜻이다. 예컨대 이번 원고에서 ‘선구점 민속’ 등의 이름을 달고 집필한 것은 목포의 근대 민속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접근 가능했다. 전통적인 민속의 형태나 방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근대성의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목포의 민속은 목포라는 공간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의 이전 풍속과 근대기에 형성된 민속을 아우르면서 기록했다는 점 밝혀둔다. 본 항목에서 집필한 소 항목들을 간략하게 살펴 목포의 민속에 대한 개괄을 하겠다.

먼저 목포의 언어를 살펴봤다. 집필은 이기갑이 맡았다. 목포의 언어에서 도서 해안 지역과 비교되는 도시민속적 특성을 잡아내는 것은 어려웠다. 목포만의 특별한 언어가 무엇일까? 있을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체로 무안지역에서 속해 있다는 측면에서 무안을 중심으로 하고 전남 내에서도 서남부의 중심지로 부상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전남 내의 방언들을 중심으로 살필 수밖에 없

었다. 근대 이후 생활의 변화가 있었고 유달산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언어 생활의 변화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다. 인근 도서 해안 지역들과 다른 목포만의 언어 생활이 있다면 후학들이 밝혀낼 수 있기를 바랄 따름이다.

두 번째로 생활민속은 엄수경이 집필을 맡았다. 다른 항목에 비해 현장을 꼼꼼하게 취재하고 그 결과를 본지에 게재했다. 전반적으로 목포의 생활 민속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성실한 원고라고 생각한다. 다만 유달산을 중심으로 하는 온금동, 서산동, 만호동 등지의 민간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기록했다는 점에서 각종 아파트 등 근대 이후의 생활 민속에 대한 천착을 하지 못한 한계를 보여준다. 예컨대 뱃사람들의 작업복을 꼼꼼하게 살피고 옷을 어떻게 지어서 입었는지 등을 살폈다. 목화 농사는 고하도를 중심으로 목화 시배지가 있었으므로 그 정보를 추가하고 유달산 인근의 목화 재배에 대해서 실정을 기록하였다. 목포 음식은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의 제보를 해주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정리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의 가장 대표적인 흥탁 등을 표본화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밝혀둔다. 주거 민속은 지금은 사라진 유달산 아래 초가집을 시작으로 목포 주거지를 망라하여야 마땅하지만 여건상 그렇게 광범하게 접근하기 어려웠다. 이 항목 또한 유달산 인근의 민가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 밝혀둔다. 대체로 목포의 생활민속 항목을 기획하며 정리하고자 했던 내용들이 모두 기록되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의미있는 정보를 게재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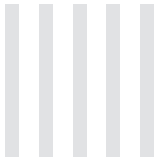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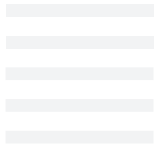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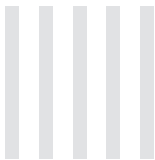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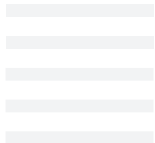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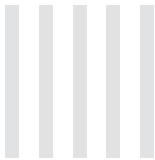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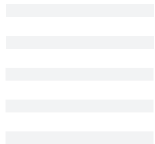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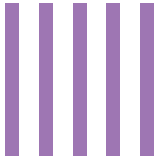
구비문학은 설화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먼저 지명 전설이나 짧은 내력을 가진 설화들을 개진하고 기존 자료들을 인용해가며 각각의 전설, 민담 들에 대해 서술하였다. 예컨대 영달산은 유달산의 다른 이름이다. 유달산 노적봉은 목포뿐만 아니라 울돌목이 있는 진도, 해남지역에도 포진해 있는 지명 설화다. 유달산의 장수 설화, 유달산의 호랑이 이야기, 유달산의 미륵불 이야기도 완전한 서사를 갖춘 설화는 아니지만 목포 유달산의 주목할 만한 설화라는 점에서 채택하여 기술했다. 유달산의 미륵불, 유달산의 야불과 부동명왕, 흥법대사, 유달산신 등의 이야기도 일본과의 관련성을 거론해야 하지만 역사 설화로 기록해 뒀야 한다는 점에서 채택 기술하였다. 유달산의 풍수와 바위 이야기들은 바위 하나 하나에 깃들인 지명전설 따위를 거론해가며 기술했다. 달성사의 옥정도 주목할 만한 전설이고 유달산 보광사 짓샘, 유달산 해봉사 등에 얹힌 이야기들도 주목할 만하다. 갯바위 전설은 그 유형이 여러 개 일만큼 목포에서는 주목하는 전설이다. 고하도의 탕건바위는 쥐바위, 복바위라고도 하는데 민속 경연대회에 출연할 만큼 비중을 가지고 있는 설화이기도 하다. 보리마당은 현재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거론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삼학도 전설 또한 갯바위 전설 못지않게 주목받는 설화다. 유달산의 앞산과 뒷산 이야기는 풍수 설화다. 목포의 설화는 대개 유달산을 중심으로 포진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산풍속은 포구와 선구점 민속이라는 소재로 풀어 기술하였다. 목포시의 생산풍속을 일반적인 농

경 어로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는 없다. 대개 도시민속이라는 견지에서 어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 중에서 선구점이라는 키워드를 뽑아 접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했다. 목포의 어시장은 1908년 동명동 어시장으로 출발한다. 약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한다고 할 수 있다. 목포종합수산물시장으로 발돋움한 이후 가장 핵심적인 것은 수산물 도소매다. 130여개를 넘는 점포들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산물 중의 주요품목은 홍어다. 이외 각종 수산물이 소매 및 도매 되는데 세발 낙지, 젓갈들이 즐비하다. 기본적인 내용들을 목포의 민속 문화 증 생산 풍속에서 가장 유형적인 것은 조선소와 선구점을 중심으로 하는 어업 관련 풍경이다. 목포 포구를 중심으로 하는 어로 관련 생산 민속과 민속 관념 등으로 범주를 제한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도시와 항구 민속으로서의 본 장을 개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목포시 부속 도서에서 행하는 농업 관련 민속은 해당 항목에서 다룰 것이므로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예컨대 풍선인 이대선 삼대선으로 목포 시내의 뚝을 받아다 채소 농사를 했던 인근의 농업 등이 있었다. 얼음 생산이나 물고기 가공, 소금 등의 수협 관련 콘텐츠도 따로 항목을 두어 다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론하지 않는다. 물고기 양식과 관련해서도 신안이나 진도 등지의 인근 시군에 해당하는 풍경들이어서 목포시사에서 다루기에는 부담이 있다. 이외 통과외례는 정서경이, 민간신앙은 이경엽이, 민속놀이는 이유리가 맡아 기술하였다. 도시민속을 다루었다기보다는 이주해 오기 전 고향에서 다루던 민속 양상을 대체로 다룬 글들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목포라는 공간이 도시민속으로 규정해 서술할만큼 근대적 요소들이 많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각 항목에 알맞게 근대적 요소들은 요소대로 전통적인 요소들은 또 전통요소 대로 서술하였음을 밝혀 둔다.

이윤선 | 남도민속학회 회장





### 제1절 하다/허다

이기갑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제2절 대불이다

이기갑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제3절 씨압소

이기갑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제4절 '건지'와 '가심'

이기갑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제5절 바닷가 지형

이기갑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제6절 '모치'와 '숭에'

이기갑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제7절 대명사 '그삼네'와 '그미'

이기갑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제8절 접미사 '-수'

이기갑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제9절 접미사 '-ㅁ'

이기갑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제2장 목포의 방언

목포는 한반도의 서쪽과 남쪽이 맞닿은 끝에 자리 잡은 곳이다. 목포는 예부터 무안의 일부였으며, 신안이나 진도 등 서남해 섬 지역의 관문이었다. 따라서 목포 방언에 대한 기술은 자연히 무안이나 신안, 진도 등지의 방언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글에서는 주로 어휘를 중심으로 하되, 이미 출간된 ‘전남방언사전’, ‘무안방언사전’과 필자가 직접 조사한 신안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 제1절 하다/허다<sup>01)</sup>

동사 ‘하다’는 전남 전역에서 ‘하다’와 ‘허다’의 두 가지 방언형을 갖는다. 전남의 대부분 지역에서 ‘허다’로 쓰이지만 남부 지역에서 ‘하다’로 쓰인다. ‘하다’가 쓰이는 지역은 신안, 영암, 해남, 강진, 장흥, 고흥, 진도, 완도 등 남해안 지역이다. 한편 무안은 ‘하다’와 ‘허다’를 함께 쓰고 있다. ‘하다’와 ‘허다’의 대립은 ‘하다’를 포함한 복합어에도 그대로 나타나므로, ‘그런데’에 대한 ‘그런디/그란디’, ‘그러니까’에 대한 ‘그렇게/그랑게’, ‘그러면’에 대한 ‘그러면/그라면’ 등의 대립을 보인다. 이 밖에도 ‘어쩌까/어짜까’, ‘어쩌면/어짜면’, ‘어쩐디/어짠디’ 등에서도 같은 대립을 보이고 있다. 목포에서도 무안과 같이 ‘허다’와 ‘하다’를 혼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목포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출신 지역에 따라 남해안 출신이면 ‘하다’, 내륙 출신이면 ‘허다’처럼 어느 한쪽에 치우쳐 사용할 것이다.

01) 이기갑, 『전라남도 방언의 언어지리』, 탑출판사, 1987.



## 제2절 대불이다<sup>02)</sup>

‘능금나무 가지를 간들간들 흔들면서 별판을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채 녹지 않은 눈 속에 덮인 종묘장(種苗場) 보리밭에 휩쓸려 돼지우리에 모질게 부딪친다. 우리 밖 네 귀의 말뚝 안에 얹어 매인 암돼지는 바람을 맞으면서 유난히 소리를 친다. 말뚝을 싸고도는 종묘장(種苗場) 씨들은 시뻔건 입에 거품을 뿜으면서 말뚝의 뒤를 돌아 그 위에 덥석 앞다리를 걸었다. 시꺼먼 바위 밑에 눌린 자라 모양인 암돼지는 날카로운 비명을 울리며 전신을 요동한다. 미끄러진 씨들은 게걸터거리며 다시 말뚝을 싸고돈다. 앞뒤 우리에서 응하는 돼지들의 고향에 오후의 종묘장 안은 떠들썩했다.’<sup>03)</sup>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종자가 좋은 수컷으로부터 씨를 받는 일에 대해 전라도말은 ‘불불이다’, ‘수불이다’, ‘대불이다’ ‘갓불이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전라도말 ‘불불이다’의 ‘불’은 ‘불알’, ‘불까다’, ‘불두덩’, ‘불거웃’, ‘불줄기’처럼 생식에 관련된 신체기관에 사용되는데, 이로 미루어 아마도 종족의 번식을 위한 교접이나 교미, 또는 생식 등을 가리키는 말로 추정된다.

전남 함평 지역에서 사용되는 ‘수불이다’의 의미는 명확하다. 씨돼지로 쓰이는 수돼지에 암돼지를 교미시키는 것이므로 수컷을 뜻하는 ‘수’에 동사 ‘불이다’를 결합한 것이다. ‘불불이다’와 달리 품질이 좋은 씨를 주는 수컷을 명시하였다는 점이 특별하다.

한편 해남, 무안, 진도, 목포 등지에는 ‘대불이다’는 말이 쓰이는데 그 어원은 분명하지 않다. 혹시 한자어 對일 가능성이 있으나 확인하기 어렵다.

전남의 담양 지역에서 쓰이는 ‘갓불이다’는 그 어원이 조금 복잡하다. ‘갓’이 포함된 말로 무안 지역에서 사용하는 ‘갓내’와 ‘갓쌈’이 있다. ‘갓내’는 암컷이 발정기에 수컷을 유혹하기 위해 풍기는 냄새, 곧 ‘암내’를 가리키며, ‘갓쌈’이란 한 남자를 두고 여자들끼리(아마도 본처와 첩끼리) 벌이는 싸움을 뜻한다.<sup>04)</sup> ‘갓내’와 ‘갓쌈’으로부터 우리는 ‘갓’이 동물의 암컷이나 여자(또는 부인) 등을 가리키는 말임을 확신하게 된다. 그렇다면 전라도말 ‘갓불이다’의 ‘갓’은 암컷을 가리키는 말로서 여기에 동사 ‘불이다’를 결합시킴으로써 암컷을 종자가 좋은 수컷에 붙이는(교미시키는) 행위를 가리키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수불이다’와 방향이 반대인 셈이다.

02) 이기갑, 『전라도의 말과 문화』, 지식과 교양, 2013에서 인용.

03) 이효석의 단편 ‘돈(豚)’에서 인용.

04) ‘갓쌈’의 어휘 목록은 오홍일, 『전남 무안 지방의 방언사전』, 무안문화원, 2005 인용.

### 제3절 씨압소<sup>05)</sup>

농경 시대에 소는 농사일을 돕는 절대적인 존재였다. 그러나 모든 집이 소를 가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에 남의 소를 키워 주고 대가를 받는 방식이 발달하였다. 그런데 그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남의 집에서 송아지를 가져다가 새끼를 낳을 때까지 약 2년 정도 키운 뒤, 새끼를 낳으면 그 송아지를 자신이 갖고 원래의 소는 원 주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2년 동안 송아지가 자라 새끼를 낳을 정도로 자랐으니 원 주인도 이득을 본 것이고, 아무 것도 없던 상태에서 송아지를 갖게 되었으니 소를 빌려 키운 사람도 이득을 보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제도였던 것이다. 이를 표준어로는 ‘배넛소’라 하는데, 목포, 무안, 신안 지역에서는 ‘씨압’ 또는 ‘씨압소’라 한다. ‘씨압’은 단지 소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새끼를 낳아 주는 동물 일반을 가리키는 말이다. ‘씨’는 종자(種子)를 말하는 것이고, ‘압’은 ‘아비’의 뜻이나 여기서는 부모를 가리키는 말로 추정된다.

한편 송아지 대신 돈을 받는 방식이 있다. 가져온 송아지를 약 2년 정도 키우면 송아지는 어느덧 큰 소로 자랐을 텐데, 이 소를 장에다 팔아서 받은 돈을 주인과 키운 사람이 절반씩 나눠 갖는 방식이 그것이다. 이것은 소 값의 변동에 따라 또는 소를 얼마만큼 잘 먹이느냐에 따라 키운 사람에게 돌아가는 몫이 달라질 것이므로, ‘씨압소’보다는 위험부담이 더 큰 방식이다. 이를 신안 지역에서는 ‘바넛소’라 부른다.

표준어 ‘배넛소’는 주인과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기르는 소를 말하고, 남의 가축을 길러서 가축이 다 자라거나 새끼를 낸 뒤에 주인과 나누어 가지는 제도를 ‘배내’라고 하므로, ‘배넛소’는 신안의 ‘씨압소’나 ‘바넛소’의 두 가지 방식에 다 적용되는 말인 셈이다. 신안의 ‘바넛소’는 표준어 ‘배넛소’와 형태가 비슷하긴 하지만 그 의미가 다르므로 어원도 다를 가능성이 크다. ‘바넛소’의 의미를 고려한다면 ‘반(半)엿소’에서 온 말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표준어 ‘배내’의 뜻을 갖는 한자어에 ‘반양(半養)이 있어, ‘바넛소’를 ‘반엿소’로 볼 만한 근거가 조금 있기는 하다.

이처럼 신안의 ‘씨압소’와 ‘바넛소’처럼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경우는 전남 곡성 지역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 지역에서는 ‘씨압소’와 ‘갈라먹기’의 두 가지 표현을 쓰는데, ‘씨압소’는 신안과 같은 경우이고, ‘갈라먹기’는 신안의 ‘바넛소’에 해당한다.

한편 전남의 다른 지역에서는 대체로 암소를 키워 송아지를 얻는 방식만을 취하는데, 이를 가리켜 진도에서는 ‘어시소’, 영암에서는 ‘도깃소’, 그리고 보성에서는 표준어와 같은 ‘배넛소’를 사용한다.

05) 이기갑, 「방언 문화」, 『도서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자은면』,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2014.

장산도에서는 송아지를 가져와 키워 반반씩 나누는 ‘바넛소’라는 명칭은 있으나, 큰 소는 주인이 가져가고 기른 사람은 송아지를 가져가는 ‘씨압’이나 ‘씨압소’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다. 아마도 ‘바넛소’가 이 지역에서는 일반적인 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제4절 ‘건지’와 ‘가심’

‘건지’는 ‘건더기’의 뜻이다. 목포를 비롯한 전남 지역에서 ‘건더기’는 ‘건데기’, ‘건더구’, ‘건덕지’, ‘건지’ 등의 어형이 확인된다. 이들 낱말들은 모두 옛말의 동사 ‘건디다’(>건지다)에서 온 말이다. ‘건디다’는 구개음화를 겪어 현재의 ‘건지다’로 어형이 바뀌었는데, ‘물속에 들어 있거나 떠 있는 것을 집어내거나 끌어내다’의 뜻이다. 중세어 ‘건디다’에서 명사 ‘건디’가 생겼는데 이것은 ‘건더기’의 뜻이다. 이처럼 동사의 줄기에서 명사를 파생시키는 방법은 우리말의 옛말에서 흔히 확인할 수 있는데, ‘신다’에서 ‘신’, ‘빚다’에서 ‘빚’, ‘가물다’에서 ‘가물’ 등이 파생되는 것이 이러한 예이다. ‘건더기’라는 말의 뜻이 ‘건지다’라는 말에서 생겨났다는 말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건더기’는 국에서 건져 내는 물건이기 때문이다. ‘건디’는 나중에 구개음화를 겪어 ‘건지’가 되지만 ‘건더기’나 ‘건더구’, ‘건덕지’ 등은 각각 ‘건디’에 접미사 ‘-어기’, ‘-어구’, ‘-억지’ 등이 결합하여 생겼으므로 구개음화의 조건(후행 음절의 1 모음)이 맞지 않아 애초의 /ㄷ/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목포 지역에서 ‘건지’는 ‘말건지(=말쌩거리), 웃음건지(=웃음거리), 일건지(=일거리)’ 등과 같이 복합어에 나타나는데, 이때의 ‘건지’는 ‘건더기’의 뜻에서 확대되어 ‘거리’나 ‘재료’의 뜻으로 변화였다. 목포를 비롯한 전남 지역에서는 ‘거리’나 ‘재료’의 뜻으로 ‘가심’이라는 말도 쓰인다. ‘짓가심’(=김치 재료), ‘엿가심’(=애물단지) 등의 예가 확인된다. 이 ‘가심’은 옛말 ‘ᄃᆞᆫ숨’에서 온 말로서 표준어 ‘감’에 대응하는 말이다.

#### 제5절 바닷가 지형<sup>06)</sup>

섬이나 바닷가의 지형적 특성상 육지에서 바다로 향하는 지리적 환경에 대한 다양한 어휘가 발달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바닷가 지형에 대해 신안 등지에서 사용되는 어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06) 왕한석, 『바다 공간의 분류법』, 『한국의 언어민속지-전라남북도편』, 서울대 출판부, 2010.

## 갯변

‘바다’ 또는 ‘바다와 개펄을 포함한 지역’을 가리킨다. 그래서 ‘갯변에 간다’라고 하면,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거나 굴을 따는 일 등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

## 짜지

바닷가의 자갈 있는 곳을 말한다. 짜지는 바닷물이 빠져도 자갈이 드러나는 곳, 신안 신의 지역 말로는 ‘짜갈짜갈한’ 곳을 말한다. ‘짜갈짜갈하다’의 어근 ‘짜갈’은 ‘짜’와 접미사 ‘-알’로 분석되는 바, 이 ‘짜’은 ‘자갈’에 포함된 ‘작’과 같은 어원일 가능성이 크다.

## 모래장불

모래가 넓게 있는 곳을 가리킨다. 해수욕장의 모래사장처럼 그렇게 모래가 넓게 퍼져 있는 곳을 가리키는데, 이런 점에서 보면 신안 신의에는 모래장불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황성금리에 있는 모래사장은 ‘모래기미’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여기서 ‘기미’는 움푹 들어간 곳을 가리키는 접미사 ‘-구미’의 변이형이다.

## 빨땅, 빨바닥

개펄을 ‘빨’이라 하고 개펄로 이루어진 곳을 ‘빨땅’ 또는 ‘빨바닥’이라 한다. ‘빨바닥’의 ‘바닥’은 ‘바다’의 뜻이니, 개펄로 이루어진 바다라는 뜻일 것이다.

## 빨각단

개펄이 시작되는 지점 즉 개펄과 모래 땅 또는 짜지와와 경계 지역을 가리킨다.

## 물각단[물깅단]

흔히 ‘물깅단’으로 발음되는데, 바닷물이 빠져 나갈 때의 끝 지점(신안 신의에서는 ‘가새탕’이라 한다.) 즉 경계 지점을 가리킨다.

## 바당/바닥

‘바다’를 신의에서는 ‘바닥’ 또는 ‘바당’이라 한다. 그래서 개펄로 이루어진 바다는 ‘빨바닥’, 자갈이 있는 바다는 ‘자갈바닥’, 모래가 있는 바다는 ‘모래바닥’이라 한다.

## 덴둥/덴두막

개펄 중에 땅이 단단하고 물이 빠지면 좀 높게 솟아 있는 곳을 ‘덴둥’이라 하며, 신안 장산에서는 ‘덴두막’이라 한다. 아마도 형용사 ‘되다’를 포함한 ‘된둥’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 진참

개펄 가운데 물이 질퍽한 곳은 ‘진참’이라 부른다. 이 ‘진참’은 ‘텐둥’과 대조되는 지형이며, 이런 지형에는 다양한 게가 살 수 있다. 아마도 형용사 ‘질다’를 포함한 말로 보인다.

## 개옹

개펄 안에도 내처럼 물이 흐르는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을 ‘개옹’이라 한다. 이 ‘개옹’은 바닷물이 빠져 나가더라도 물이 흐르는 곳이기도 하다.

## 제6절 ‘모치’와 ‘승에’

참승어와 개승어를 구별한다. 개승어는 ‘씨랭이’라고도 부른다. 개승어는 머리가 크고, 색깔이 검으며, 맛이 없어 제사상에 놓지 않는다. 접두사 ‘참’과 ‘개’는 우리말에서 흔히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할 때 붙인다. 예를 들어 ‘참꽃’과 ‘개꽃’이 그것이다. 목포, 신안, 진도 조도에서도 ‘참승에’와 ‘개승에’를 구별하였는데, 이 점을 보면, 목포, 신안, 진도 지역에서 승어를 ‘참’과 ‘개’의 접두사를 붙여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승어는 크기에 따라 이름이 다양하다. 아래는 무안과 신안 하태도에서 확인된 승어 이름들이다.

일반적으로 승어는 크기에 따라 새끼와 다 큰 것 등의 두 종류를 구별하여 이름을 달리 부른다. 목포에서는 승어 새끼를 ‘모치’나 ‘모당구’라 하고, 진도의 조도에서는 ‘모치’ 또는 ‘모맹이’라 한다. 신안의 하의에서도 ‘모치’와 ‘승에’의 두 가지를 구별하였다. 신의의 경우, 어장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의와 마찬가지로 ‘모치’와 ‘승에’의 두 가지만을 구별하였으나, 하태에서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7가지를 구별하였다.

다른 물고기와 달리 승어에서는 왜 이와 같이 크기에 따른 다양한 이름이 발달했을까? 아마도 승어가 가장 흔하게 잡히고, 가장 많이 잡히는 물고기이며, 섬 지역 사람들이 가장 쉽게 먹을 수 있는 물고기이기 때문일 것이다.

표 1 무안·신안 하태도 지역의 송어 이칭

지역	송어의 이칭
무안 <sup>07)</sup>	모치-침둥어-손툼배기-멩가리-무구력-눈부럼때기-송에
신안-하태도	셀모치-보릿모-모치-외손재비-누령모-무걸모-송에

## 제7절 대명사 ‘그삼네’와 ‘그미’

인칭대명사로서 전남방언은 1인칭의 ‘나’와 ‘우리’, 2인칭대명사로서 ‘너’와 ‘느그’, 3인칭 대명사로서 ‘그 양반’ 등이 있다. 한편 무안 지방에서는 ‘그미’라는 대명사가 있어 흥미롭다. ‘그미’는 3인칭 대명사로서 ‘그 아이’ 정도의 뜻을 갖는다. ‘그 아이’는 표준어에서 ‘걔’로 축약되어 쓰이지만 전남 방언에서는 ‘가’로 축약된다. 그렇다면 ‘그미’와 ‘가’는 동일한 지시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말맛은 ‘가’에 비해 상대를 대접하는 느낌이 더 있다. 어른들이 아랫사람을 대접하여 지칭하는 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sup>08)</sup> 그렇다면 우리는 3인칭대명사로서 ‘그양반 > 그미 > 가’와 같은 3단계의 상대높임 위계를 생각할 수 있다.

19세기부터 서양책이 들어오고 그 책에 나타난 인칭대명사 ‘he’와 ‘she’를 번역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마땅한 3인칭대명사가 없었던 우리로서는 he를 ‘그이’로 번역하였고, she에 대해서는 ‘그네’, ‘그니’, ‘그미’, ‘그녀’ 등의 다양한 번역어가 시험적으로 쓰이다가 오늘날에는 ‘그녀’로 통일되기에 이르렀다. 이때 등장한 ‘그미’는 지시어 ‘그’와 ‘어미’나 ‘할미’ 등 여성 지칭어에 나타나는 ‘미’가 결합된 복합어이다.

무안 지역어에 나타나는 ‘그미’는 이러한 시험적인 대명사 ‘그미’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 무안의 ‘그미’는 성에 관계없이 ‘그 아이’를 뜻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물론 오늘에 와서 ‘그미’는 더 이상 쓰이지 않는 말이 되어 버렸지만, 목포를 비롯한 인근 지역에서 아이들을 대우하는 대명사가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므로 기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무안이나 신안 지역에서 사용되는 3인칭대명사로 ‘그삼네’가 있다. 그 뜻은 ‘그 사람’ 정도의 뜻이므로 영어의 he와 she를 포괄하는 대명사인 썸이다. 물론 ‘그삼네’는 사람만을 가리키며 동물을 가리킬 수 없다는 점에서 영어의 he나 she와는 다르다. 표준어에서 ‘그이’는 남성을 가리키는 말임

07) 무안 지역의 송어 이칭에 대해서는 김준, 『바다 맛 기행』, 자연과 생태, 2013

08) ‘그미’에 대한 정보는 오홍일, 『전남 무안 지방의 방언사전』, 무안문화원, 2005.

로 이 또한 ‘그삼네’와 같다고 할 수 없다.

‘그삼네’는 ‘그 사람네’가 줄어든 말인데, 아예 굳어져서 대명사로 바뀐 낱말이다. ‘그삼네’에 포함된 ‘-네’는 접미사인데, 표준어에서 ‘-네’는 복수 표지(예 : 동갑네), 가정이나 집(예 : 아저씨네), 부인(예 : 아낙네) 등을 가리키는 데 쓰이고 이 밖에 ‘노인네, 여편네’처럼 비하의 뜻을 나타내는 데도 쓰인다. 그러나 목포 인근 지역에서 쓰이는 ‘그삼네’의 ‘-네’는 이와 같은 네 가지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노인네’처럼 비하의 뜻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단순히 ‘사람’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고 할 수 있다. ‘그삼’의 ‘삼’이 ‘사람’이므로 ‘-네’는 사람을 뜻하되 별다른 의미적 기여가 없는 군더더기 표현인 셈이다.

‘그삼네’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의문대명사로 ‘누삼네’가 있다. ‘이 산은 누삼네 것이란가?’(이 산은 누구 것인가?)에서 보듯이 ‘누삼네’는 표준어 ‘누구’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말인데, ‘누구’의 준말 ‘누’와 ‘사람’의 준말 ‘삼’과 접미사 ‘네’가 합해진 복합어이다. 여기에서도 ‘그삼네’와 마찬가지로 ‘누삼네’의 ‘네’는 단순히 ‘사람’ 정도의 뜻을 갖는다.

한편 이 지역에서는 ‘댁네’라는 말이 쓰인다. ‘댁네들이 노는 디를 남자들이 가는 거 아니다.’와 같이 쓰이는데, 이 예에서 ‘남자들’에 대립되는 말이 ‘댁네’이므로 이 말은 곧 ‘여자들’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댁네’의 ‘댁’은 한자 宅으로서 ‘집’을 의미한다. 여자는 집안의 중심이므로 ‘댁’은 당연히 ‘결혼한 여자’를 가리키게 된다. 한국어에서 여자들의 태호로 쓰이는 ‘댁’도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 처럼 여자를 가리키는 ‘댁’에 접미사 ‘-네’가 결합한 것인데 여기서 ‘-네’는 복수의 표지로 쓰였으니 ‘댁네’는 결국 ‘결혼한 여자들’ 곧 ‘부인네들’이 되는 것이다.

## 제8절 접미사 ‘-수’<sup>09)</sup>

무안 지역에서는 음식을 몹시 탐하는 사람을 가리켜 ‘결떡수’라 한다. ‘결떡’은 ‘결떡거리다’의 어근으로서 무엇을 얻어먹기 위해 자꾸 집적대는 것을 뜻한다. 이 어근 ‘결떡’에 사람을 가리키는 접미사 ‘-수’가 결합된 말이 곧 ‘결떡수’이다. 접미사 ‘-수’는 표준어 ‘-보’나 ‘-이’와 같은 것으로서 ‘결떡수’에 대한 표준어는 결떡이가 이를 뒷받침한다.

표준어나 전남의 내륙 지방의 대부분에서는 ‘-보’를 사용하여 ‘잠보’, ‘울보’, ‘피보’ 등을 사용하며, ‘곰보’에 대하여 ‘빡보’, 대머리를 가리키는 ‘할딱보’ 등에서는 비하의 의미를 보여 주기도 한다. 그러나 무안, 목포, 신안 등 서남해 해안 지역에서는 ‘-보’ 대신 ‘-수’를 선호한다. ‘피보’에 대해 ‘피수’, 머

09) 이기갑, 「전남 방언의 파생접미사(1)-명사와 동사를 중심으로」, 『언어학』 41, 2005.



리가 큰 ‘대갈수’, 떼를 잘 쓰는 ‘떼수’, ‘먹보’에 대한 ‘묵수’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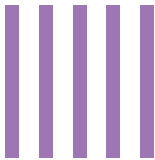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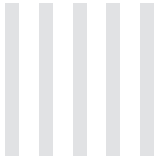
신안이나 진도 조도 지역에서는 아이들의 이름을 속되게 부를 때 아이의 외가 지명(엄마의 친정 지명)을 사용하되, 여기에 접미사 ‘-수’를 붙이기도 한다. 이때 ‘-수’는 사내아이를 가리키는 기능을 하며, 아이가 여자아이인 경우 ‘-단’(조도)이나 ‘-니’(신안) 등을 붙인다. 그래서 외가가 뒷개인 경우 아들은 ‘뒷개수’, 딸은 ‘뒷개단’ 또는 ‘뒷갯니’로 불리는 것이다. 이러한 아이의 이름을 바탕으로 하여 그 어머니의 호칭은 접미사 ‘-네’가 덧붙여 ‘뒷개수네’ 또는 ‘뒷갯니네’ 등으로 부르게 되는데, 이러한 호칭은 육지에서 접미사 ‘-댁’을 결합하며 사용하는 댁호와 지역적인 대립상을 보여 주는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아이들의 속명 명명에 사용되는 접미사 ‘-수’도 ‘곶떡수’의 ‘-수’와 기원을 같이 하는 것이다. 다만 속명에 사용되는 ‘-수’는 사내아이를 가리키는 점에서 성에 무관하게 아이 또는 사람 일반을 가리키는 ‘곶떡수’의 ‘-수’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물론이다.

### 제9절 접미사 ‘-ㅂ’

목포를 비롯한 서남해 지역에서는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로서 ‘-ㅂ’이 있으며 그 접미사가 사용된 낱말로는 ‘날쌔다’, ‘맛납다’, ‘징합다’, ‘독합다’ 등을 들 수 있다. 전남의 내륙 지방에서는 접미사 ‘-ㅂ’가 없는 ‘날싸다’, ‘맛나다’, ‘징하다’, ‘독허다’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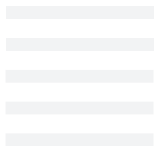
접미사 ‘-ㅂ/브’는 우리의 옛말에서 사용되었던 접미사였다. ‘얹다’에서 ‘얹ㅂ다’를 거쳐 현대의 ‘아프다’가 생겼고, ‘끓다’에서 ‘끓ㅂ다’를 거쳐 현재의 ‘고프다’가 생긴 것이다. 따라서 이때의 접미사 ‘-ㅂ/브’는 동사를 형용사로 만드는 기능을 가졌다. 그런데 목포를 비롯한 서남해 지역에서 사용되는 접미사 ‘-ㅂ’은 이와 달리 새로운 낱말을 형성하기보다는 단순히 어형의 변화만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는다. 예를 들어 ‘날쌔다’는 ‘날다’와 ‘싸다’가 합성된 말로서 전남의 내륙에서는 ‘날싸다’ 그리고 표준어에서는 ‘날쌔다’로 나타나는 말이다. 그런데 ‘날싸다’에 ‘-ㅂ’이 추가되어 ‘날쌔다’로 변하더라도 ‘날싸다’와의 의미 차이가 없으니 이때의 ‘-ㅂ’은 아무런 의미 변화를 초래하지 못한다. 단순히 어형을 길게 만들 뿐인 것이다.

이기갑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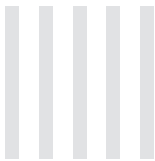
### 제1절 목포 사람들 삶 살이

엄수경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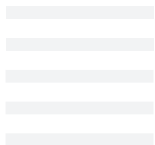
### 제2절 목포 사람들 옷 민속

엄수경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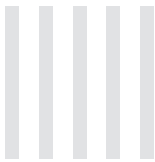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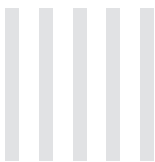
### 제3절 목포 음식 민속

엄수경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 제4절 목포 사람들 주거 민속

엄수경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 제3장 목포 사람들의 생활민속

### 제1절 목포 사람들 삶 살이

사람들은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들어 가고자 몸에 익힌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기도 하고 후대에 전달해 주기도 한다. 이러한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물질적, 정신적 결과물이 바로 생활민속이다.

우리 조상들은 수천 년 동안 자신들이 살고 있는 터전에서 기후와 풍토에 알맞은 입는 것, 먹는 것, 거처하는 곳을 개발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 세 분야는 문명 발달과 세상 변화로 인해 많은 변화가 생겼다.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입었던 기본적인 옷은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인 한복이었다. 오늘 날은 다양한 종류의 옷을 입는다. 옷이 단순히 신체를 보호하는 실용성과 기능성을 강조했다면 요즘은 유행과 멋을 강조하기도 한다. 예전에 일상복이었던 한복은 명절, 고궁체험, 행사에서 종종 보게 될 뿐이다. 정장이라고 할 때 남성들은 대부분 양복을 입고, 여성들은 한복을 입는 경우를 본다. 옷은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나 삶의 이상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특히 직업과 종교적인 분야에서다.

사람이 먹고 마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음식이라 한다. 음식 역시 많은 변화가 생겼다. 대한민국 음식 중에서 가장 기본은 밥과 국이다. 벼농사 중심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밥은 쌀밥을 가리킨다. 보리, 콩, 조 등 곡식을 섞기도 하고, 밤, 감자, 나물, 김치, 고기, 해산물 등을 섞어 짓기도 한다. 옛날에는 모든 음식이 어머니 손끝에서 맛이 나왔지만 요즘은 즉석에서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식

품이<sup>01)</sup> 많다.

집은 기후 변화와 외부 환경으로부터 가족의 생명, 재산을 보호해 줄 뿐 아니라 편안하게 쉬고, 안전을 지켜주는 공간이다. 가족 간에 사랑과 믿음을 나누고, 가족이 모여서 지낼 수 있는 장소이다. 예전에는 한옥에서 3대가 살기도 했으나 오늘날에는 아파트와 서양 건축물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 집은 어머니 품과 같은 것이었으나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익명인 채로 살아가고, 아파트 가격의 오르내림에 집착하는 재화의 개념이 되어버렸다. 층간 소음 문제 등으로 이웃 간 갈등도 잦다.

목포 사람들의 변화되어 온 생활 자취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파트문화보다는 옛 목포 모습이 남아 있는 온금동과 서산동을 찾았다. 목포적인 특징을 찾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 제2절 목포 사람들 옷 민속

옷은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 줄 뿐 아니라 신분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사회 생활에 필요한 예절을 지킬 수 있도록 옷은 때와 장소, 목적에 따라 알맞게 갖춰 입게 된다. 상갓집 조문을 갈 때는 검정과 흰색 계열, 축하하는 자리는 대부분 화려한 색의 옷을 입는다.

옷은 성의 정체성을 말해주기도 한다. 우리나라 경우 아이가 태어나 백일이 되면 옷 색을 통해 남녀를 구별한다. 분홍색, 붉은 빛 계열은 여자 아이, 파랑색, 하늘색 계열은 남자 아이다. 첫돌이 되면 옷의 형태를 통해 남녀를 구별한다. 여자 아이 돌복은 굴레나 조바위를 쓰고 색동저고리와 분홍 치마에 오방장두루마기를 입히고 타래버선을 신고 염낭을 찬다. 남자 아이는 속옷으로 연보라 풍차바지와 연분홍 저고리 그 위에 남색 조끼를 입고 초록색 깃에 색동소매로 된 마고자와 오방장두루마기(까치두루마기)와 전복을 입힌다. 머리에는 복건이나 호건을 쓰고 타래버선을 신는다.<sup>02)</sup>

색동옷은 위험을 면하고 복을 받기 위해 음양오행설에 의한 오방색을 이어 붙인 것이다. 색동저고리는 한자로 반의(斑衣)라고 한다. 반의는 반의지희(斑衣之戲) 사자성어에서 유래했다. 나이 들어 부모를 기쁘게 효양(孝養)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중국 고사에 노래자가 나이 일흔에 때때옷을 입고 부모 앞에서 어리광을 부려 위로를 했다는 데서 유래한 것이다.

01)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지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통틀어서 식품이라 한다. 예를 들어, 살아 있는 닭은 식품이라 하지 않는다. 일반 소비자가 먹을 수 있도록 가공해서 판매할 때 식품이라 한다.

02) 안명숙·김용서 공저, 『한국복식사』, 예학사, 1994, 173~174쪽.

현재 우리나라 일상생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옷이 있는데 등산복이다. 활동하기 편한 등산복은 디자인이 세련되어 저서 등산이 아닌 일상 생활에서도 입는 경우가 많아졌다. 한 여행사에서 유럽 여행을 할 때 등산복을 자제해 달라는 안내 문자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다.<sup>03)</sup>

## 1. 뱃사람들 작업복

목포 지역 뱃사람들 작업복은 등산복과 등산화가 대세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작업복으로 추리닝을<sup>04)</sup> 많이 입었다고 한다. 신축성이 좋아 활동하기에 편했으나 방수에는 약했다. 등산복은 가벼울 뿐 아니라 바람막이, 방수, 보온성이 좋아 편리한 옷임에는 틀림없다.

겨울 뱃사람 작업복으로 필수적인 것은 고무옷, 장화, 모자, 코팅된 방수 장갑, 우비, 목도리다. 보온을 위해 내의는 반드시 챙겨 입는 옷이다. 추리닝의 경우 겹옷으로 입는 것이 아니라 보온을 위한 속옷으로 입고 있다. 우비는 작업할 때 바닷물이 튀는 것을 막고 바람막이로 입는다.<sup>05)</sup>

## 2. 여성들 생활의 굴레 옷 짓기

예전에 여성들을 가장 힘들게 한 것 중 하나가 옷 짓는(만드는) 일이었다고 한다. 낮 시간 집안일과 밭농사로 지친 몸을 밤이라고 쉴 수가 없었다. 별이 좋은 날 낮에 누런 당목(무명실로 폭이 넓고 발이 곱게 짠 천)을 양잿물에 삶아 살짝 말렸다가 손질을 했다. 하얗게 된 천을 푸다듬(풀을 먹여 손질한 천)해 두었다가 밤이면 옷을 만든다. 먼저 입에 물을 머금었다가 푸~ 골고루 뿌려 발로 잘근잘근 밟아 다리미로 주름살을 폈다. 그 천을 가지고 밤이면 집안 어른들 옷과 명절이면 아이들 옷을 지었다. 가장 많이 만든 것은 당목버선 이었다고 한다. 발을 대고 본을 떠서 만들었다. 옷을 지을 때 저고리는 한 겹, 치마는 두 겹을 겹쳐 안팎으로 박음질을 해서 만들었다. 명절이면 여자 아이 옷은 고운 물을 들여 만들어 주었다. 아이들은 이 옷을 ‘꼬까옷 또는 때때옷’이라고 했다.<sup>06)</sup>

1960년대 후반 일명 ‘다후다’라고 하는 태피터가 일반화 되면서 주부들의 일손을 덜어주었다. 푸

03) “유럽은 등산을 하시는 곳이 아니라 아름다운 도시를 여행하시는 곳입니다. 등산복은 꼭 피해주시고~”(아시아경제www.asiae.co.kr, 2016.04.21.).

04) 트레이닝복 또는 추리닝은 운동을 할 때 입는 옷의 일종이다. 트레이닝복은 운동에서도 경기가 아닌 연습할 때 착용되는 옷으로, 기온 등 온도 변화와 태양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특히 가볍고 유연한 소재로 운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대부분은 화학 섬유로 되어 있고, 위생을 유지하기 쉽도록 되어 있다.

05) 최영일(남, 46세). 목포 택시기사. 2016년 12월 11일 조사. 1년 전 수산시장에서 2년 동안 일을 했다.

06) 김금순(여, 77세). 2016년 12월 10일 조사. 친정은 진도, 목포 서산동에 거주한 지 50여년이 됐다.

다듬 할 필요 없이 손 쉽게 한복을 만들어 입을 수가 있었다. 우선 가볍고, 빨아도 빨리 마르는 장점이 있어 당목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재봉틀이 나오면서 여성들은 밤새워 하던 손바느질에서 벗어났다. 1970년대가 되면서 대부분 옷을 손수 만들기보다는 사서 입게 되었다.

### 3. 고하도 목화농사

대한민국에서 목화와 관련한 사회사는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인 목포를 빼놓고 이야기 할 수는 없다. 문익점이 들어 온 목화씨는 하나의 단순한 농작물 씨앗이 아니었다. 모든 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킨 ‘혁신과 창조의 원천 씨앗’이라고 봐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목화가 보편화되면서 우리 민족을 ‘백의민족’<sup>07)</sup>으로 불리게 했다. 문화적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민족 공동체를 이룬 산물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목면<sup>08)</sup>을 일컫는 무명이란 이름 유래는 문익점에 의해서라고 할 수 있다. 문익점이 처음으로 목화씨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 왕이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느냐?”고 묻자 문익점이 원나라에서 들었던 대로 ‘무미엔’이라 했다. 무미엔은 목면(木綿)의 중국식 발음이다. 이 ‘무미엔’이라는 발음을 그대로 받아들여 비슷한 발음이 나는 한자 ‘무명’으로 쓰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무명’은 소리만 의미가 있을 뿐, 한자의 뜻은 없는 글자인 것이다.

일제강점기는 목화 수탈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일본 공출 때문이다. 공출과 관련하여 목포에서 목화 수매는 장날에 맞춰 이루어졌고, 수매된 목화는 목포 솜공장에서 가공하여 일본으로 반출되었다. 호남 평야, 면작 성공, 거기다 물류 시스템까지 갖춰지면서 목포항은 발전하게 되었다.

목포는 무엇보다 면화의 수출 항구라 할 수 있다. 1904년 이후 고하도에서 육지면 시험 재배에 성공하자, 일제는 육지면 재배 면적을 공격적으로 넓혀 나갔다. 육지면은 군수품의 의복분야에서 중요한 품목이었다. 이 때문에 한국면업주식회사가 목포에 들어선 것을 시작으로 대규모 조면 공장들이 들어섰던 것이다. 그뿐 아니라 직접 면포를 짜는 조포 공장, 면실유 공장까지 면화와 관련된 다양한 산업체가 목포에 들어섰다. 1920년대 면화 값이 등귀하자 목포항으로 큰 선박들이 폭주하고 해안에는 면화가 가득 쌓였다. 거리에는 건축이 성행해 땅의 여유가 없을 정도로 호황을 누렸다.

07) 옛날부터 우리 민족이 백색 옷, 즉 흰옷을 즐겨 입었던 데서 비롯되었으며, 줄여서 백민이라고도 했다. 흰색은 태양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 민족에게는 태양 숭배 사상이 강해 광명을 나타내는 뜻으로 흰색을 신성시하고 백의를 즐겨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려 시대인 1357년 우필홍이 동방은 목으로 청에 해당하는데 백은 금이니 흰색 모시옷을 입는 것은 목제금의 상이라 하여 금지하게 했다. 조선 시대에는 명종 때 조식이 흰옷은 소복이므로 금지해야 한다고 상소하여 금지했으며, 이후에도 조선 시대에는 수차례 흰옷 착용을 금지했다. 근대 이후 의식 변화와 시대의 변천에 따라 흰옷 착용은 차츰 일상 생활에서 멀어졌다.

08) ‘목화’는 한자로 ‘木花’라 쓰지만 정작 현대의 중국 사람들은 면화(棉花)라는 말을 쓴다. 고려 말 문익점이 목화를 한반도에 들어올 무렵, 중국에서는 목면(木棉)이라고 하다가 나중에 면화로 바꿔 부르게 된 것이다. ‘무명’이란 중국말 목면의 중국식 발음이다. 전라도에서는 솜 나무를 가리키는 뜻으로 ‘미영’이라고 한다(이기갑, 『전라도의 말과 문화』, 지식과교양, 2013, 128~129쪽).

기온이 온난해 우리나라 최초로 육지면이 재배된 곳이기도 한 고하도는 일제강점기 당시 목화의 물량이 많아 목포항 주변으로 목화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육지면 재배는 당시 목포 주재 영사로 부임한 와카마쓰 우사부로가 미국 육지면 종자를 입수해 목포 고하도에서 시험 재배했다. 일본 자국에서 먼저 육지면을 시험 재배했지만, 성장기인 9월 하순에 비가 많이 내려 썩어버리는 바람에 일본에서의 재배를 포기했다가 육지면 재배 기후 풍토가 적합한 목포 고하도에 재배하면서 일본의 목화 수탈이 시작이 되었다. 목화 공출을 위해 일본은 목화 농사를 강압적으로 권하기도 했다.

현재 목화는 생활 속에서 그 기능을 잃었다. 옷을 짓거나 혼수이불을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목포시는 고하도를 목화섬으로 재탄생시켜 관광 명소로 콘텐츠화하기 위한 멋진 꿈을 꾸고 있다.

### 제3절 목포 음식 민속

음식은 우리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힘의 원천이다. 인문 환경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 중 하나가 음식문화일 것이다. 지역의 자연 조건에 따라 음식 재료와 만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결혼을 하면 신혼 집들이를 했다. 신부의 음식 손맛을 보기 위해서였다. 지금은 음식을 주문배달해서 대접하거나 바로 식당에서 대접하기도 한다. 종교나 관습 등에 따라서도 음식은 다르다.

우리 조상들은 밥상머리의 예절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어른이 숟가락을 들고 음식을 맛을 본 다음에야 아이들이 먹기 시작했다. 밥상머리 교육에 대해 요즘 젊은 대세들이 관심을 보인다. 가족이 모여 함께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통해 가족 사랑과 인성을 키우기 때문이다.

목포 음식하면 바로 연상되는 제철음식이 있다. 봄날 별에 머리를 떴고 꾸들꾸들 말려 만든 깡다리<sup>09)</sup>조림, 무더운 여름날 민어, 가을 낙지와 전어, 그리고 대갱이무침, 겨울 흥어는 오랫동안 외지에서 목포를 찾는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음식들이다.

목포 토박이들 음식을 찾아 옹기종기 모여 사는 온금동과 서산동을 찾았다. 예전에는 제사만 지내도 막걸리 한 병 받아서 동네 사람들을 부르고, 나물 한 가지만 만들어도 콩보리밥을 함께 나눠 먹었다는 훈훈한 이야기가 이제는 옛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다.

09) 깡다리가 표준어로 민어과에 속한 바닷물고기로 몸은 10센티미터 정도이고 배에 황금색 선이 있다. 지역에 따라 부르는 명칭이 다르다. 목포 지역 어른들은 일반적으로 조기 작은 생물을 황실이, 꾸들꾸들 말린 것은 깡다리라 한다. 황새기, 황석어라고도 부른다. 젓갈 경우 깡다리젓이라고 하지 않고 황시리젓이라 한다. 2003년 4월 9일 목포시 상리, 2016년 12월 10일 조사.



## 1. 상갓집과 잔칫상 감초 홍어

“들어나 봤나. 일코, 이애, 삼날개, 사살, 오빠라고?”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홍어 예찬론자였던 선생님이 막걸리 한 사발에 알싸한 홍어 한 점을 입에 넣고 열변을 토할 때면 하던 말이다. 전라도 목포사람들은 바로 홍어 부위별 이야기라는 것을 안다.

일상 생활에서 홍어와 관련된 속담을 종종 듣게 된다.

“만만한 게 내가 홍어 좇이냐?”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일종의 항변으로 목포 사람들이 쓰는 말이다.

홍어 생식기에 대한 이야기는 정약전 『자산어보』에서도 다뤄지고 있다. 암컷이 낱시 바늘에 걸려 올라올 때 교미 중이던 수컷이 아무 것도 모르고 물으로 함께 따라 올라와 목숨을 잃게 된 이야기다. 수컷 홍어의 생식기에 대한 만만한 이야기가 또 하나 있다. 수컷에 비해 암컷이 비싸기 때문에 때로는 수컷 생식기를 떼어내고 암컷으로 둔갑되기도 한다. 하지만 ‘홍어 맛 뵈기’ 때문에 떼어 내질 운명에 처하기도 한다. 홍어를 사는 손님에게 살점을 톡 떼어 시식하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수컷 홍어의 생식기를 떼어 놨다가 맛을 보였다고 한다. 수컷 홍어의 생식기는 이래저래 떼어질 운명일 수밖에 없다. 다른 생선과는 달리 홍어는 암컷을 최고로 친다. 식감이 수컷은 뻣뻣하고 암컷은 찰지고 맛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홍어 음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홍어애국과 홍탁삼합이다. 홍어애국은 홍어 애와 궁합이 잘 맞는 보리 순으로 끓인다. 홍어는 찬 음식이고 보리는 따뜻한 성질을 지녔다. 홍어애국을 끓일 때 다른 채소들은 물러져 형체가 사라져 버리지만 보리 순은 그대로 형체를 유지한다. 홍어삼합에 가장 잘 어울리는 술은 막걸리이다. 옛날 못 먹고 살던 시절 홍어가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때때로 속이 쓰려 기름진 돼지고기와 함께 먹었던 거라고 한다. 막걸리는 속이 든든하고 홍을 돋구기도 하지만 소화가 잘



**그림 1** 갯다리는 건조하는 모습. “황시리는 아무리 커도 조기가 안 된다.” 목포에서는 참조기 10cm가 안 되는 생물을 황시리(황석어)라 부르고 꾸들꾸들 말린 것을 갯다리라 부른다. 배 부분이 잘 마르지 않기 때문에 구부러 준다.

되지 않아 홍어와 함께 마셨을 때 가장 소화가 잘되고 취하지 않는다고 한다. 홍어삼합과 막걸리가 잘 어울린다는 의미로 둘은 집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홍어 효능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에서 다루지 않아도 잘 알려진 사실이라 홍어 꼬리 독에 관해 언급하고 넘어간다. 이익이 쓴 『성호사설』에 홍어 꼬리를 나무에 꽂아 두면 그 나무가 절로 시든다고 되어 있다.

어떤 사람들은 “홍어가 무슨 목포냐? 흑산도나 나주 영산포면 모르지”라고 하는데 목포 사람들은 “그것은 모르는 소리”라고 한다. 흑산도에서 잡지만 홍어가 목포수협위판장에서 경매를 통해 각지로 팔려 나가기 때문에 집산지가 목포라며 홍어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 2.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간 민어

육고기는 작은 것이 맛이 있지만 생선은 클수록 맛이 있다. 민어는 1kg 이상이 넘어야 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목포 사람들은 민어가 조선 시대에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간 귀한 수산물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하다. 여름철 복날이면 복달임으로 민어탕을 일품으로 친다. 도미찜 이품, 보신탕은 삼품이란다. 그만큼 목포 사람들은 민어를 귀한 음식으로 생각한다. 민어를 필히 먹어야 여름을 잘 난다고 말한다.

민어는 홍어와는 달리 수컷 민어가 최고다. 암컷 민어는 내장을 빼고 나면 먹을 게 없고 식감 또한 물경겨려 수컷을 먹으라고 소개해준다.<sup>10)</sup> 민어는 민초를 물고기라는 의미로 민어(民魚)라고 했다는 데 이름일 뿐 사실은 비싸고 고급스러운 수산물에 속한다.

민어는 평소 부모를 봉양하지 못한 자식들이, 돌아가신 뒤에라도 드시게 한다며 제사상에 반드시 올리는 생선이다. 제사상에 올리는 것은 꾸들꾸들 말린 민어로 찜을 한다. 이 민어를 민어 굴비라 부른다.

서산동에서 만난 김금순 할머니가 가장 잘 만드는 음식은 민어와 농어 찜이다. 팔뚝만한 민어나 농어 배를 가르고 내장을 깨끗하게 손질한 후 자연 바람과 볶에 2~3일 말린다. 꾸들꾸들해진 상태에서 납작하게 펼쳐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특별한 날이나 자녀들이 집에 오면 찜을 한다. 민어나 농어를 양념 없이 먼저 찜 낸 다음 따끈따끈할 때 다진 마늘과 대파를 가늘게 어슷썰기를 해서 깨와 함께 고명으로 올린다. 찜을 손으로 찢어 양념장에 찍어 먹는데 양념장은 쪽파, 참기름, 고춧가루를 약간 넣어 만든다.

10) 최영일(남, 46세) 택시기사. 2016년 12월 11일 조사.

생선을 말릴 때는 여름철은 피한다. 상하기 쉽고 비린내가 나기 때문이다.

### 3. 목포 먹갈치

“갈치가 왔어요, 갈치가 왔어요. 목포 먹갈치가 왔어요. 고개를 깐닥깐닥 눈알을 끄뻑끔뻑, 눈을 떴다 감았다 떴다 감았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날 데려가 주세요. 목포 먹갈치가 왔어요.”

항상 트럭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궁금해 목포 먹갈치를 알아보기 위해 목포수협위판장을 들렀다. 중개인에게 물었더니 목포 먹갈치와 제주도 은갈치는 잡는 방식과 서식지가 다르다고 한다. 제주도 은갈치는 낚시로 잡는다. 낚시에 걸려 올라올 때 은빛 찬란함에 매료되면 갈치 낚시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목포 먹갈치는 바다 깊은 곳에서 갯벌을 먹고 사는 것을 어망으로 걷어 올린다. 몸이 서로 부딪게 은빛이 죽어 회색빛을 띄기 때문에 먹갈치라고 했다. 빛깔 때문에 제주도 은갈치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맛은 목포 먹갈치가 식감도 부드럽고 고소하다고 한다.

### 4. 서령기와 <sup>11)</sup> 콩보리밥

서산동 보리마당에서 만난 김금순 할머니에게 추억의 음식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여름철 서령기젓갈이 최고지요. 별떡별떡 튀는 서령기를 뿔긋뿔긋한 고추와 마늘을 돌확에 넣고 푹푹 갈아 젓갈을 땡글어. 뜨끈뜨끈한 콩보리밥에 젓갈 한 숟가락 척 얹어 비벼 먹는 맛은 안 먹어 본 사람은 몰라.”

목포 지역에서 나이든 사람들은 게를 “기”라는 명칭을 정감 있어 한다. 서령기젓에 네댓 명 모여 보리밥 비벼 먹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이제는 하나의 추억이 되어버렸다. 여름철 열무 잎을 씹으로 먹을 때 목포 사람들은 된장보다는 서령기젓을 좋아한다.

서령기 중 아주 잘잘한 것이 있다. 여름철 허물을 벗은 것들은 자잘하고 부드럽다. 이 서령기는 젓

11) 각 지역에 따라 화랑게, 찰기미게, 칠게, 서령기, 설은게, 설게, 잔기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지만 목포 사람들은 대부분 서령기라고 부른다. 청정갯벌에서 사는 이 게는 튀김, 된장 조림, 간장 게장, 젓갈로 만들어 먹는다. 낙지를 잡을 때 미끼로 사용되기도 한다.

갈을 만들면 맛이 없기 때문에 된장을 넣고 초무침을 해야 제격이다.<sup>12)</sup>

가난한 집에서 봄날 쑥에 서령기를 넣어 쑥버무리를 해 먹기도 했다고 한다. 봄날 쑥만 나와도 보릿고개를 무사히 넘긴다는 말이 있다. 쑥은 그만큼 탈이 나지 않은 구황식물이다. 봄에 서령기는 기름이 짭 찬다. 그냥 먹으면 배탈이 나지만 쑥에 기름 찬 서령기를 통째로 넣고 밀가루로 버무려 찌서 먹으면 배가 든든했다고 한다.<sup>13)</sup>

## 5. 도시락 반찬과 막걸리 안주 대갱이(개소갱)무침

“짱뚱이도 아닌 것이, 장어도 아닌 것이 민물에 사는 드렁이를(드렁허리) 닮은 힘이 좋은 놈이 있제.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갯벌 속에서 살지. 보기는 쪼깐 거시기 하는데 힘이 좋고 맛이 좋아. 찌고 영산강 하구언을 막기 전만 하드라도 참말로 목포 사람들이 많이 잡아 묵었제.”<sup>14)</sup>

목포사람들에게 이제는 추억의 음식이 된 것이 대갱이무침이다. 영산강 하굿둑을 막기 전만 하더라도 바닷물이 빠진 갯벌에서 큰 함지박이 넘치도록 잡았다고 한다. 해풍과 별에서 꾸덕꾸덕 말려 쟁여 두었다가 찬바람이 나고 막걸리 한 잔이 생각날 때면 방망이로 잘근잘근 두들겨 연탄불에 구워 고추장에만 찍어 먹어도 안주로는 최고였다고 한다.

영산강 하굿둑은 1978년에 착공하여 1981년에 완공된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과 영암군 삼호읍을 연결한 공사였다. 조석 영향차가 커 나주 부근까지 미쳐 연안 농경지에 하천 범람, 농토 침식 등 피해를 해소하고자 건설했던 사업이다. 이 건설 사업으로 농토를 확대했고 더 이상 하천이 범람하지 않았다.

목포시와 영암군이 도로가 연결되어 교통이 편리해졌으나 영산호는 토사가 쌓이고 수질이 악화되었다. 하구에 펼쳐져 있던 갯벌이 급격히 감소하고 생태가 파괴되었다. 목포 사람들에게 잊혀진 어종이 있는데 바로 대갱이다.

대갱이는 열두 구멍을 뚫고 휘젓고 다니기 때문에 힘이 좋을 수밖에 없다. 청정 갯벌이 아니면 살지 않는다. 바다와 강 하구가 만나는 기수 지역 깊은 갯벌이 서식지다. 영산강 하굿둑이 생겨 갯벌이 사라지고 바다가 오염되면서 서식지를 잃어버렸다.

대갱이는 도시락 반찬으로 엄지 손가락을 척 할 정도의 맛이란다. 북어처럼 반듯하게 하여 잘근잘

12) 김소영(여, 59세). 목포 출신.

13) 이화성(여, 80세). 목포에서 태어나 40대까지 살았다. 이화성 씨는 그런대로 먹고 사는 집안이라 서령기 넣은 쑥버무리는 친구 집에서 얻어 먹었다고 한다.

14) 김순이(여, 70세). 목포 생활민속을 조사하면서 목포 현지에서 택시를 타거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갱이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다. 그러다 우연히 대갱이를 잘 아는 분을 만나게 되었다.

근 두들겨 연탄불에 살짝 굽는다. 굽은 뼈를 발라내고 적당한 크기로 살을 찢어 고추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 파, 참기름을 넣고 조물조물 무치면 도시락 반찬으로 그만이었다고 한다.

## 6. 여름철 시원한 갓김치

여름철 입맛이 없을 때 보리밥에 먹었던 갓지(갓김치)는 깔끔한 맛이 일품이라고 한다. 목포 지역 나이든 사람들은 김치를 “지”라 명칭한다. 봄날 갓을 소금물에 담궈 돌로 꺾꽂이 놓는다. 여름철 노랗게 맛이 든 갓을 꺼내 간물이 빠지도록 씻는 다음 물을 자박하게 붓는다. 다른 간을 하지 않고 다진 마늘만 넣어 시원하게 먹는다. 그렇지 않으면 물을 꼭 짜서 된장을 넣어 볶아서 먹는다. 볶을 때는 멸치나 마른 새우를 넣는다.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 갓지 하나에 보리밥만 먹어도 좋았던 시절이 있었다고 한다.

## 제4절 목포 사람들 주거 민속

집은 생활의 기본 단위로 추위와 더위, 비바람을 피하며 지낼 수 있는 장소이다. 가족 간에 사랑과 믿음을 서로 나누고, 함께 모여서 지낼 수 있는 장소이다. 기후 변화, 외부 환경으로부터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공간인 것이다. 집은 생활에서 지친 몸을 쉬게 하고 정신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게 해주었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많은 변화가 생겼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거 형태로 아파트가 대표적이다. 아파트는 좁은 땅에 많은 세대가 살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거주하는 사람들은 익명인 채로 살아가다 보니 층간 소음 문제 등으로 이웃 간의 갈등이 잦다.

요즘 사람들은 집이라는 공간이 휴식의 의미보다는 편리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기능주의적인 태도와 집의 경제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 1. 가난이 만들어낸 정스러운 골목길

목포 사람들의 주거 민속을 살펴보기 위해 옛정취가 가장 많이 남아 있다는 온금동과 서산동을 찾았다. 슬레이트와 양철 지붕으로 바뀌기 전에는 초가 지붕이었다. 작은 골목길에도 시대의 변화 물결이 불고 있다. 재개발을 앞두고 있거나 문화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시화가 장식되어 찾는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어느 순간 우리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공간이 될 날이 머지않았다.



그림 2 언덕 위에서 바라본 서산동, 마을 버스가 보인다.

예나 지금이나 가난한 동네, 하지만 이웃 간 정은 어느 지역보다 돈독했다. 문만 열면 이웃집 방안이 훤히 보일정도다. 서산동이라는 이름보다 보리마당이라 부르는 이름이 있고, 온금동은 별이 잘 들고 따스하다하여 ‘다순구미’, ‘다순금’이라 불렀다. 온금동은 ‘따스다’의 ‘다순’과 바닷가나 강가의 ‘후미진 곳’이라는 ‘구미’ 합성어로 다순구미라고 한다.

정감 있고 따뜻한 이름이 남아 있는 다순구미 온금동과 보리마당이 있던 서산동은 예전에 택시 기사들이 태워주지 않으려고 고개를 외로 틀어버린 곳이다. 지금은 “어서 오십시오” 반가워한다고 한다. 유달산 밑자락으로 대형 버스가 다닐 정도로 길이 생겼기 때문이다.

온금동하면 시 한 구절이 떠오른다.

“조금새끼 조금새끼 하고 발음하면 웃음이 나오다가도 금세 눈물이 나는 건 왜일까요? 도대체 이  
 피죄죄하고 소금기 묻은 말이 자꾸만 서럽도록 아름다워지는 건 왜일까요?”

김선태 시인의 「조금새끼」 이 시 속에 온금동과 서산동 사람들 삶과 운명이 묻어나기 때문일 게다. 온금동에는 본토박이들이 많고, 서산동은 인근 섬에서 온 사람들이 많다. 특히 진도 조도에서 많이 왔는데 남자들은 배를 타고, 결혼하기 위해 목포로 나온 것이다.<sup>15)</sup>

15) 정삼문(남, 73세). 2017년 1월 15일 조사. 온금동에서 살다 서산동으로 이사와 산 지 60년 정도 되었다고 한다. 고기잡이배는 풍선배부터 탔다고 한다. 고기잡이배를 타고 열게는 동지나 남지나까지 가서 조기, 부서를 잡았다. 다리가 아파 배 타는 일을 그만 둔 지 15년 정도 되었다.



## 2. 온금동과 서산동 골목길은 마당이자 텃밭

서산동과 온금동 사람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난하다. 집들의 특징은 마당이 없다. 마당이 없으니 텃밭도 없다. 골목이 마당이자 텃밭이다. 손바닥만한 땅에 채소를 심고 골목에 고무 통을 내놓고 채소를 심어 났다. 웅기종기 작은 향아리들이 나와 있다. 김치, 된장 고추장, 장을 보관한 향아리들이다.

화장실은 각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공동 화장실이 있었다. 재래식화장실에서 밑을 닦는 휴지는 신문지, 애들 공책을 찢어 사용했다. 화장실이 가득차면 밭에 내다 뿌렸다. 주로 채소밭이었는데 당시에 생무를 먹고 채독에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빗물을 받아 농사를 지었다.



그림 3 농사를 짓기 위해 빗물을 받은 물통

## 3. 온금동에 큰 시암 불망비

온금동과 서산동 사람들에게 일상 생활에서 먹는 물이 가장 힘들었다. 진도 조도에서 나와 50년 넘게 서산동에서 살았다는 한 주민이 자신을 밝히는 것을 꺼려하면서도 이야기를 들려 주셨다. 여자들은 물동우를 이고 지금 제주 산밭이라고 하는 곳까지 물을 길기 위해 갔다. 제주도 배가 닿기 때문에 제주 산밭이라 했다. 남자들은 뱃일을 하기 때문에 물 길는 것은 주로 아녀자들 몫이었다. 처녀들은 삼삼오오 물동우를 이고 가고 오는 길에 이야기꽃을 피웠다.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그림 4 온금동 공동시암(우물). 뒤쪽으로 '김영수시은불망비'와 '정인호시해불망비'가 있다.

온금동 골목길을 걷다보면 공동시암(우물)을 만난다. 큰 시암과 작은 시암이 있다. 큰 시암 옆에 '김영수시은불망비'와 '정인호시해불망비'가 있다. 정인호는 물이 부족하던 1920년대에 마을사람들

을 위해 돈을 내서 샘을 팠다. 김영수는 사람들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데 앞장섰다. 두 사람의 공을 잊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마을 사람들이 불망비를 세웠다.

#### 4. 목포에서 물을 얻어 마시면 짜다

목포는 일본인들이 거주하던 만호동에 일찍 수도 시설이 들어왔다. 제1수원지는 일본인들을 위한 물 공급지였다. 현재 목포실내체육관 밑에 수원지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목포시민들은 오랫동안 식수의 어려움을 겪었다. 온금동과 서산동 사람들이 물을 풍족하게 쓸 수 있게 된 것은 주암호와 장흥댐에서 물이 공급되면서다. 질적 양적으로도 좋아졌다.



그림 5 집안에 만들어 놓은 물 저장고

“목포에서 물을 얻어 마시면 맛이 짜다. 목포 사람들은 광주 사람들 오물 물을 먹고 산다”는 말이 돌기도 했다. 영산호 물을 치수해 사용할 때 말이다. 물은 풍족해졌지만 수질은 좋지 못했다.

서산동에 공동수도가 생겼다. 1원 통, 2원 통, 3원 통으로 물을 팔았다. 물지게로 지어 가져다 줄 때는 보통 3원이었다고 한다. 몇 년 전이냐고 물었더니 대부분 60~70년 전이라고 했다. 상수도 시설이 각 가정으로 공급이 되었으나 높은 지대에 자리 잡은 온금동과 서산동은 수도물 공급이 용이하지 못했다. 그래서 공동 수도를 만들어 놓고 물값을 받았던 것이다.

온금동과 서산동 사람들은 집안이나 담벼락에 수도꼭지가 달린 물 저장고를 가지고 있다. 그곳에 물을 저장하여 사용했다. 수도물이 각 가정까지 들어오면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목포 지역의 생활민속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다룬 생활민속은 대부분 일반 서민들을 대상으로 했다.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목포 사람들의 일상 생활 문화에서 밑바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 민족의 순수한 문화란 없다. 모든 문화는 타문화와 접촉하며 발전한다. 즉 전파와 이식을 통해 습합하고 스스로 풍부해지면서 형성되고 발전해 나간다. 목포 생활민속 역시 예외는 아니다.

엄수경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제1절 영달산(靈達山)

이윤선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초빙교수

제10절 유달산 해봉사

이윤선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초빙교수

제2절 유달산 노적봉

이윤선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초빙교수

제11절 갯바위 전설

이윤선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초빙교수

제3절 유달산의 장수

이윤선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초빙교수

제12절 고하도의 탕건바위(쭈바위, 복바위)

이윤선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초빙교수

제4절 유달산 호랑이

이윤선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초빙교수

제13절 보리 마당

이윤선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초빙교수

제5절 유달산 미륵불

이윤선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초빙교수

제14절 삼학도(三鶴島)의 내력

이윤선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초빙교수

제6절 유달산 야불과 부동명왕, 흥법 대사,

유달산신

이윤선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초빙교수

제15절 앞산과 뒷산의 민속놀이 이야기

이윤선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초빙교수

제7절 유달산의 풍수와 바위 이야기들

이윤선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초빙교수

제8절 달성사 옥정(玉井)

이윤선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초빙교수

제9절 유달산 보광사 짓샘

이윤선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초빙교수

## 제4장 목포의 설화

목포의 구비문학은 설화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고하도의 용머리는 용을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장좌도는 삼국 시대 백제의 어떤 장군이 살다 죽었다는 얘기가 전해온다. 하지만 용머리에 관련된 설화가 전해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근대기 이후 붙여진 이름이라고 생각된다. 또 유달산 노적봉은 설화적으로 이순신 및 임진왜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진도를 포함한 인근 지역에 강강술래터 등 관련한 이야기가 전해오기 때문이다. 유달산 각 바위들에는 각각의 이름들이 붙어 있지만 단편적인 이야기나 이름일 뿐 서사적 구성을 갖는 이름이 거의 없다. 하지만 지명전설에서 보듯이 바위 이름 하나 지명 하나가 모두 구비문학이란 맥락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금은 양을 산이라고 하지만 본래는 비네산(비녀산)이라고 했다. 형국이 여자의 비녀를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신명여상과 향도여중이 있는 골짜기는 대삽제 참새골이라고 했다. 참새들처럼 사람이 많이 들끓을 것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데 지금 그 이름대로 사람이 많이 들어와 살고 있다. 본 항목에 굳이 이를 추가시킨 이유이기도 하다. 인근 지역에 비해 목포는 구체적인 이야기로 완결되어 전승되어 내려오는 것은 아니다. 이외의 유달산 종교나 설화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 이 설화들이 목포의 정체와 어떻게 부합되는지는 알지 못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화가 가지는 지역적 특성, 장소성을 비롯 민간의 투사된 마음들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본 항목의 서술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어찌 되었든 기왕의 목포시사에 수록된 설화 몇 편과 연구 논문들에 흠어져 있는 자료들을 수합 정리해 목포의 구비문학편을 서술한다.<sup>01)</sup>

01) 이 글은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6, 무안현, 관방조; 『신증문헌비고』 권27, 여지고15, 관방3, 전라도성곽조; 목포문화원, 『목포지』, 1991, 향토문화사; 진도군·목포대박물관, 『임진·정유왜란과 진도』, 1992, 삼화문화사; 『유달산』, 목포시, 1990; 홍미희·엄수경, 『상리사람들』, 상리애향회, 2009 등을 참고하였다.

## 제1절 영달산(靈達山)

영달산은 유달산의 또 다른 이름이다. 사람이 죽으면 영달산 울동바위(일등바위)에서 영혼이 심판을 받은 뒤 일단 이등바위(이동바위)로 옮겨져 대기한다고 한다. 저승길에서 극락세계로 가는 영혼은 3마리 학(삼학도)이나 고하도 용머리의 용에 실려 떠나고 용궁으로 가는 영혼은 영달산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구도라는 섬으로 가서 거북이 등에 실려 용궁으로 떠난다고 한다. 유일하게 바닷가에 위치해 있는 유달산은 영혼이 거쳐 가는 곳이라 하여 영달산이라고 불렀다. 일등바위는 영혼이 심판을 받는다 하여 울동바위라고 불렀다. 이동바위는 영혼이 이동한다 하여 이동바위라고 불렀다.

## 제2절 유달산 노적봉

노적봉은 임진왜란 특히 명량대첩과 관련해 인근 지역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설화다. 유달산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바위가 아닌가 싶다. 이순신 장군이 이 노적봉에 마람을 이어 식량으로 위장하고 부녀자들을 시켜 강강술래를 하게 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해발 60미터이다. 이 봉우리를 이영으로 이어서 멀리서 보면 마치 군량미를 쌓아놓은 큰 노적처럼 보이게 했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물 아래로는 백토를 파다가 씻어서 하얀 물을 바다로 흘려보냈고 왜적들이 쌀을 씻은 쌀뜨물인 줄 알고 물러났다는 전설이 전한다. 자료에 전하는 노적봉 얘기를 순서대로 인용 정리해 본다.

- ① 임진왜란 때 병력은 모자라고 일본은 쳐들어올라고 그러니까 마람을 만들어서 산에다 둘렀단 말이여. 옛날에 거가 청계산이라 했으니까 즉 우리 군사가 이렇게 많다 해서 일본 사람들이 침입을 못하도록 위협을 주기 위해서 주위에다 마람을 둘렀다 해서 '노적봉'이라 했드만.
- ② 목포시 대의동 2가 1의 120번지에 위치한 노적봉은 한때 초등학교 교과서에 소개되어 더욱 유명해졌다. 임진왜란 때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는 적은 군사로 많은 왜적을 물리치기 위하여 이 봉우리에 이영을 덮어 아군의 많은 군량미로 위장함으로써 우리의 군사가 엄청난 것처럼 보이게 하여 미리 겁을 먹은 왜군이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가게 하였다.
- ③ 옛날 이순신 장군이 참전 당시에 영산강에 횃가루를 풀어서 쌀 양식이 있는 그런 격으로 대용을 하고 노적봉에다는 마람을 둘러놓고 그것을 말하자면 곡창으로 가장을 해서 그랬다고 그러드만.

④ 이순신장군이 저기 동해안 쪽에서 수문장으로 근무하실 때였던가? 그러다가 김 뒤편이라는 사람에게 모함을 받았더라구. 일본놈이 오게 생겼으니깐 잔뜩 다복해져서 백의종군 시켰다고. 그 전에 이순신 장군께서 계실 적에 배 지은 자리가 저기 저 고하도여. 농장이 있는 자리여. 일본 사람들도 거기서 배를 지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놈들 눈을 속이고 전투상으로 이길까 고심하던 차에 저기 해남 우수영, 진도 벽파진 울돌목이란 디에 그 근처에다 강강술래를 시켰제. 그리고 1,700명 수군을 데리고 이순신 장군이 해남 우수영 쪽에 쇠말을 박고 진도 벽파지에 쇠말을 박고, 땅속에다 물레살 같은 굴뚝 박고 물을 가라앉혀 놓고 저쪽에서 강강술래 하고 아놀라 치면 일본놈 오는 신호란 말이며, 오때 요기다가 노적봉에다 마람을 씌워서 군량미 같이 위장하고 영산강에다 헛가루를 풀어 군량미 씻는 쌀뜨물로 위장을 하고 거기서 일본놈이 올라치면 빵빵이 건들 것 아니라고. 그러면 물속에다 가라앉은 것이 오라올 것 아니라고. 거기에 걸렸다 칠라치면 곤두박질 해서 들어가 버려. 지금도 그쪽으로 나당기는 배가 많이 있기는 있는데, 저 육지에선 배가 못 올라와요. 워낙 물살이 세니까, 그렇게 해서 일본놈들 배를 몇 백척을 수장해 버렸제.

⑤ 충무공이 여그서 주로 이 해역에서 많이 싸웠기 때문에 노적봉을 맨들어 가지고 인자 그 싸웠다는디 노적봉의 유래라고 하면 임진왜란 때 충무공의 전술이 구식 전술이란 그 말이며, 그만큼 인자 충무공은 우리보다 한발 더 깨쳤다 물레 그런 요량을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아니 노적봉이 시방 이 노인당 옆에 이 바위보고 노적봉이라고 하는데 전술도 어찌게 했는고 하니 짚으로 엮은 마람 응집마람 집마람으로 이어 가지고는 노적가치로 맨들었어. 노적가치로 맨들었다 그말이며. 그레 놓고 일부 군사들을 시케다가 저 육에 영산강 육에서 저그저 황투물 거 그것을 인자 막 비벼жат혀 그러면 인자 물이 내려갈 것 아니여? 백황투제 백황토 백토여 잉, 이것이 쌀가린지 알고 쌀뜨물 내려 간 것 같이 가장을 해가지고는 이렇게 해 놓았는디 일본놈들이 저기 바깥에서 인자 한참 여 들어 올라고 들오와 보면 아 노적베늘이 마람 이어 갖고 이렇게 군량이 보이고 또 쌀뜨물이 내려간 것을 보니까 군사가 얼마나 있고 군량이 얼마나 있을테면 저렇게 노적베늘을 싸 놓고 있었냐 이것을 두려워해서 아이고 우리가 들어갈 디가 못된다 그래서 그냥 후퇴했다고 그레.

위 다섯가지 구술 자료에서도 나타나듯이 노적봉은 유달산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명량대첩의 현장이었던 해남과 진도지역에도 노적봉이 있다. 특히 망금산에서는 부녀자들에게 강강술래를 하게 했다는 강강술래터가 남아 있다. 진도군 대사리 도암산에도 노적봉이 있고 벽파진에도 노적봉이 있다. 해남 옥매산에서도 하얀 옥가루를 타서 조수를 이용해 물에 내려보냈고 왜구들이 이를 보고 쌀뜨물

로 오인해 쳐들어오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우수영에서는 진도쪽 망금산 아래 오지바우가 있는데 이를 노적봉이라 한다. 목포 유달산을 중심으로 해남의 백방산 노적봉, 성매산 노적봉 등 넓게 분포해 있다. 따라서 유달산 노적봉은 임진왜란 찢뜨물 설화가 전해오는 서남해 장소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소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 제3절 유달산의 장수

유달산은 악산이어서 잘되면 충신이고 못되면 역적 된다는 말이 있다. 자료에 나오는 관련된 전설을 여기 인용한다. 어렸을 때 할아버지들한테 들은 얘기다. 약 7~8백년 전에 목포에서 한 장군이 태어났다. 이 장군은 아주 가난한 집안의 과부 아들이었다. 본래가 용맹한 기질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예를 닦아서 출중했던 모양이더라. 그래서 조정에 들어서 벼슬을 하게 되었다. 지금 같으면 가장 낮은 무관에 급제했던 모양이다. 뛰어난 무예가 있어서 결국 그 당시에 소장이라는 지금 같으면 장군 중에서도 가장 아랫 장군을 맡았던 것인데, 역적 모의를 했던가 보더라. 지금으로 말하면 쿠데타 계획이다. 그래서 결국 역적으로 몰려 잡혀 죽었다고 한다. 이 장군의 성씨가 강씨였다. 정부에서는 유달산에 살고 있는 강씨의 어머니를 찾아 뒤지게 되었다. 강씨 어머니를 체포했는데 남자 같으면 호걸로 생기고 키끌도 좋고 우락부락하게 생겼던 것이다. 역적의 어머니이므로 이 여자도 죽여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나졸 한 명을 시켜서 어머니의 사타구니를 검사하게 했다. 그랬더니 음모가 한 바퀴를 돌고도 남을 만큼 길었다. 과연 역적을 낳을 만한 여자로다. 그래서 어머니까지 사형에 처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만약 죽이지 않고 놔두면 또 역적이 될 아이를 낳게 되니 말이다. 그래서 유달산에는 잘되면 충신이고 못되면 역적이 된다는 말이 생겼다고 한다.

### 제4절 유달산 호랑이

유달산에 호랑이가 살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전해 오는 이야기이니 그저 설화에 지나지 않지만 유달산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전해 온다. 1899년 유달동에 살고 있는 일본인 후지모리 리베에, 야마모토 이와기찌, 마스마에 다메노스께 세 사람이 유달산으로 등산을 갔다. 일등바위 근처에 이르러 잠시 쉬려고 하자 그곳을 지나던 한국 사람이 그 바위 근처에는 가끔 호랑이가 나타나니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혼비백산하여 그 자리를 피했는데 그 후로 자세히 들으니 유달산에 호랑이가 포효하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고 한다. 1930년에 발간된『목포부사』에는 “눈이 내린 뒤에는 유달산에서 내려 온 호랑이 발자국이 인가 근처까지 선명하게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기록이 있다.

## 제5절 유달산 미륵불

미륵불은 미륵 불교와 관련이 있다. 하지만 본 항목에서는 삼학도 세 처녀에게 화살을 쏜 선비 바위라는 측면에서 서술한다. 달성사에서 유선각쪽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 하늘에 닿을 듯 높은 절벽 하단에 거대한 글자가 새겨져 있다. 높이는 13미터이다. 달성사 주지였던 노대련 대선사가 조성하였다고 전한다. 삼학도 전설과 관련하여 이곳에 있던 선비가 삼학도의 세 처녀가 타고 가는 배를 향해 화살을 쏘았다고 하는 곳으로 기억될 만하다.

## 제6절 유달산 야불과 부동명왕, 홍법 대사, 유달산신

지금은 터만 남아 있다. 목포 개항 35주년 기념 행사의 하나로 일인들이 1932년 유달산 전역에 88기의 돌부처를 세웠다. 전하는 말로는 108기라고도 한다. 그 형태가 마치 수많은 도깨비들이 유달산 등산로 요소요소마다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해방 이후 하나둘 도굴 당해 없어져 버렸고 현재는 그 흔적만 남아 있다. 부동명왕은 대일여래가 모든 악마와 번뇌를 항복시키기 위해 분노한 모습으로 나타난 오대명왕의 하나다. 1920년대 말 일인들이 일본 불교의 부흥을 꾀하기 위해 일등바위 아래쪽 암벽에 조각했다. 특별한 설화가 연결되어 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더러 사람들이 찾아와 불공을 드리기도 한다. 부동명왕상 아래쪽 50미터 쯤에 홍법 대사상이 조각되어 있다. 1920년경 새겨졌을 것으로 추정한다. 일본 불가에서 숭배하는 일본 승려다. 일인들이 자기들이 숭배하는 승려의 조상을 새겨 신앙심을 고취시키려 했지만 지금은 조각만 남아 있을 뿐이다. 바로 옆에는 유달산신(사)라는 글자를 조각해둔 바위가 있다. 사(社)는 훼손되어 희미하다. 조성 시기는 부동명왕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별다른 설화가 연계되어 전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일인들에 의해 새겨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 제7절 유달산의 풍수와 바위 이야기들

유달산은 바위산이다. 신선이 춤추는 형국이라 한다. 목포여중 뒤편에 있는 빈민촌이라 불렀던 언덕이 신선의 오른 팔, 측후소 부근이 왼팔, 목포대(木浦臺)를 북(鼓), 삼학도를 탕금(거문고 또는 가야금)으로 보기도 한다. 신선이 거문고와 북을 치며 춤을 추고 있는 형상이라는 것이다. 혹은 유달산을 부처님 형상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일제 때는 82기(혹은 108기)의 야불을 세웠다고 한다. 또한 유달산을 중이 바릿대를 들고가는 형상이라고도 한다. 바릿대에 곡식이 다 차면 바람에 부

어버려 빈 바릿대가 되므로 목포에서 부자들은 많이 나오는데 오래가지 못한다는 속설이 여기서 나왔다.

이외에 고래바위 혹은 두꺼비바위가 있다. 일등바위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바위를 말한다. 고래처럼 생겼다 해서 고래바위라고도 하고 두꺼비바위라고 한다. 특별한 설화가 연계되어 전해져 오지는 않지만 유달산이 서남해의 중심 산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스토리텔링이 필요해 보인다. 쥐바위는 탕건바위편에 다룬다. 흔들바위는 일등바위와 이등바위 사이에 있는 바위다. 밀면 아래로 굴러 내려갈 것 같은 바위다. 하지만 밀어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한편 이 바위가 고래를 닮았다 해서 고래바위라 부르기도 한다. 관운각 앞에는 거북바위가 있다. 마치 거북처럼 납작하게 엎드려 있는 바위다. 이외에도 거북바위로 불리는 바위들이 몇 개 있다. 일등바위에는 손가락바위가 있다. 둘째손가락을 조금 구부리고 있는 형태여서 붙여진 이름이다. 일등바위에서 관운각 쪽으로 내려오는 길목에는 마당바위가 있다. 장정 10여명이 앉아서 놀 만한 규모의 바위다. 마당같이 넓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바위에서 옛날에 봉화불을 피웠다는 이야기가 전해 온다. 관운각 앞에는 애기바위가 있다. 큰엄씨, 작은엄씨 바위라고도 한다. 큰엄씨가 애기를 업고 작은엄씨에게 등을 돌리고, 작은엄씨도 애기를 업었는데 큰엄씨를 보려고 하는 형상이다. 바위 모양새에 따라 이름 지어졌을 뿐 특별한 설화는 없다.

## 제8절 달성사 옥정(玉井)

달성사 내에 있는 샘을 말한다. 이 옥정에 얹힌 설화는 삼학도 설화와 같은 내용이다. 연혁지에 기록되어 있는 옥정의 유래를 여기 인용해 둔다. 옥정은 원래 불전에 감로수로 사용하기 위해 판 것이다. 1923년 초대 주지인 노대연 선사가 원력을 세우고 백일치성 기도 중에 영암 출신 현기봉 거사가 현중호를 위하여 심신을 공동발심하여 암굴 30척을 굴착하여 완성한 우물이다. 백일기도 영험을 입어 만 100일 만에 생수가湧출되었다. 지금까지 부정한 사람이 마시거나 또는 몸을 씻는 데 사용하면 옥정물이 일시에 없어지고 만다. 극심한 한발에도 수원(水源)은 마르지 않고 염천폭서라도 영수와 같고 많이 마셔도 복통이 없다. 이런 샘으로 달성사 옥정이 유일무이한 샘물이라고 한다.

옥정에는 몇 가지 얹힌 이야기가 있다. 오래 전 유달산에 한 선비가 글공부를 하고 있었다. 이웃에 사는 세 자매가 매일 선비에게 물을 떠다 주었다. 유달산 바위산이라 물이 나올 만한 곳이 없는데도 매일같이 물을 떠다 주는 정성을 보였다. 선비는 이 세 자매가 글공부에 방해가 된다 생각하여 다른 곳에 가서 기다리도록 했다. 세 자매가 배를 타고 떠나자 선비는 그때서야 세 자매가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한 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배를 떠나지 못하게 배를 향해 활을 쏘았는데 배 밑이 뚫리면서 배가 가

라앉게 되었다. 배가 침몰하자 세 자매는 학이 되어 날아 앉았다. 그곳에 세 개의 섬이 생겼다. 이때 세 자매가 물을 얻은 곳이 이곳 옥정이라고 한다. 또 한 이야기가 있다. 경기도에 사는 정 보살이라는 분이 해년마다 옥정에서 물을 길어 간다. 정 보살에게는 자식이 태어나도 3년을 못 넘기고 죽는 불행한 일이 계속 일어나던 참이다. 그렇게 두 명의 자식을 잃었는데 하루는 법당 옆에 있는 샘의 물을 마시면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현몽하였다. 우물을 찾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다. 중국에는 이곳 유달산 달성사 옥정을 찾게 되어 자식을 살릴 수 있었다는 얘기가 전해온다.

## 제9절 유달산 보광사 짓샘

보광사 석조미륵상 아래 있는 샘을 말한다. 산고가 들었을 때 효험이 있다는 샘이다. 일제강점기 때까지만 해도 죽교동, 북교동, 남교동, 양동, 대성동, 온금동 주민들이 이용했다고 한다. 주민들은 산고가 들면 짓샘에서 물을 길어다 미역국을 끓여 산모에게 먹였다. 또한 산모의 젖이 부족할 경우 옹기 두 개에 끈을 매달아 짓샘에 띄우고 젖을 많이 달라고 기도한 다음 그 옹기에 샘물을 채워서 집으로 가져가 조왕신에게 빌었다고 한다. 짓샘에서 축원 기도를 할 때는 주술문을 “해동조선 전라도 목포 모동 모씨의 남녀 산신님께서 굿어 살피사 젖을 태워주시고 수명장수하게 하시고 두루 두루 살피어 많은 복을 내리소서”라고 수십 번 반복하면서 기도한 후 물을 길렀다고 한다.

## 제10절 유달산 해봉사

해봉사가 건립된 유래를 살펴보면 창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최학송 스님과 관련된다. 최학송 주지는 본래 장성군 황룡면 사람이다. 일제강점기 중기까지 장성에서 살았다. 어느날 꿈에 목포 유달산에 도인이 내려오는 것을 현몽하였다. 꿈에서 깨어 곧바로 목포로 달려온 최학송은 도인이 내려온 자리를 찾아 해봉사라는 사찰을 창건하였다. 해봉사와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당시 여수 시장 김영하가 해봉사에서 기도를 드리다 잠이 들었는데 꿈에 관세음보살이 나타나 천한 사람이 찾아오더라도 그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고, 만약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동쪽으로 가라, 그곳에서 상복을 얻을 것이니 상복을 입고 묘에 옆드려 있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음날 아침 고기장수가 시장을 찾아왔다. 이에 김 시장은 고기 장수에게 따뜻한 아침을 대접하였다. 그후 1947년 경 여순반란사건이 일어나자 꿈에 일러준대로 동쪽으로 가니 상을 당한 집이 있었다. 상복을 얻어 입고 묘에 옆드려 있는데 좌익들이 왔다. 당시에는 죄를 짓지 않더라도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죽이던 때였는데 상복을 입은 김시장을 보고 목숨을 살려주었다고 한다. 6·25전쟁 때 이 절에 아



군의 함포 폭발탄이 떨어졌으나 크게 소실되지 않았다 한다. 또한 이곳을 생자기복 즉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 터라고 한다. 지금도 예불을 게을리 하면 법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한다.

## 제11절 갯바위 전설

목포의 산정동(山亭洞) 남쪽 바닷가에 있는 바위 이름이다. 행정 구역상 용해동(龍海洞)에 속한다. 보통 성자동(聖子洞)이라 한다. 이 성자동의 주봉을 입암산(笠岩山)이라고 한다. 갯바위가 바위를 세워 놓은 형상이니 여기서 이름을 딴 것이다. 목포시 원도심 중심부에서 4km의 거리에 위치한다. 하지만 하당이 개발되고 난 후 오히려 이곳이 휴계의 중심이 된 듯하다. 갯바위 아래편으로 데크 시설을 해놓아 앞쪽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갯바위에서 바라보면 부흥산(復興山)과 문도(文島), 나불도(羅佛島), 영암의 두리봉 등이 동남쪽으로 펼쳐져 있는데 하당이 개발되어 수많은 아파트 단지들을 볼 수 있다. 앞쪽으로는 영암 해안의 중소형 조선소 선박들이 즐비하다. 서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목포 시가지와 유달산, 삼학도 등이 보인다.

바닷가에 서 있는 이 갯바위는 한 쌍이다. 바다를 향하고 서 있는 이 바위는 큰 것은 8m 가량, 작은 것은 6m 가량이다. 데크 시설이 놓이기 전에는 배를 타고 나가야 전면의 풍경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갯바위의 위용을 바라다볼 수 있게 되었다. 전설로는 큰 바위는 ‘아버지 바위’이고 작은 바위는 ‘아들 바위’라 한다. 둘 다 머리에 삿갓을 쓴 형태여서 갯바위라 했다. 하지만 아들 바위의 삿갓이 아버지 바위보다 좀 더 근사해 보인다.

목포는 1897년에야 일본인들이 한국 침략의 서남 거점으로 개항해 오늘날처럼 도시로 발전했다. 하당이 개발된 이후로는 이곳이 휴계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 전에는 영산강 하구를 지키는 보잘 것 없는 나루로 조그만 마을이 있었을 뿐이다. 갯바위와 관련한 전설을 소개한다.

이 갯마을에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병든 아버지를 모신 가난한 소금장수 청년이 살고 있었다. 그는 포구에 실려 오는 소금을 받아 인접마을에 팔아서 끼니를 이어갔다. 가난하여 약 한 첩 제대로 쓸 수 없었다. 옆친 데 뿔친 격으로 청년의 아버지는 날로 병환이 악화되어 갔다. 청년은 안타깝기만 했다. 그는 스스로 큰 결심을 했다. 이번에는 아버지 약값을 충분히 벌어야 집에 돌아온다고 다짐했다. 힘에 겹도록 소금 짐을 짊어지고 떠났다. 그러나 딱하게도 소금을 사려는 사람이 없었다.

빈손으로 집에 돌아갈 수 없었던 청년은 날품이라도 팔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부유해 보이는 길가 집으로 찾아 들었다. 그 집 주인은 소문난 구두쇠였다. 청년은 한 달 동안 일을 하고 품삯을 달라고 요청했다. 집주인은 “그 동안 먹여준 밥값도 못한 주제에 품삯은 무슨 놈의 품삯이냐”며 청년을 내쫓

아 버렸다. 청년은 아버지 약값을 구하지 못하면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한 터라 길거리에 주저앉아 신세한탄만 하고 있었다.

때마침 그 마을을 지나던 도승이 청년을 보고 물었다. “무슨 걱정거리가 있어서 그리 한숨을 쉬느냐?” 청년은 자초지종 처지를 말했다. 얘기를 들은 도승은 크게 낯색이 변하며 청년을 꾸짖었다. “청년은 한 가지만 생각했지 깊은 생각이 부족했네, 자네가 약값을 마련하겠다고 타향을 전전하고 있는 동안 병든 아버지는 누가 돌보겠는가, 그동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애써 약값을 마련했다 한들 무슨 소용 있겠나?” 그때서야 병든 아버지를 생각한 청년은 부랴부랴 집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돌보는 이가 없어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었다. 청년은 그의 어리석음이 한없이 후회스러웠다. 이승에서 편히 지내지 못한 아버지이지만 저승에서나 편히 쉬게 하는 것이 그의 도리라 생각하고 관을 메고 명당을 찾아 나섰다.

갯바위는 예부터 말 형국으로 명당이 있고 안장터가 있다는 얘기가 전해왔다. 산을 헤매던 청년은 지금의 갯바위 곁에서 앞을 바라보았다. 시원하기 그지없고 양지바른 곳이었다. 이곳에 묘를 쓰기로 마음을 먹었다. 관을 바닷가에 놓고 묘를 파던 청년이 실수를 저질렀던 것인지 곁에 둔 관을 건드렸던 것인지 관이 데굴데굴 굴러 바닷 속으로 침병 하고 빠지고 말았다. 났을 땀은 청년은 행여 관이 떠오르지 않을까 기다렸으나 영영 떠오르지 않았다.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영영 올턴 청년은 하늘을 쳐다볼 수 없는 놈이라며 바다로 뛰어들어 자살하고 말았다.

이 일이 있은 뒤로 이곳에 아버지 바위와 아들 바위가 솟아올랐다. 아들은 죄진 몸이라 하늘을 대할 수 없다 하여 삿갓을 쓰고 있었다. 이 삿갓은 넓이가 6m 가량이고 한쪽 길이 2m가량이나 된다. 청년이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뾰다는 바위의 윗부분은 바위가 널리 깔린 탓인지 풀이 자라지 않았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청년이 파헤쳐 놓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편 마을 부근에서는 이 바위를 중바위라 부르는 이도 있다. 스님이 삿갓을 쓴 형태와 비슷해서 나온 말일 것이다. 또는 아라한(阿羅漢)과 부처님의 바위라고도 한다. 이들이 영산강을 건너 이곳을 지날 때 쉬던 자리에 쓰고 있던 삿갓을 놓고 갔다는 것이다. 그 삿갓이 변해 오늘날의 갯바위가 되었다고도 주장한다. 이후 이곳은 누씨 집안의 선산이 되어 여러 기의 묘가 들어서게 되었다. 하당이 개발된 이후는 데크 시설이 놓여 목포시의 중요한 관광지 중 하나가 되었다.

## 제12절 고하도의 탕건바위(쥐바위, 북바위)

서산동 맞은편에 고하도(高下島)라는 섬이 있다. 이 섬의 옛 이름은 지형 생김새로 고하도(孤霞島)라 했는데 이 곳에서 유달산을 바라보는 경관이 좋아 시인묵객이 많이 몰려 보화도(寶花島)라고 했다

고 한다. 몇 가지 설화가 전해져 온다. 바위 건너편에 노적봉이 있는데 노적거리 앞에는 쥐가 살아야 한다는 풍수설에 의해 쥐바위라고 불렀다는 설이 있다. 혹은 이 바위에서 공을 드려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북바위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는 탕건바위라고 하는데 생긴 모양이 마치 탕건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본 항목에서는 이 탕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서술한다.

이 고하도의 동쪽의 목포 등대가 바라보이는 곳을 ‘뒷도랑’이라 하고 이 곳 산 아래 탕건바위가 있다. 이 바위는 폭이 150cm, 높이가 170cm로 생김새가 옛날 상투머리에 쓰는 탕건형이며 이 바위 3m 밑에 샘이 있다. 이 탕건바위에서는 고하도에 가뭄이 심해지면 기우제를 지내는 탕건바위놀이가 벌어진다. 양반이 쓴 탕건처럼 생긴 이 바위에 돼지를 잡아 제물로 바쳐 큰 줄로 탕건바위를 끌어당기면서 남도 특유의 설소리와 농악을 올린다.

탕건바위 밑에는 옛날 힘센 장수가 많은 금은보화를 숨겨둔 곳이 있다 한다. 일설로는 궁녀가 숨겼다고 하는 전설도 있다.

“양반의 탕건에 돼지의 생피가 흐르는 것을 하나님이며 큰 비를 내려 그 빗물로 말끔히 씻어 주사이다.”라는 기원과 비를 내리지 않으면 탕건바위 밑에 숨겨져 있는 금은보화를 파내겠다는 위협의 무격적(巫覡的)인 주술성(呪術性)을 가진 놀이로 간절한 기원과 순박한 유형이 담겨져 있다.

탕건바위 기우제는 탕건바위를 돌며 농악을 올린 뒤 제상(祭床)이 나오면 산 돼지를 탕건바위 위에 얹어 놓는다. 제주가 절을 올리면 모든 줄꾼과 농악대가 함께 절을 올린다. 제주가 크게 외치면서 기원을 한다.

“천지지신은 화위동심하사 이 땅에 큰 비를 내리게 하소서. 비를 내리소서. 만일 비를 내리시지 않는다면 바위 밑의 금은보화를 모두 파겠습니다.”

이때에 농악이 올리면서 탕건바위에 줄을 걸어 끌며 매김소리를 받아 줄꾼들이 설소리에 맞춰 줄을 끄는 것이다.

‘얼얼러 상사뒤여/ 비야 비야 내려라 얼얼러 상사뒤여/ 비가 오지 않는다면 금도 캐고 보화도 캐네/ 얼얼러 상사뒤여/ 나랏님이 숨겨놓은 금은보화 찾아가세 장군님이 숨겨놓은 금칼보화 찾아가/ 얼얼러 상사뒤여/ 우리목숨 부지하세.

금 나온다. 금 나온다./ 얼얼러 상사뒤여/ 이것저것 찾아가다/ 우리목숨 이어가세. 탕건바위 혈어 분다./ 얼얼러 상사뒤여’

이렇게 노래로 위협하고 탕건바위 위에서 돼지를 잡아 생피를 뿌리고 제주가 발원하면 ‘양반 탕건에 무슨 피가 / 얼얼러 상사뒤여/ 비내려서 저 피 닭소/ 얼얼러 상사뒤여/ 저 비 내려 농사지면/ 부모 공양하며 처자식을 교육하세’ 하며 노래를 부르고 모닥불을 놓아 탕건바위를 묶었던 밧줄을 태우고 농악을 울리며 춤을 추고 놀다가 꺼진 모닥불의 재를 담아 논밭에 뿌리고 놀이는 끝이 난다. 탕건바위를 묶었던 밧줄재는 풍년 들게 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 제13절 보리 마당

유달산의 ‘일등바위’와 ‘이등바위’ 사이의 능선에 ‘보리 마당’이 있다. 옛날에는 이 주변이 보리밭이어서 이 곳에 와서 보리 타작을 하게 되어 보리 마당이란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또는 유달산에 봉수대가 있었을 때 봉수대를 관리하던 둔전병(屯田兵)들이 보수로 준 둔전일결(屯田一結)을 지급받은 밭곡식을 타작했던 터라고 전해 온다. 그러나 사실은 유달산 봉수 봉줄들이 지내던 초소 터 자리이다. 한편, 서산동에도 ‘보리마당’이라는 동일한 지명이 있다. 서산동 골목을 오르면 언덕배기 위에 평평한 터가 있다. 예전에 이곳 주민들이 보리타작을 하던 곳이다. 최근에는 보리마당 아래에 위치한 가맥집(일명 할매집)으로 오히려 유명세를 타고 있다.

### 제14절 삼학도(三鶴島)의 내력

삼학도는 유달산과 함께 목포의 상징적 존재다. 지금은 육지의 일부분이 되었지만 옛날엔 배를 타고 건너가 유희를 하고 사랑을 다짐하던 공원과도 같은 항구의 섬이었다. 당시 섬의 넓이는 동쪽의 가장 큰 섬이 약 43,000평이고, 가운데 섬이 13,000평, 서쪽 섬이 7,000평으로 제일 작았다. 이 섬은 목포 만호청의 땔나무를 했던 곳이다. 이 관계로 일반의 출입이 통제되어 갖가지 고목이 울창하여 사시사철 푸른 숲이 하늘을 뒤덮고, 무심한 물새들만 넘나들어 지저귀 따름이었다. 1897년 목포항이 일본인에 의해 개항되자 많은 상인들이 몰려들고 외국 문물과 잡화 등이 성업을 이루었다. 삼학도에도 역시 사람이 들어가 살았다. 1928년 유달산이 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이 섬에도 많은 관광객이 몰려와 낚시와 놀이로 즐겼었다. 지금은 제방을 쌓아 육지가 되어 섬 복단에 있는 갯바위 일대는 과수원이 많은 녹지대를 이루고 있으며 낚시터로도 애용되고 있다. 이 섬들이 모습을 바꾸기 시작한 것은 6·25직후인 1954년의 일이다. 목포항이 비좁고 대형 선박의 정박이 어려웠기 때문에 10,000톤 급 이상의 선박을 정박시키고자 신항 공사를 착수했다. 3년만에 삼학도는 육지가 됐다. 1962년에는 이르면 입암리와와의 사이가 매립되어 완전히 섬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렸다. 이 섬은 모습이 학처럼 보

여 삼학도라 불리워졌다. 하지만 삼학도라는 이름에 대해 예로부터 전해 오는 전설이 있다. 삼학도의 전설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전해 온다. 첫째는 수도를 우선하는 경우, 두 번째는 사랑을 우선하는 경우, 세 번째는 수도와 사랑이 양립하는 경우 등이다. 여기서는 그 중 대표성이 있는 이야기를 전 재한다.

옛날 기품이 당당하고 이목이 수려한 젊은 장사가 유달산에 홀로 살고 있었다. 때로는 시와 노래를 읊조리고 칼쓰기, 활쏘기를 하면서 어느 누구와 사귀려 하지도 않고 두문불출 수도에만 열중하고 있었다. 이 유달산 밑에 갯마을이 있는데 이 갯마을에는 아주 예쁜 처녀 셋이 살고 있었다. 이 세 처녀는 산밑 우물가로 종종 물 길러 오는 이 낯선 젊은이에게 제각기 짝사랑으로 가슴을 죄게 되었다. 서로 산 위에까지 물을 길러다 주는가 하면 빨래를 해 주거나 밥을 해 주는 등 온갖 호의를 베풀며 서로가 사랑을 전하기에 바빴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왕자라고 했지만 어디서 온 누구인지도 확실히 몰랐다. 다만 세 처녀는 자신들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낄 뿐이었다. 수도를 위해 이 산에 들어온 젊은이는 세 처녀의 친절과 유혹에 견딜 수 없었다. 드디어 젊은이는 굳은 결심을 하고 세 처녀를 불러 간곡히 부탁했다. “저의 젊은 꿈이 깨지기 전에 멀리 떠나 주시오.” 진정으로 젊은이를 사랑하던 세 처녀는 사랑하는 이를 위해 마을을 버리고 멀리 떠날 것을 다짐했다.

새벽을 틔타 작은 배에 오른 세 처녀는 포구를 떠나며 정들었던 마을과 그들의 가슴을 메이게 한 산 기슭을 향하여 눈물어린 얼굴로 손을 흔들었다. 멀리 산위에서 이 처녀들의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된 청년은 마음을 견잡을 수 없었다. 처녀들을 보내 버리고는 수도도 할 수 없을 만큼 자신도 사랑에 빠져 있음을 발견했다. 젊은이는 소리쳐 세 처녀를 불렀다. 떠나지 말고 돌아오라고 목이 메어 불렀으나 청년의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음인지 세 처녀를 실은 배는 점점 멀어져 갔다. 산을 뛰쳐 내려와 바닷가에 서서 뱃전을 향해 활을 쏘았다. 활에 맞아 구멍이 난 배는 가라앉아 버렸다. 청년은 애 타게 세 처녀를 부르며 바다에 뛰어들어 가라앉는 배를 향해 헤엄쳐 갔다. 청년이 그 곳에 당도하기도 전에 세 처녀는 학이 되어 하늘로 올랐다. 학이 오른 자리엔 나란히 섬 세 개가 생겨났다. 청년은 울면서 산에 돌아와 삼학도를 바라보며 이는 하늘이 자신을 시험한 것이라 깨닫고 열심히 수도하여 큰 장수가 되었다. 이리하여 삼학도라고 부르게 되었다(전설을 말하는 사람에 따라 수도했다는 젊은이가 도승도 되고 장수도 되고 선비도 된다.).

## 제15절 앞산과 뒷산의 민속놀이 이야기

유달산은 두 개의 줄기가 팔처럼 뻗어 동산을 이룬다. 앞산과 뒷산이 그것이다. 뒷산은 북교초등학교 뒤편을 말한다. 앞산은 달성동 동사무소 건너편 언덕을 말한다. 음력 정월 대보름날이면 앞산과

뒷산이 편을 갈라 불싸움을 했다. 여러 집에서 각출하거나 훔쳐 온 엽송 다발과 장작개비로 모닥불을 피워 앞산 불과 뒷산 불의 크기로 승부를 정하는 놀이다. 목포역 기관구에서 주워 온 기름 걸레를 벌집처럼 구멍을 뚫어 깡통 속에 넣고 철사줄을 달아 햇불놀이도 하였다. 겨울철이면 연날리기도 하고 유리 조각을 쪼아 가루를 만들어 풀에 섞은 다음 재봉실에 ‘사’를 먹이고 그 실에 ‘구마리 장군연’을 달아 연싸움을 했다. 잠자리의 날개에 호박꽃의 노란 꽃가루를 실에 묶어 대막대기에 달아 빙빙 돌리는 놀이도 했다. 이것은 사창가를 흥내 낸 놀이로 ‘조짱, 조짱(일본말로 아가씨라는 뜻)’을 외치면서 잠자리를 유인하는 놀이였다. 지금은 부끄럽게 생각되는 놀이지만 목포의 한 놀이 문화였다는 측면에서 여기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인용해 둔다.

이윤선 | 남도민속학회 회장